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1 4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05 1981년8월29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August 29, 1981

"언어장애 · 외로운 노인 구제 위해"

양로원 건립 적극 추진

중견화가 7인 초대전 계획

지난 2월 설립된 한인양로원건립위원회는 그동안 1,800달러를 모금하고 한인미술가 7인 초대전을 준비 이땅에 한인 전용의 양로원을 건립한다는 꿈을 향해 걸음마를 시작했다

수년간 4만여달러를 모금한 한인회관 건립운동및 토론토대학에 "한국학과를 설치하려는 운동과 맞먹는 대모금사업은 20만달러 확보가 1차 목표

건립위의 차선겸 위원장은 26일 천중환 건립위 이사장 김이열 총무등과 함께 본사를 방문 "우리는 모금운동이 교민의 호응으로 활발해지면 한인회에 이 사업을 넘길 것이다 우리는 모금운동의 기초를 다져준다는 것만을 우리의 임무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립위는 한인YMCA의 와이즈멘즈 · 클럽을 모체로 조직됐다 이들이 계획하는 「현대한인작가 · 초대전」은 한국의 중견급인 동양화가 이양원 한푸열 서양화가 조용각 조각가 유종민씨등 4명과 캐나다 거주 서양화가 나영삼 권승열씨및 조각가 장연탁씨의등 7명을 초대 10월8일 부터 16일까지 토론토 쉐라톤 · 센터 화랑에서 미술합동전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미대 동창생이다

총 60여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전시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전액 건립위에 희사된다고 김총무는 밝혔다

이번 1차 모금사업이 미술가들의 희생적 봉사와 교민들의 큰 호응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차위원장은 말했다

천이사장은 "토론토의여러 양로원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노인들은 언어장애 외로움등 때문에 괴로와하고 있다 이때문에 양로원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립위는 약 100 세대의 노인들이 양로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많은 노부모들이 분가를 원하면서도 자녀들의 체면 때문에 분가를 못하는 실정이며 한인노인들만을 위한 양로원이 건립되면 한인사회가 많이 밝아질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연락처 : 김이열 총무 (416) 769-2201

◇기부금납부처 : Pay to The Korean Senior Home Development Society 55 Emmett Ave. #904 Tor. Ont. M6M 2E4

◇21일 현재 모금상황

차선겸 김용섭각 ＄200

유영갑(R) 유영갑(Y) 박경택 나상선 김태선 이병귀 천중환 김이열 나영삼 송인문 심태섭 송남성 김춘남 신영식 이상 ＄100

(총계 1,800달러)

◇양로원 건립사업의 주역들(왼쪽부터 차선겸 · 김이열 · 천중환씨).

토요일도 문열어

토론토한인신용조합

직종저금 예금액등이거의 130만달러에 이르도록 성장한 토론토한인 신용조합은 오는 5일부터 토요일에도 개점한다

지난 7, 8월 우편파업으로 예금액 증가속도가 늦춰졌었으나 파업해제와 더불어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고 김연수 동조합 상무는 말했다

동신용조합은 신용적금 · 어린이적금 · 성장저축등 각종예금제도를 개발 운영해 왔다

오는 10월의 외환은행개점을 앞두고 새로운 경쟁자를 맞게 된 한인신용조합은 토요일 서비스제도와함께 업무확대 방안을 모색중이다

미정찰기 SR-71 공격당해

이북, 지대공미사일 발사

(워싱턴) 미국의 최신예 정찰기 SR-71이 남한상공을 비행중 북한의 지대공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나 무사히 기지에 귀환했다고미 국방성은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북한군이 쏜 미사일이 어떤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방성관리들은 이 SR-71기가 모종의 임무를 띠고 남한상공과 공해상을 고공으로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주 지중해에서 미공군기가 리비아 전투기의 공격을 받은 사실과는 관련 없는 것같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산타 · 바바라에서 휴가중인 레이건 대통령도 이 사고를 보고받았다

미국방성 대변인은 사건 발생시기 지점등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은채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고한 수시간 후 이를 발표했다

에드윈 · 미즈 백악관 보좌관은 "대통령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나 국방성의 사건조사가 끝나지 않으므로 아직 이렇다할 태도를 표명치 않았다"고 말했다

펜타곤대변인은 "검은독수리"라는 별명을 가진 SR-71기가 위험상태에 있지는 않았고 다른 전투기들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주보좌관은 정찰기가 분명히 남한상공과 공해상을 비행했다고 강조했다

음속 3배의 속도로고공 12만피트까지 비행하는 이 정찰기는 3만피트 상공에서 지상의 성냥갑까지 촬영할 수 있는 「홀로그라」 이라는 특수카메라를 갖고 있다

2인승으로 공격능력은 전혀 없으나 적기의 레이더망을 교란시키는 특수장치가 있다

미국은 U-2소련 격추사건 이후 이 기종을 개발 현재 SR-71까지 만들어 냈다

미국은 쿠바 중동 소련접경에 이 정찰기를 보내고 있으나 아직 1대도 격추된 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등 극동감시 SR-71은 일본본토와 오끼나와에 기지가 있다

미국의 정보함 프에블로 ...

이경원씨 수상 뉴스報道賞

이철수사건보도로 폴 · 토벤킨기념언론상을 수상한 새크라멘토 유니언지의 이경원(53)기자가 21일 캘리포니아 · 스테이트 · 페어의 뉴스부문 보도상을 수상했다.

▲이 경 원기자.

이경원씨는 지난 3월 부터 7월까지 유니언지에「시민들의 범죄타파운동」이란 시리즈를 게재한 공로로 수상한 것이다.

지난 25년간 언론생활을 지낸 이씨는 지난해「코리아 타운」이란 격주간지를 발행하기도 했다.

호는 68년에 북한에 피납됐고 69년2월에는 정찰비행기 EC124가 북한접경서 북한미그기에 격추 4명의 승무원이 숨졌었다

바니사드르 主張

〈베이루트-UPI〉 프랑스에 망명중인 바니사드르 전 이란대통령은 현 이란정권이 수개월내로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니사드르는 23일자 베이루트 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와같이 말하고 호메이니 정권은 내분 때문에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바니사드르는 자신이 이란국민의 80%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구선수「에인지」싸고

야구 · 농구 소송전 벌여

토론토 · 브루제이의 3루수 대니 · 에인지를 두고 토론토 · 브루제이는 프로농구 구단인 보스톤 · 셀틱과의 재판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브루제이와 셀틱은 각각 뉴욕과 보스톤에서 에인지 쟁탈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금년봄 미국 브릭햄 · 영대학을 졸업한 에인지 선수는 농구에도 뛰어나 미국대학농구 올스타선수였다

졸업을 앞두고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양쪽을 두고 망설이던 에인지는 야구를 택해 브루제이스와 83년 말까지의 3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그의 농구재질을 아까와 한 미국프로농구협회(NBA)와 금년도 프로농구 우승팀인 보스톤 · 셀틱은 지난번 프로야구선수들의 파업으로 직장을 잠시 잃은 에인지와 접촉 농구를 택하라고 권유했다

이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브루제이는 지난 7월뉴욕지방법원에 제소 NBA와 보스톤 · 셀틱등 어떤농구팀도 에인지와 접촉 말라는 긴급법원명령을 얻어냈다

그러나 셀틱은 에인지의 변호사와 재협상할 수 있는 법정명령을 보스톤법원에 요청했다

금년봄 브루제이와 3년간 52만달러에 재계약한 에인지 선수는 이미 79년 부터 브루제이의 3루수로 활약했다

한편 토론토는 프로야구 전기의 최하위에서 벗어나 후기 리그 7승8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조 5위를 달리고 있다 금년 프로야구 리그전은 선수들의 파업으로 전 · 후기로 분류 시행되고 있다

브루제이는 이번주말 CNE스타디엄에서 캔사스시티와 3연전을 펼칠 예정이다

야구장 입장권을 가지면 CNE박람회도 무료로 구경할 수 있다

프로야구 전기리그 우승팀들과 에인지선수 개인성적은 다음과 같다

◇전기리그 우승팀

아메리칸 · 리그

동부조 : 뉴욕 · 양키즈

서부조 : 오크랜드 · A's

내셔날 · 리그

동부조 : 파라델피아 · 피리

서부조 : L. A. · 다저스

◇브루제이스 3루수

대니 · 에인지 개인성적

타석204 타율0.186 타점11 안타38 득점13

평화제안 지지

한국의원단 오타와로

(오타와 이태운지국장) 진 · 머챈드 연방상원의장은 26일 한국 전두환 대통령의 남, 북정상회담 제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찬양했다.

머챈드의장은 이날 제1회 한 · 가의원회담 참석차 오타와에 도착한 한국의원들을 맞아 오찬을 베푼 자리에서 전대통령의 제안을 전폭지지하며, 북한은 이 제의를 받아들여 빨리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의장은 또한 역사, 문화등이 다른 두나라 사이의 상호 문물교류를 강조했다.

오는 9월21~24일 트루도 수상의 방한은 한 · 가 양국의 관계증진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봉두환 의원을 단장으로 한 한국측 대표들은 26일 토론토를 떠나 이곳에 도착했다

한국의원 일행은 오타와에 6일간 머물면서 캐나다측 대표들과 회담을 마치고 몬트리얼을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o. 5248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 KANG

Canada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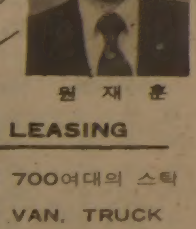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1) GM의 각종 모델 700여대의 스탁
2) G. M. C. 경량급 VAN, TRUCK 일체취급
3) 최고의 TRADE-IN
4) 1년 보장의 USED CAR
5) SERVICE EXELLENCE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임시총회공고—

한인회 회칙 제28조 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장단 입후보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회 장 : 박 인 순 (현 한인회 과도위원장)

부회장 : 장 영 채 (현 한인회 과도부위원장)

부회장 : 고 순 복 (화장품 나시마회사근무)

한인회칙 제8조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일 시 : 1981년8월29일(토) 오후7시

장 소 : 토론토지구 한인회관

안 건 : 신임회장단 인준및 기타사항

1981년 8월25일

한인회과도대책위원회 회장대리 장 순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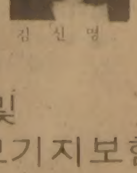
토론토지구 한인회선거관리위원장 김순창

위원 문인식, 오현구, 윤병선, 정창한

SunLife OF CANADA

취급보험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김 신 명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TEL : B) 922-3111 R) 439-8885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SS

「원더랜드」는 비싸고 불편
"CNE가 훨씬 낫다"

토론토의 C.N.E. 박람회 관계자들은 1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C.N.E.가 금년봄 새로 오픈한 캐나다의 디즈니랜드 「원더랜드」(토론토 북방 메이플 소재)와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우선 C.N.E.는 원더랜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온타리오·플레이스와 C.N.E.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가 어린이는 1달러, 어른은 3달러이다. 어린이들은 10달러로 40장의 티켓을 사서 밤11시 문을 닫을 때까지 그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시설을 즐길 수 있다. 그들이 못다 이용한 티켓들은 박람회가 끝나는 오는 7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대부분의 원더랜드 패스포트는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23달러50센트의 패스는 이틀동안만 유효할 뿐이다 어린이들은 원더랜드에서 17달러95 센트짜리 무제한 사용패스를 샀지만 차례를 기다리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내야 한다

원더랜드 입장자는 입장료 9달러95센트 (어린이와 노인은 9달러25센트)를 지불하고 각각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마다 40센트부터 1달러50센트까지 낼 수도 있다

한편 입장료 포함, 12개와 16개의 시설물(주로 탈것)을 이용하는 10달러95센트(어른 $11.95) 및 12달러95센트(어른 $13.95)짜리 패스를 사서 이용하는 길도 있다

원더랜드는 여러가지 패스포트 시스템을 사용 이용자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인상을 주나 실제로는 CNE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비용뿐 아니라 원더랜드 벽돌길은 이용자들을 쉽게 지치게 만든다 너무 혼잡하고 앉아서 쉴 곳도 없다

원더랜드의 또 다른 단점은 음식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25센트에 살 수 있는 소다수 가격이 원더랜드에서는 65센트에 팔리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음식 가격의 차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원더랜드에는 유아용 놀이는 많아도 8~9세 이상 소년소녀용 놀이가 적다 더구나 노인이 즐길만한 것은 없다

롤러·코스터를 못타는 어른이 즐길만한 시설도 별로 없다 다만 한가지 일품은 인조산과 입구에서부터 인조산 밑까지 설치된 분수뿐이다 이 분수는 밤이면 더욱 장관이다

토론토의 디즈니랜드는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비하면 전혀 비교조차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본 한국일보—토론토 보도진은 최근 토론토의 CNE박람회와 「원더랜드」를 비교 CNE가 월등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점경영의 묘미」…④
안전방지책

피터·테사(로스만소매경영연구소장)

1980년은 상점강도 살인 희생자들에게 대단히 불행한 한해였다. 2건의 살인사건이 토론토에서 일어났고, 수십건의 사고가 전국에서 일어났으며, 수백만의 재산피해와 수명의 인명을 손실했다.

이런 비극적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강도를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할 수는 없지만 강도를 예방하는 대책, 사후의 사건수사 협조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우리의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겠다 우리는 절대 이 강도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 강도는 언제나 위험하며 예고 없이 나타나고 논리적 사고가 없으며 대부분이 마약이나 알콜에 취해있다

대항하지 말고 논쟁하지도 말라. 너무 무서워하면 강도를 우쭐하게 만든다

②왜 강도가 상점에 쉽게 들어오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점을 환하게 밝혀 거리에서 안을 볼 수 있게 하라. 좁은 거리쪽 창가 장애물도 완전제거, 밖이 항상 잘보이게 해야 한다. 강도가 들어오는 대부분의 상점은 거리에서 고립된 음침한 곳이다.

③모든 방비책을 갖추었어도 그 어느날 갑자기 강도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칼이나 총을 든 강도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덤비지도 말라 강도의 모든 특징을 기억해 두라. 머리 빛깔, 키, 몸무게, 신발 빛깔, 종류, 얼굴의 특징, 상처여부등 눈에 뜨이는 것은 모두 기억해 두라. 사후수사에 큰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이 왔을 때 손실보고등 정확한 사실만 말하라. 여러분의 추측보고는 수사에 혼선만 빚는다

누가 가장 높은 예금이자를 주나?

21일(금)현재 각 은행의 예금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416—844—7700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탁회사	최저액	정기예금 30-59 DAYS	60-89 DAYS	90-119 DAYS	120-179 DAYS*	180-269 DAYS	270-364 DAYS	현금증서 연간이자지불 최저액	1 YR.	2 YRS.	3 YRS.	4 YRS.	5 YRS.
CABOT	5,000	20	20½	20½	19¼	19	18½	500	20	19½	19	18¼	18¼
CANADA	5,000	19¾	19¾	19½	19¼	19	18½	1000	19¼	19¼	18½	18¼	18
CANADA PERM	5,000	20	19½	19½	19¼	18½	18½	1000	19½	19¼	18¾	18½	18¼
COUNSEL	10,000	17¾	17½	17¼	17¼	17¼	17¼	1000	21	17¼	17¼	17¼	17¾
CREDIT FONCIER	5,000	20	20	20	20	20	20	500	20	19½	19	18¼	18½
FIDELITY	5,000	20¼	20¼	20½	20½	20¼	20¼	500	20¼	19½	18¾	18½	18½
FINANCIAL	5,000	20½	20½	19½	19½	19½	19½	1000	19½	18½	19¼	18½	18¾
GUARDIAN	5,000	19¼	19¾	20	19¼	18¾	18	100	19¾	18½	18½	18½	19¼
GUARANTY	5,000	20	20	19	19	18	18	1000	19¾	19	18¾	18	18
NATIONAL	5,000	19¾	19¾	19½	19	18½	18½	1000	19¾	18½	18	18	18
ROYAL	5,000	19¾	19¾	19½	19½	19½	19	1000	18¾s	18¾s	18s	17¾s	18½
VICTORIA & GREY	5,000	19¾	19¾	19½	19	19	19	500	19¼	19¼	18¼	18¼	18

◇은행	최저액	정기예금 30-59 DAYS	60-89 DAYS	90-119 DAYS	120-179 DAYS*	180-269 DAYS	270-364 DAYS	현금증서 연간이자지불 최저액	1 YR.	2 YRS.	3 YRS.	4 YRS.	5 YRS.
C.I.B.C.	5,000	19½	19½	19½	19	19	19	1000	18½	18½	17¾	17½	17½
CONTINENTAL BANK	5,000	19¾	19¾	19¾	19¾	19¾	19½	1000	19½	19½	19	18¾	18½
MERCANTILE BANK	5,000	20	20	20	19½	19½	19½	5000	18½	18	17½	17½	17½
BANK OF MONTREAL	5,000	19½	19½	19½	19½	19½	19¼	1000	18¼	18	17¾	17½	17½
NATIONAL BANK	5,000	19	19	19½	19½	19	18¾	1000	18¼	17½	17½	17½	17½
BANK OF NOVA SCOTIA	5,000	19½	19½	19½	19½	19½	18½	1000	18	18	18	17½	17½
ROYAL BANK	5,000	19½	19¼	19½	19¼	19¼	19	1000	18½	18	17¾	17½	17½
TORONTO DOMINION	5,000	19½	19½	19½	19¼	18¾	18¾	1000	18½	18	17½	17½	17½

◇모기지 금융회사	최저액	대부이자율(1면) 1 YR.	2 YRS.	3 YRS.	4 YRS.	5 YRS.
KINROSS MTGE.	1000	20	19	19	18¼	18¼
MORGUARD HOME	1000	20	18½	18	18	18¼
MUNICIPAL S & L	1000	18	18	17¾	17½	17½
SEEL MTGE.	500	18⅛	17¾	16¾	16½	16
STANDARD LOAN	500	18¾	18½	10¼	10¼	17¾
TOR. DOM. CORP.	1000	20	19¼	18¾	18	18

관용차줄여
장·차관 사용

(서울26일=연합)한국정부는 장차관급을 제외한공무원의 승용차 공급을 중지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25일 각료회의에서 정부예산중 에너지비용을대폭 삭감키로 한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이미 전 공무원들에게시달된 지침서에 따르면 현재 고급공무원들이 사용중인 관용차는 본인에게 판매, 공무원들 자신이 자가용차로 관리케 한다.

제한된 수십대의 관용차만 각부처에 공급, 공무 에만 쓰기로 했다.

그러나 각도지사, 경찰국장등 몇몇 기관장급은 제외될 것이라고 이 관리는 전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변명 〈시〉

박성민 (문협회원)

나는
키가 작아서
담을 쌓았다.

우리 모두
언어는 다르지만
입을 가지고 있다.
빛깔은 다르지만
눈을 가지고 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나는
키가 작았다.

겨울이 긴
이 대륙에도
봄은 온다.
또한 그렇게 넓기만 하냐면
그렇지 않다.

비행기를 타보아라
뱅쿠버에서
핼리펙스까지
며칠이 걸리는가.

더욱 빛나는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를지
그건 보이지 않지만…

철따라 이내 질
꽃도
후회 없이 핀 사실을
아는가.

나는
키가 작아서
담을 쌓았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주간女性

1981년도 SUPER TEN 골프시합

장소 : GLEN EAGLE GOLF CLUB BOLTON, ONTARIO.
시일 : 1981년 9월6일, 7일 양일간
TEE OFF : 12시 정오
참가자격 : OPEN 시합에 GROSS 10등까지를 자격자(하기명단 참조)
참가비 : $55.00
시상 : ●GROSS 3등까지 ANNUAL CUP
●NET 3등까지(HANDICAP 에 의한) ANNUAL CUP
●SUPER TEN 10명 시상
●LONGEST DRIVE CONTEST
●NEAREST HOLE,
●STRAIT BALL CONTEST.
접수방법 : 1981년 9월2일 까지 하기준비위원에게 접수요망
준비위원 : 정 정 흥(678—2444) (현장에서 접수안함)
원 장 호(889—3544)
김 만 구(486—0397)

1981년 TOP TEN명단

1. 이 기 훈	15. 김 진 기	30. 정 창 헌	45. 강 태 영	60. 최 동 호
2. 박 영 철	16. 김 용 기	31. 박 종 연	46. 이 석 범	61. 김 형 도
3. 최 상 수	17. 윤 여 경	32. 차 자 윤	47. 김 태 수	62. 노 중 길
4. 이 광 민	18. 조 성 호	33. 오 석 원	48. 신 동 삼	63. 송 종 남
5. 함 태 호	19. 강 공 선	34. 정 길 수	49. 김 현 철	64. 최 충 식
6. 이 창 회	20. 김 만 구	35. 홍 진 표	50. 이 호 영	65. 강 경 하
7. 고 광 남	21. 심 재 환	36. 한 강 국	51. 박 상 선	66. 김 인 환
8. 곽 창 수	22. 이 영 현	37. 김 홍 량	52. 이 창 복	67. 원 병 흡
9. 박 노 옥	23. 차 인 규	38. 김 창 갑	53. 오 재 원	68. 김 창 환
10. 배 용 문	24. 이 계 민	39. 김 영 옥	54. 김 경 철	69. 김 태 진
11. 최 호 영	25. 원 장 호	40. 장 인 수	55. 이 강 익	70. 김 현 모
12. 차 선 겸	26. 홍 기 표	41. 강 태 룡	56. 유 기 훈	71. 이 계 성
13. 정 용	27. 정 정 흥	42. 엄 주 익	57 이 병 문	72. 김 성 태
14. 백 운 산	28. 김 형 봉	43. 정 용 주	58 배 광 수	
	29. 최 병 인	44. 하 청 남	59 유 영 갑	1981년 8월29일 현재

MOLSON'S Brewery (Ontario) Limited
주최 : 토론토한인골프협회
후원 : MOLSON
MOLSON'S Brewery (Ontario) Limited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752-7771

회 장 : 이 현 인
부 회 장 : 임 철 원
〃 : 김 명 창
이 사 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캐나다의 경제전망

—본기사는 연방기업 재발은행(Federal Business Development Bank)발행의 프로핏지(Profit)7월1일자에 실린 내용을 번역소개한 것이다.—

81년의 캐나다 경제를형성하는 3대요소는 다음과 같다.

(1)80년도 미국경제의 침체영향에서 벗어 나는것.

(2)국내의 에너지와 식품비가 캐나다달러가치 하락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율을 높게 만든다는것.

(3)20%이상 치솟은 이자율은 주택시장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어 자동차, 가전제품 구입에 많은 돈을 더 써야 한다.

81년의 경제전망 속에서 기대할 만한 것은 전년도 보다는 약간 밝다. 금년도의 캐나다 경제는 80년도의 국민총 생산량(GNP)이 2~3%이상 증가되지못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는 미국경제의 금년도 제4분의1분기 실적보고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캐나다 경제의 성장은 계속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고 금리의 압력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망의 요점들

(1)인플레이션 비율 11%

(2)이자율의 상승.

(3)캐나다 달러는 하락되어 미화대 0.83이하로 더 내려갈 것이고, 이는 수입품값을 상승시킬 것이고, 수출품에는 좋은 결과가될 것이다.

(4)노동자들의 임금과 봉급이 11~12%이상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율과 맞 먹게될 것이다.

(5)소비자들은 식품에너지 비에 더욱 많은 지출을 해야할 것이고, 주택비, 자동차, 가전제품(가정용 전기제품)에 더 많은 돈을소비해야 한다.

(6)반내구재 소매상들(Semi-duravle rtailers)즉 의류, 신발류같은 업종들은 초반 하절기에 약간 좋아질 것이다.

(7)제품생산 회사들중 자동차, 전기 제품업종은 계속 경기하락할 것이다.

(8)연방정부와 알버타 주정부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마찰이 끝날 때까지 사업투자(Business Investment)가 활기를 띄우지 못할 것이다.

(9)비주택 건설업계는 80년도 수준에 머물게 되는데, 그 이유는 활발한 투자가 없기 때문이다.

(10)어업계는 11%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이유는200마일로 전관수역을 확장하고, 노동자들의 쟁의와 파업이 종식되기 때문이다. 농업생산은 4%의 성장을 보게될 것이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2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경쟁이 심한 관광업계의 경영과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며, 감자생산을 격려하여 80년도 흉작피해를 만회시켜 81년도에는 전국에서 4번째의 성장률을 차지하려 할 것이다. 퀘벡주는 1%이상의성장을 보이는 분야가 없을 것이다. 건설업계도 뚜렷이 개선될 전망이 없다.

온타리오주 제품생산업체들이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고이자율로 타격을 계속 받을 것이며, 소매업계도 매상볼륨(Volume)의감소를 겪게될 것이다.

전원주들(Prairies)의경제력의 성장발전은 캐나다에게 안식을 주게될 것이다.

마니토바주는 비교적 전망이 밝다. 이 지역의 토지, 노동력의 낮은 비용과 값싼 전력비는 그 확장이 가능하여 제품생산업계에 활기를 줄 것이며, 전년보다 약 1%이상의 성장을보게될 것이다.

사스카츄주는 세계 곡물시장의 전년도 보다 높은 가격인상 때문에 농장주들은 기쁨을 구가할 것이다. 성장률은 전국 평균치의곱을 예상할수 있다.

알버타주는 지연되는 자원정책의 중심이 되는 석유, 크르드오일 업계의 부진으로 1980년도의 성장률 4.8%가 하락되어 3%의성장을 보게될 것이다.

브리티쉬·콜럼비아 주는 전 분야에서 최소한도의성장을 기대할수 있으나 이곳의 주요 생산품인 목재품에서 실망을 주게될 것이다. 어떻든 그 분야에서 문제의 해결을 볼수 있다면 연 2%의 성장을 기대, 할수 있을 것이다.

밀크값 인상

오르기만 하는 물가상승에 따라 밀크회사들이 주종제품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제품값을 인상한바 있다한다.

그런데 실버운(Silverwood)회사와 니일슨(Neilson)우유에서는 크림과 치즈를 24일자로 올려받고있으며, 시일테스트(Sealtest)는 이미 17일자로 크림류가 올랐다고 한다.

회원들은 이점 유의하시고 자세한 값의 비교는 정보가 입수 되는대로 다음기회에 알리려 한다.

회원스토어 방문 끝냄

지난 2주간동안 협회 조사무장이(인터·씨티·뉴스)잡지의 FDA(Fixture Display Allowanc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80년도 제3기분(7,8,9월)체크를 직접 전달한바 있다.

이번 기회에는 130여 회원 스토어를 찾아 갔는데, 많은 회원들이 사무장의방문을 환영하고, 무더운 날씨에 수고한다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감사했다.

어느때는 밤 늦게 찾게되어 회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헬퍼에게 체크를 전한바 있어 착오는 없겠으나 협회로 전화연락을 해주면 안심할수 있겠다고사무장은 술회하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들려준 여러가지 제언들을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의욕을 돋우고 있다.

여러 회원들이 미납된회비를 납부한 것과, 계속 협조를 다짐하는 기회가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고했다.

조영증씨 최우수선수에

북미프로 축구기자단이 선정, 매주 뽑아
존대변인 조선수—팬들 영웅이라 극찬

▲북미축구연맹(NASL)의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조영증선수.

미국프로축구팀 「포틀랜드·팀버즈」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영증선수(27, 전화랑팀소속)가 프로축구기자단이 뽑은 북미축구연맹(NASL)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조선수는 지난 2일 부터 8일까지 제2주간에 소속팀 팀버즈의 공격수로 활약해 5일 에드먼튼팀과 대전에서 3대1로 승리하는데 첫골을 성공시켰으며 또1골은 결정적 어시스트를 했다.

또한 조선수는 8일 달라스팀과의 경기에서도 1골을 성공시켜 5대2로 소속팀이 승리하는데 수훈을 세웠다.

조선수의 이번 영예는 소속팀「팀버즈」에서도 처음으로 존·폴리스구단대변인은 『조선수는 팀버즈의 명성을 높힌 선수이며 포틀랜드축구팬들의 영웅』이라고 밝혔다.

NASL(북미축구연맹)은 미국프로축구팀의 최대조직으로서 뉴욕의 코스모스 LA의 아즈텍도 가입되어 있다.

조영증선수는 지난 3월15일 한국선수로는 최초로 미국프로팀「팀버즈」에 입단했으며 11일 현재까지 총23게임에 출전해 공격과 수비양면에서 활약해 기대를 모아왔다.

또 지난5월말 가족인 부인과 아들을 초청해 현재 워싱턴주 뱅쿠버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조선수는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프로에 입단한지 4개월만에 최우수선수가 된 것이 한국을 위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미주교포들이 보여주는 성원이 오늘의 영예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CANADA CUP '81

◇「캐나다 컵」대회를 앞두고 위니펙에서 캐나다와 29일(토)연습경기를 갖기 위해 토론토에 잠시 기착한 소련팀 일행 소련팀 주장 알렉산더·말트스브가 왼쪽에 서 있다.

캐나다 2차전 이겨

하키대표팀 5명 탈락

(몬트리얼) 캐나다 하키대표팀은 미국과의 제2차 연습경기에서 6:5로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다.

25일밤 이곳 회럽에서 거행된 제2차전에서 캐나다는 몬트리얼의 스티브·셧의 2골등으로 미국을 격파했으나 이번의 「캐나다컵」을 방어할는지 의심을 남긴 경기였다.

이 경기후 스코티·보맨감독은 "많은 의미를 가진 경기였다"면서 캐나다대표팀 35명중 1차로 5명의 선수를 탈락시켰다

탈락선수중에는 NHL의 제1올스타 수비 선수인 피츠버그의 랜디·캐릴로함 L.A. 킹의 골리 마리오·레사드와 라이트·윙 데이브·테일러 미네소타의 센터 보비·스미스의 5명이다

시틀러 탈락

「캐나다컵」쟁탈 세계 하키대회에 대비한 캐나다대표 하키팀의 유일한 토론토팀 주장인 노장 대릴·시틀러가 추가로 탈락했다.

26일 대표팀 관계자들은 시틀러와 같이 미네소타의 레프트윙 스티브·페인 버팔로의 수비 짐·스천펠드, 에드몬톤의 수비 폴·커위선수의 4명을 추가로 탈락시켜 대표팀을 25명으로줄였다.

25명의 대표팀은 29일에드몬톤에서 소련과의 연습경기후 23명으로 최종선발된다.

대릴·시틀러는 대표팀코칭스탶의 일원으로 남을것을 제안 받았으나 다음의 NHL시즌을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㊽

팔리·모왓 원작, 현재훈 옮김

그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이 어망은 그들의 가장 곤란한 처지에 정부가 보여주었던 난민구제의 상징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재난이 덮친 기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백인의 손이 닿았던 어느 곳이나 북쪽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나 인디안들에게 닥친 외과적인 재난의 생생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하여 말하고 싶다. 그것은 별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못된다. 독자들은 아마 수림에 사는 인디언들이 적응을 못해서 타고난 게으른 성질로 인해서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대량으로 죽어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진상을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죽어간 분명한 이유는 굶주림 때문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독자들이 수천명의 인디언들과 에스키모들이 결핵으로 죽어가는 이유를 또한 지난 20여년간 북극 전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1/6을 죽인 홍역이나 천연두등 전염병에 대하여 그리고 이들이 굶어서 죽지 않았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분명하게 그들이 굶어 죽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설명하자면 우선 북극사람들이 괴멸되어 가는 것을 막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변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것은 후천적 면역 이론이다. 어느의학 권위자도 어떤 종족은 질병에대하여 다른종족이 못 갖는 특별한 면역성을 개발시킬수 있다고 바보같은 소릴 한적이 없다. 그 이론은 우리가 갖고있는 면역이 에스키모들과 인디안들에게는 없고, 또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매년 수없는 인명피해를 가져오는결핵이나 다른질병을 검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능력을 설명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아리안민족이 셈족보다 우월하다는 이론처럼 받아들일수 없는 생각이다.

질병에 대한 면역은 후천적이다. 그리고 면역을 얻는 능력은 모든민족이동일하다. 만일 면역만이문제였다면 맥켄지강 주변에 살고있던 인디안들은 필요한 면역을 오래전에 모두 가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질병이 한세기반동안 그지역에서 무서운 살인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시적인 전념병에는 살아남은자손들은 그 강가에 전념병이 퍼지면 아직도 죽어가고 있다.

나는 통계를 싫어하지만 내가 말 하는것을 입증하기 위해 꼭 이용해야 되겠다.

1937년과 1941년사이에 캐나다 노스·웨스트·테리토리에서 결핵으로 죽은숫자는 다른 캐나다지역의십만명중의 오십명인데반해 이 지역은 십만명중 761명이라고 보고 되었다. 이숫자는 정부가 파견한 한사람의 의사가 조사한 숫자였다. 정말로 죽은 숫자는 천명이 훨씬 넘는다고 믿을수 있는 근거는 백인들이 알고있지 못하지만훨씬많은 사람들이 죽고묻혀버린다. 결핵은 지난 150년동안 이 지역에 퍼져있었고, 이상하리만치 인디안들은 저항력을 전혀 기르지 못한것 같다. 그러면 굶주림과 이들 질병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숫자놀음 보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다.

◇영원한 문명의 이방인들—넓적한 얼굴, 순한 천성으로 우리네와 흡사한 생김새인 에스키모인들은 현재 문명과 융합치 않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마니토바 북쪽에 있는레인디어 레이크에가면 브로쉐트라는인디안 촌락이있다. 여기는 치퓨안 인디안의 한 족속인 자기들을"이덴 엘델리 즉 사슴을먹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살아남은 자들이 사는 본부이다.

1860년대 브로쉐트가 사업이 번창한 무역소로 발전하고 있을 때에는 이들이 약 2천명에 달하고 있었으며, 번성하고 있었다.

겨울철에는 사슴이 겨울을 보내는 북극 가까운 수림근처에 텐트를치고 살았다. 봄이되어 사슴이 평원으나 이동하면 이덴사람들도 따라 나왔다. 그래서이덴 사람들은 이할미우트사람들의 본거지인 바렌을통과해서 수천마일을 매년여행하였다.

18세기 저 유명한 탐험가 사무엘·헌(Samuel Hearne)이 이들 인디안을 따라 처칠에서 바렌을넘어코퍼마인강 까지 여행하고, 다른 탐험대가 한것처럼이덴 사람들의 초인간적인참을성과 체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곤 했다.

브로쉐트에서 내가 이덴엘델리 인디안과 함께살던 1948년 겨울에는 남녀노소를 통틀어 150명밖에 남지 않았고, 겨울에는 잡히지않는 트랩을 놓으며 겨울을 보냈다.

강이녹아 물고기를 낚을수 있을때까지 굶다시피추운 몇개월을 보내는것을보았다.

그들은 이제 바렌으로사슴을 따라가지도 않았다. 사슴을 따라 긴 여행을 하는대신 멸망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수동적이며 패배당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 비참하게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다.(계속)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치과개원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하기장소에서 치과개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원일시 : 9월1일부터(오전8:30~오후5:30)
장 소 : 586 EGLINGTON AVE. E.
(Bayview × Eglington)
전 화 : 483-9515(B)

치과의사 최 해 경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비행기 發明者는 피어스"

지금까지通説「라이트 兄弟」뒤집는 異說나와

뉴질랜드 농부로 라이트보다 1年 앞섰다고

30피트高度서 8分間 5마일 飛行성공주장

寫眞기록없으나 當時목격자들 나타나 증언

길이 10·높이 9·날개 25피트 説明書도 발견

'73년 復元된 복사판 LA서 現在일반 公開中

生存누이 "비행기 소리 요란"당시를 회상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1903년 12월27일 키티·호크라는 이름이 붙은 비행기를 12초동안 땅위에 뜨도록 하는데 성공한 미국의 오빌·라이트로 알려져 있다.

오빌은 동생 윌버와 함께 오늘날의 항공기 발전에 커다란공헌을했다.

그러나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오빌·라이트가 아니라는 이설이 나왔다.

오빌이 키티·호크를 공중에 띄우기 1년전인 1902년 3월31일 뉴질랜드에 살던 무명의 농부 한사람이 집에서 만든 조잡한 비행기를 타고 고도 30피트에서 약8분의 5마일을 비행했다는것.

농부의 이름은 리처드 피어스.

그는 지난 1953년 75세의 나이로 이미 사망하고 없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서 직접 오빌·라이트에 대한 도전의 말을 들을 수는 없다.

피어스가 사망한지 5년뒤인 1958년 전에 비행기 조종사였던 사람이 뉴질랜드의 사우스·아일랜드섬에 있는 한 낡은 농가헛간을 뒤지다가 피어스의 정밀한 비행기 설계도와 설명서를 발견했으며 얼마뒤에 인근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그의 비행기처럼 보이는 잔해물들을 또한 발견했다.

피어스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당시인 1902년에 그의 비행기가 뜨는 것을 구경나왔던 사람 가운데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비행순간을 찍은 사진은 없다.

그러나 당시의 목격자들이 한사람 두사람 나타나기 시작, 증언을 하고 있다.

단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아직도 피어스를 인류 최초의 비행기발명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까지 35명의 목격자가 피어스의 비행기가 공중에 뜨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15명은 진술서에 서명까지 했다.

뉴질랜드 오크랜드시교외의 한 요양원에 살고 있는 피어스의 누이동생도 목격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녀는 비행기소리가 엄청나게 컸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통박물관은 피어스가 1906년에 신청 획득한 특허를 토대로 지난 1973년 피어스가 발명한 비행기를 그대로 다시 만들었다.

피어스의 복사판비행기는 지난 4일 에어·뉴질랜드 점보제트기에 실려 LA에 도착했다.

오빌·라이트에 도전하는 피어스의 비행기는 5일부터 2주동안 LA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피어스의 비행기는 길이가 10피트, 높이가 9피트, 날개길이가 25피트이며 그가 쓴 설계도 설명서에 따르면 무게가 125파운드 미만인 25마력의 엔진을 부착하도록 되어있다.

비행기 후부에 승강타가 있고 상부에 수직안정장치가 있으며 날개내부에 보조날개가 부착되어 있다.

한손으로는 머리위에 달려있는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여 보조날개와 승강타를 조종하는 한편 다른 한손으로는 이착륙전에 기수쪽에 달린 바퀴의 방향을 바꾸는 키를 조종하도록 되어 있다.

피어스는 3번이나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며 뉴질랜드의 농가와 강과 절벽위를 날랐다.

4형제중 장남으로 태어난 피어스는 21세가 되던 해 1백에이커의 농장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피어스는 농사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비행기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다.

가족들과 이웃들은 피어스에 실망했다. 그가 만든 비행기 엔진 소리는 밤중에 사람들을 잠에서 깨웠으며 가축들을 놀라게 했다.

피어스는 대장간을 만든 다음 이곳에서 남들이 버린 농기구조작들을 모아 비행기를 만들었다.

담배 깡통으로 2개의 엔진 피스톤을, 철제배수관으로 실린더를, 그리고 두꺼운 천과 대나무로 날개를 각각 만들었다.

피어스는 울타리철사를 비행기부품들을 한데 묶는데 사용했으며 지붕재료로 쓰이는 쇠붙이를 프로펠러제조에 사용했으며 자전거바퀴 3개를 비행기에 부착했다.

오빌·라이트가 이처럼 도전을 받자 워싱턴D.C.의 스미소니안박물관 항공관계직원인 크로디아·오크스는 오빌·라이트와 리처드·피어스의 비행기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라이트가 제조한 비행기는 동력장치가 갖추어 졌었고 사람이 직접 타고 조종을 했으며 공기보다 무겁다는 점과 또한 비행기가 이륙당시 위치점보다 고도가 높거나 똑같은 지점에 착륙했다는 점에서 인류가 발명한 최초의 비행기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피어스가 발명한 비행기도 오크스가 주장하는 모든 조건에 들어맞고 있다.

◇리처드·피어스가 발명한 인류 최초의 동력장치를 갖춘 비행기—미국의 라이트형제보다 앞서 발명했다고 주장되고 있다.

◇미스 휠체어—1981년도 미스 휠체어 아메리카(척추장애자 미인대회)로 메릴랜드 출신의 카리안 스쿨링양(26세)이 뽑혔다. 오른쪽은 작년도 당선자.〈AP〉

걸작만화

"How about one in the nude?"
「누드로 찍을까요?」

"I hope you're a man!"
『남자 겠지!』

끝없는 사랑

새 映画

집념같은 愛情에 시달리는 10代戀人 그려

그것이 빈말일지라도 『네가 죽으면 나도 따를테다』라면가『이사랑은 너무아프다』고 말한적이 있는 「연인」들이라면 공감할수 있는 「ENDLESS LOVE(끝없는 사랑)」.

시카고교외의 하이드팍. 17살짜리 데이빗(신인 마틴·휴잇)과 15살짜리 제이드(브룩·쉴즈)는 나이답지 않게 뜨거운사이. 개방적임을 자처하는 제이드의 아버지휴(돈·머레이)와 어머니앤(셜리·나잇)은 딸의 과도(?)한 사랑에 당황 30일간 두연인이 만나지 못하도록하자 견디다 못한 데이빗은 제이드 집에 방화, 정신병원에 수감된다. 병원서 나온 데이빗은 제이드와 2년만에 잠시해후하나 집행유예조건을 위반, 데이빗은 감옥에 수감되고 결국 둘은 각자 성인의 길을 간다.

이영화는 자신을 다스릴줄 알기전에 닥친 폭풍 노도같은 사랑이 낳고야마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으나 부모들의 애정파탄을 곁들여 초점이 다소 흐려졌고 끝부분이 서둘러 맺어진듯 모자라다.

논란도 많았던 벽난로 앞에서의 정사는 순결·정열·신선미의 젊음의 것이라 아름답고 휴잇의 고뇌와 오열이 가슴 한 귀퉁이를 찡기나 그의 연기는 아직 틈이 보인다.

셜리·나잇이 딸의 정사를 당혹과 찬탄과 동경의 눈초리로 숨어보는 장면은 이영화의 빼어난 부분. 쉴즈의 연기는 평범하나 그 미는 검은 진주처럼 진하다. 다이아나·로스의 주제가가 감상에 젖게하고. 집념같은 사랑에 시달리는 자녀에게 부모는 어떤 길잡이가 될수있는 가를 보여주려하나 해답은 주지못한다.

감독은 「로미오와 줄리엣」와 프랭코·제피렐리. 폴리그램사 작품. 유니버설 배급. 등급R 〈津〉

▲영화「끝없는 사랑」중 브룩·쉴즈.

벗겨지는 神秘…土星에서 소리가 들린다

◇토성의 하이퍼리언 달, 보여주는 3가지 모습—보이저 제2호가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하이퍼리언의 모습이 왼쪽으로부터 더욱 크고 자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의 표면은 운석으로 곰보자국이 나있고 불안정한 상태로 토성의 주변을 돌고 있다. 〈윗사진—UPI〉

◇보예저2호가 보내온 토성의 신비—지구로 부터 8억마일 떨어진 토성에 4년만에 근접한 우주탐색선 보예저2호는 25일 토성에 6만3천마일까지 접근, 지금까지 신비에 묻히었던 토성의 모습들을 사진과 녹음으로 지구에 보내왔다. 보예저2호는 25일 오전 토성주변의 이상한 소리를 녹음으로 보내왔다. 〈아랫사진—AP〉

생활영어

이력서 쓰는법

취직을 하려면 대개 이력서를 써내야한다. 이력서는 résumé(레주우메이), personanal history (퍼어스널 히스토리) 또는 curriculum vitae(커리큘럼 바이티) 라고 하는데 원래 프랑스말인 résumé 에서 e 자 위의점들은 생략하고 resume라고 써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이력서를 쓸때 성명, 본적, 생년월일 등을 먼저 쓰기 시작하는데 비해 미국식 이력서는 맨 꼭대기에 이름과 현주소 및 연락전화번호를 쓰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직업부터 써내려 간다.

시카고에 살다가 로스앤젤레스로 이사온 김순자라는 교포여성이 어느 호텔식당에 캐쉬어로 취직하기 위해 resume를 써낸다고 가정해 보자.

Resume of : Soon-ja Kim
981 S. Western Ave. #24
Los Angeles, CA 90006
Phone : (213) 123—4567

JOB OBJECTIVE
Cashier

EMPLOYMENT
July 1979—June 1981 Cashier
Pusan Restaurant
4321 Clark Street, Chicago, Ill.
May 1977—July 1979 Cashier
Midwestern Hotel
6687 Northern Ave., Chicago, Ill.

EDUCATION
College : Chicago Business College, Chicago, Ill. Graduated 1976
High School : Lincoln High School, Chicago, Ill. Graduated 1974

PERSONAL
Born : 12/16/1958 in Seoul, Korea
Appearance : Height 5'6", Wt. 112 lbs.
Marital Status : Single.
Health : Very Good
Hobbies : Tennis, Stamp collection.

이제 소개한 김순자씨의 영문이력서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김순자의 이력서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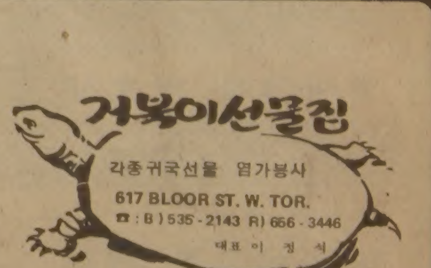
원하는 직업
캐쉬어
취업경력
79년 7월~81년 6월 시카고 부산식당 캐쉬어
77년 5월~79년 7월 시카고 미드웨스턴 호텔 캐쉬어
학력
대학 : 시카고 비즈니스 칼레지 1976년 졸업
고교 : 시카고, 링컨 하이스쿨 1974년 졸업
인적사항
출 생 : 1958년12월16일 한국 서울서 출생
용 모 : 키 5피트6인치, 몸무게 112파운드
결혼여부 : 미혼
건강상태 : 매우좋음
취 미 : 테니스, 우표수집

미국식 이력서를 쓸때 주의할 점은 위의 견본을 통해서 ①취업경력과 학력을 쓸때 현재에 가까운 것부터 쓰되 달과 연도만 쓰면 된다. ②근무했던 직장의 주소를 반드시 쓴다 ③학력은 보통 고등학교까지만으로 충분하다. ④생년월일은 보통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처음에 달,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연도를 쓴다 ⑤이력서의 왼쪽 맨꼭대기에 "김순자의 이력서"와 같이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오른쪽 맨위에는 자기의 현주소와연락전화번호를 쓴다. 전화번호는 Tel 이라고 쓰지 말고 Phone(포온)이라고 쓸것.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 7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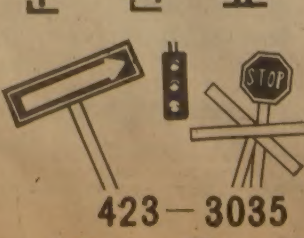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뫼실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Wilson Eglinton Keele Bayview CHINA HOUSE Bathurst Bloor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825 EGLINTON W.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운 전 교 습


423—3035
(오 행 근)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The Korea Times Toronto

週刊한국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1981년8월29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Saturday, August 29, 198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市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192>

담당 민병철
【美 트루먼大 영어연구원장】

WILL YOU GIVE ME CREDIT FOR THE 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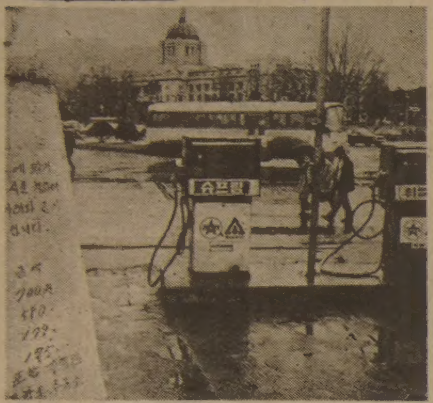
무슨일이 있어서 한국의 친척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몇마디 주고받은 결과 원하는번호가 아니라 엉뚱한곳이 나왔음을 알았다. 전화를부탁했던 미국교환이 잘못하여 다른번호를 돌려주었던 것이다. 그후 얼마안되어서 전화국으로부터 bill(청구서)이 날아왔는데 한국에 잘못걸린 요금까지 나와있지않은가. 이런 경우에는 즉시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한후 시정을 요구해야될 것이다.

예컨대 『지난 1월15일 서울에건 전화는 잘못 걸린 전화로서 요금을 제해주기 바랍니다』 The call I made to Seoul, Korea last Jan. 15th turned out to be the wrong number. Will you give me credit for the call? 혹은 잘못걸린 전화를 방금 끊은후라면 전화를 연결시켜 주었던 국제담당 교환을 불러서 시정을 요구해야되는데 이때는 전화신청시 담당교환의 신분번호를 알아두었다가 불러내면 된다.

A : Business Office. Miss Smith speaking. May I help you?
B : Yes. The call I made to Seoul, Korea last January 15th turned ot be the wrong number. Will you give me credit for the call?
A : What is your telephone number?
B : (312)275-4789
A : Just a moment, please. I'll check your file. (A few seconds later) Thank you for waiting. You're right. You shouldn't have been billed for that call. We'll cancel the charge and adjust your account.
B : Thank you.
A : 비즈니스 오피스 미스 스미드입니다. 도와드릴까요?
B : 네. 지난1월15일 한국 서울에 건 전화는 잘못걸린전화였읍니다. 그 통화요금을 제해 주시겠읍니까?
A : 전화번호가 몇번이시지요?
B : (312) 275—4789입니다.
A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서류를 조사해보겠읍니다. (잠시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게 맞군요. 그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청구서를 받으시지 않았어야 했었읍니다. 요금을 취소시키고 당신의 계정을 고쳐 놓겠읍니다.
B : 고맙습니다.

※turn out: 결과~이되다. Everything turned out well. 모두좋은 결과가되었다.
file: 서류철
cancel the charge: 요금을 취소하다.
adjust: 조정하다.

뉴스·안테나



◇OPEC의 油價單一化가 실현될 경우 국내 유가의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經濟 單一化하면 國內價올라
OPEC 油價引下、減産기미

OPEC(석유수출국기구) 石油相들의 길게 늘어진 러번이 또 한차례 펼쳐이면서 한국까지 기름값 리上바람을 몰아올것같아 우려된다. 지난 1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3개 OPEC회원국들이 모여 油價單一化와 石油減産問題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우려는 사우디가 油價를 32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하고 생산량도 감축할것으로 전망되고있는 점이다. 사우디는 그간 알제리·리비아·나이지리아등 아프리카 강경파산유국들에게 「高油價低生産政策」을 완화하라는 제안을 내놓고, 이를 강경파산유국들이 받아들인다면 사우디는 自國의 油價를 배럴당 32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하고 생산량도 줄일뜻을 밝혀왔다.

앞으로 OPEC의 油價가 單一化에 합의를 볼 경우 한국은 OPEC의 원유평균가격이 인하되는 것과는 반대로 배럴당 2달러의 인상을 보게되는 사우디 원유가때문에 한국내 유가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도입하는 계약총물량(하루 55만6천배럴)의 60%가량인 33만2천배럴을 사우디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지난 4·19유가인상조정때에 사우디산 원유가인 배럴당 31달러44센트를 기준원유가로 잡고있어 이번의 「OPEC 合意」는 곧 유가인상으로 직결되기 쉽다. 따라서 사우디가 배럴당 2달러 인상을 결정할 경우 국내기준가는 배럴당 31달러44센트에서 33달러44센트로 오르게 되어 6·36%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쿠웨이트가 배럴당 1달러75센트씩 내린것을 비롯,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산유국의 원유가는 부분적으로 내렸지만 이를 도입산유국 전체로 볼때에는 0·3~0·5%의 인하요인에 불과하다고한다. 반면 사우디산의 인상과 함께 달러가 강세를 보여 환율이 지난 4월19일 인상조정시점을 기준으로 1·31%가 올랐고, 유전스이자가 연 14·5%에서 19%로 인상됐으며 精製비용이 오른점등을 감안하면 인상요인은 더 겹치게 돼있다. 그러나 油價인상은 그 파급효과가 모든산업에 미친다는점을 생각할때 OPEC회의의 결과와 함께 우리정부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는지 주목되고있다.

◇韓·日 외상회담에서는 東北亞 정세와 經協문제가 중점토의됐다. <78년 韓·日외상회담>

外交 韓日經協 外相회담 열려
日外相 韓國安保에 極言

韓·日 外相회담이 지난 20일부터 도쿄에서 열려 경제협력 문제등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일본측 대표인 소노다 日本外相이 엉뚱한 妄言을 해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있을뿐 아니라 회담 결과에 암운을 떠게 하고있다.

소노다 日本外相이 비공식으로 밝힌 발언은 『안전보장 문제와 경제협력을 관련시키는 사고방식은 일체 받아들일수 없다. 이 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韓·日관계는 잘못될것이다』라는것.

그는 『이번 회담에서 정치얘기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경제문제는 취급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국방이나 안보를 얘기하는것은 이쪽의 손을 묶고 돈을 내라는것과 마찬가지다. 경제위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함으로써 한국의 자세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한국측의 협력요청액은 일본의 해외지원액(80년 33억달러)의 70%에 상당하는 규모로 이 요구에는 절대 응할수 없다』고 강조한 그는 또다른 엉뚱한 내용의 발언을 서슴지·않았다.

즉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개선하는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사실 경제원조를 바라는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것 같다.』 『북괴가 침공하는 경우, 한국에 어느 정도의 전투력이 있는지 모른다. 北은 사실은 약하다. 아르헨티나에 빚을 갚지 못해 단교 당하는 등 각국에 몰리고 있다.』 『戰後 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괴롭힌 일이 있으나 앞으로는 진정한 우방으로 아시아의 중핵이 되어야 한다』등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外務部 당국자는 『지난 18일 귀국한 마에다(前田利一) 駐韓日本大使가 경제협력문제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을 강경한것으로 보고한데 대한 場外 전략일것』이라고 분석, 『정부는 韓·日外相회담결과를 주시,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對日정책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밝혀 韓·日 外相회담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뉴스·안테나

◇ 대통령의 인척을 앞세워 사기극을 벌이다 검거된 일당들.

社會 全大統領 4촌동생拘束
犯罪단체 관련…請託혐의

서울시경은 19일 한국노년복지자조회장 玄材燮(58·江東區鷲室시영아파트38동48호·三信住宅社자영)、동부회장 全相根(54·鍾路區苑西洞77의6·東南製藥이사)、동총무위원장 安晃太(49·恩平區鷹岩洞8의30)、한국양곡가공협회전무이사全尙華(49·銅雀區上道洞335의98)등 4명을 사기·범죄단체구성및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대통령의 4촌동생인 한국양곡가공협회중앙회장 全鳳煥씨(48·道峰區月溪1동 신동아아파트12동202호·주식회사 日新工場부사장)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2범이며 서울시사회과장, 한국지역사회개발공사장 등을 지낸 玄은 사회사업가로 자처해 오던 자로서 지난 12월초 서울中區藝場洞8의33 한양스튜디오빌딩 401호에 한국노년복지자조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돼있는 道峰洞·牛耳동 소재 개인소유임야 5만5천8백56평과 국유임야 3만9백86평등 모두 8만6천8백42평에 대규모 노인아파트 및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한다는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을 세워 선전, 이 자조회와 그 사업계획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全鳳煥씨에게 접근, 자조회사무실의 일부를 무료로 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친분관계를 맺고 이 자조회와 그 사업계획에 대통령의 근친이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玄은 지난8일 상오10시 世宗문화회관에서 각계인사 1백1명을 발기인·고문·이사등의 자격으로 초청, 한국노년자조회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사업계획을 선전하면서 아파트입주권·건설공사참여·의료운영권·간부취업조건등을 미끼로 4천7백만원을 편취했다.

玄은 이보다 앞서 작년11월2일 그린벨트 해제조건으로 牛耳동 그린벨트내 金根昌씨 소유 8만6천8백42평중 1만7천3백68평을 무상 공여받고 나머지 6만9천4백74평을 83억원에 매입키로 약정하는 등 토지를 사취했다.

全鳳煥씨는 한국양곡가공협회중앙회장으로 있으면서 玄材燮이 사단법인등록인가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응접세트, 책상등을 받았고 7월24일 玄등 4명과 함께 보사부장관실을 방문, 복지회의 사단법인등록을 인가해달라고 청탁했다.

◇忠南과 全南北지방의 농사현황을 살펴보는 全대통령.

國內 "法·秩序어기면 容納안해"
全大統領 청결信念 再闡明

全斗煥 大統領은 『내 친척이나 내자식, 그리고 내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든 앞으로 법과 질서를 어기면 추호의 아량도 없이 법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지난 19일 全南도청회의실에서 관내 기관장을 비롯한 유지들과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법과 질서를 위반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것이 나의 信念이며 所信이며 哲學』이라고 거듭 강조, 『깨끗한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法앞에 平等해야되며 이것만이 國民大和合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앞으로 두고보면 알것』이라고 전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특권층은 있을수 없으며 특권층일수록 國民에게 더 奉仕하고겸손해야하며 예의발라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내 임기7년동안에 민족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이것을 기반으로 착실한 經濟成長과 平和통일의 기반을 다지며 또 不正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정부를 유지할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마련해놓겠다』고 다짐하면서 특히 『힘없는 者가 힘있는 者에게 平和를 제창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것』이라고 지적하고 『힘을 기르고 힘의 균형위에서 경제력을 배양해서 이를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해 나가야만이 北傀와 대치할수 있고 전쟁의 공포로부터도 해방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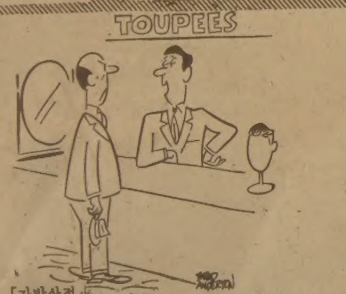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물가안정의 重要性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통을 참고 이겨 나가야 하며 공무원봉급등 임금인상의 자세와 기술분야에 대한 적극투자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全대통령은 忠南論山·全北金堤·全南長城일대의 벼농사작황을 둘러본뒤 全南道廳에 들러 金宗鎬지사로부터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우리나라의 토양이 극도로 산성화되어 있으므로 퇴비증산에 힘써 토양을 개량하는데 적극 노력하라』고 수행한 徐廷和내무·高建농수산부장관등 관계관에게 지시하는 한편 『오는 추석에 대비、쌀·쇠고기·돼지고기등 생활필수품가격의 안정과 공급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해외 걸작 만화

"저 여자도 세일품일까"

"아무래도 내생각엔 저친구가 감기약만 먹는게 아닌것 같아"



「가발상점」
"당구공같은 머리를 덮을게 필요하십니까, 선생님?"

"I don't think I'll be able to make it."
「난 못해」 <구조대>

"See? I told you he was a crook."
「이봐, 내가 강도라고 했잖아」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TD)

101 DUNCAN MILL RD., SUITE 404
DON MILLS, M3B 1Z3

전화 : (B)449-8644, 8645(H)286-1548

부동산 BROKER
모게지 BROKER

금주의 새 리스팅

드라이크리닝사업
주매상 $3000 맥도날드 햄버거 옆,
$100,000다운. 가격 $150,000

건물달린가게
1)주매상 $6,500 3베드룸, 코너, 외국인 경영 50,000만 다운, 잔액 모게지 잡아줌. 가격 $220,000
2)주매상 $4,000 3베드룸 코너
가격 $129,000

바라어티
1)몬트리얼에 있는 주매상 $13,000
시간짧고 이윤좋은가게.
$100,000다운 가격 $155,000
2)주매상 $3,700 일요일 닫고 주중 시간도 짧음. 그로서리 없으며
NET월수입 $ 3,000 가격 $35,000
3)바라어티와 픽업 드라이크리닝겸한 가게 월 순수익 $4,000 리스
월 $400 4년 5년 5년옵션.

꽃 과일가게
1)주매상 $3,500~$4,000 월 $550
담배와 티켓 포함되지 않음.
일요일 닫고, 주중시간 짧음.
현 외국인 경영 가격 $22,000

샵핑몰안에 있는 기프트 가게
년매상 약 170,000 가격 $80,000

이외 투자용 건물, 프라자및
GAS STATION 자리도 있읍니다.

제1회
대학생음악회

Notes of Autumn

한인대학생합창단
지휘 : 김인안(Nancy Kim)
반주 : 김현옥(Maureen Kim)

신 성 하 : MEZZO SOPRANO독창
반주 : Suzanne Azar

신 수 명 : 피아노 독주

1981년 9월5일 토요일 8시

GREAT HALL, HART HOUSE
UNIVERSITY OF TORONTO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今週의 人物

藝術院 會員이된 最初의 女流무용가

金白峰씨

오직 舞踊에 몸바쳐온 「忍苦의 敍勳」

고고한 鶴처럼, 그리고 사뿐사뿐 화사하게 나래를 펄럭이는 한마리 나비처럼, 平生을 춤과 더불어 살아온 女人이 마침내 忍苦의 敍勳을 받았다. 入門 42년만에 東洋제일의 위치로까지 군림하게된 무용가 金白峰씨(54·慶熙大교수)가 지난13일 藝術院회원이 된것이다. 같은 藝術길을 가면서도 舞踊이기에 받았던 한국적인 설움은 그동안 매우 컸던게 사실이었다. 따라서 金씨의 이번 藝術院가입은 무용인으로선 겨우 세번째로, 그것도 女流무용가로서는 맨처음이라는 점에서 한국무용계의 慶事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日本공연을 준비중인 무용수들의 지도에 金씨는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카메라를 의식한 여성의 본능인가. 金씨는 어느사이 평상복차림으로 갈아입고 마주 앉았다. 이마에는 계속 구슬같은 땀방울이 송이송이 맺혔다.

◇建國이후 무용가로서는 세번째, 여성무용인으로선 최초의 예술원회원이 된 金白峰씨.

13세때 入門해 名聲 떨치고

—이른 아침인데 이렇게… 우선 예술원회원이 되신걸 축하드립니다. 차제에 소감이 어떤것인지 들려 줬으면 합니다만—.

■소외당한 무용界

■金씨=솔직이 지금 제 심정은 담담한 뿐입니다. 물론 처음 그 소식에 접했을땐 감개가 무량하더군요. 또 부족한 사람을 뽑아준 당국에 감사하는 마음도 컸구요.

—무슨 뜻인가요. 처음엔 기뻤던것이 지금은 다르다는 얘긴지….

■金씨=『아니 그건 아닙니다. 기뻤고 영광스럽긴 마찬가집니다. 다만 순간의 벅찬 감개가 시간이 흐르면서 냉정한 이성으로 귀인했다고나 할까요. 바꿔말하면 이런것입니다.』

잠시 그녀는 말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흰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화장기가 전혀 없는 얼굴, 차라리 그런 그녀의 수수한 얼굴이 정답다.

올해 쉰 다섯이라지만, 아직은 그렇게 나이를 읽기엔 빠르다. 젊고, 피부에 나이 답지않은 탄력이 엿보인다.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무용계가 당해온 소외감은 컸읍니다. 시쳇말로 괄시를 받았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린이들은 이해가 잘 안갈지 모릅니다. 여기 예를 들어 지적하죠.

그 가장 원초적인것이 대학에서의 무용학과입니다. 독같이 출발을 하고, 또 다같이 힘든 길의 예술인데도 고작 체육대속의 한 분자로 연명하는 존재밖엔 못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 무용이 처해온 위치였구요.』

그래서 응어진 恨이었을까. 따사롭던 그녀의 얼굴이 순간 짙은 먹구름으로 얼룩졌다. 그리고는 곧 진 自嘆調의 독백이 입가에 흘렀다.

『우리들 자신에게도 책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이는 가령 오페라의 경우, 국립극장안이 꽉 차는데 반해 무용만은 외국의 것이 아니면 그렇지 못한 현실이 결국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겠느냐는 푸념인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무용가가 체육교사자격을 가지고서야 학생들을 가르칠수 있는 현행교육제도를 바탕으로 해서는 더이상의 기대는 파욕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화제를 돌려볼까요. 춤은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또 시작을 하셨는지. 듣기로는 아주 어려서부터라고들 하는데….

■어려서의 꿈이뤄

■金씨=『정확히 관심을가지기 시작한것은 고향인 평양에서의 교회 주일학교 시절인 7세때였죠. 그리고 지금은 공산주의자가 된 崔承喜를 따라 東京 그의 무용연구소에 입문한것이 13세 때였구요.』

독실한 기독교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 벌써 어떤 기백에 차 있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될테야. 저 불쌍한 어머니를 좀 봐. 매일 부엌에서 밥이나 짓고 빨래나 하고…』

1940년 5월의 어느날이었다. 그녀는 진남포의 한 극장에 앉아 무대위에서 벌어지는 무용에 온 정신을 쏟았다.

무대위에선 崔承喜의 무용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를 그녀는 행여나 놓칠세라 일거수 일거동에 흥분과 감탄을 갖고 지켜봤다. 물론 藝道의 깊이가 이해될리 없었으나 그렇다고 이를 단순한 화려함만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다. 이때 이미 자신의 마음속엔 장래 崔와 같은 대무용가가 될것을 굳게 굳힌 때문이었다.

體育敎師 자격주는 현행敎育제도 못마땅

공연이 끝난뒤 崔를 무대뒤에서 면회하는데 성공한 그녀는 그로부터 東京에 있는 자신의 연구소에 와도 좋다는 언질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싹트기 시작한 東京유학에의 꿈은 마침내 부모들을 설득, 장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당부는 단호한 것이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東京선생님이 바로 너의 부모가 되는것이다. 어떤 고생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서 성공한 모습으로 아비앞에 나타난다면 모르되, 중도에 단념하거나 좌절한다면 대문안에 들어설수 없을것이다.

이번엔 집안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인척들의 완강한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완고한 그들은 하나같이 炳三(아버지)이가 딸자식을 「춤장이」로 팔아먹었다고 비난을 퍼부어댔다.

그후 그녀의 부친이 어떻게 친척들을 무마했는지는 알길이없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그녀가 東京으로 떠나는날 플랫폼까지 나와서 전송해준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의 몇몇 급우들뿐이었던 사실에서 그의 설득은 실패로 보는것이 당연했다.

모두의 울음속에 기차가 서서히 움직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고함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충신아(金씨의 아명), 일을 찾아서 해라!』

關釜연락선 선상에서 깜박이는 부산항구의 불빛을 바라 볼때도, 세토나이까이(瀨戶內海)의 맑은 물결이 아침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것을 선창너머로 구경할때도, 이 아버지의 절규는 메아리처럼 그녀의 고막을 울렸다.

아뭏든 이렇게해서 내딛기 시작한 무용에의 大長征이었던 것이다.

■藝名 「白鳥」 바꾸고

—藝名은 언제 어떻게해서 얻은 것인지….

■金씨=『東京 유학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남편이된 安濟承씨(慶熙大무용교수)와 그의 형인 安漠씨(당시 崔承喜의 남편)가 처음으로 「白鳥」라는 藝名을 지어주었지요. 그러다가 해방후 白鳥가 다시 「白峰」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때의 「白」은 白頭山의 머릿자고 「峰」은 모란봉에서 모란을 뗀 마지막 字였죠. 하여간 지금의 白峰은 그렇게 해서 붙여진 藝名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처음 藝名을 얻었을 당시 이미 그녀는 무용가로서 명성을 얻기시작했다. 1943년에는 무용연구소의 실기교사겸 단원으로 滿洲와 中國등지에 순회공연에 나서기도 했다. 청혼이 들어온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중매를 선 사람은 崔承喜의 남편인 安漠씨였고, 상대는 그와 함께 자신의 藝名을 지어준 동생 安濟承씨(59)였다. 그도 平壤이 고향으로 金씨가 처음 일본에 갔을때 日本大예술과 1년생이었다.

『돌이켜보면 시아주버니(安漠)의 중매는 崔承喜를 정점으로해서 혈연관계로 무용의 핵을 이뤄보자는 심산에서 나온것 같아요. 사실 혼인얘기가 있기전의 그이(安濟承씨)는 이성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오빠나 삼촌같은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결국 어찌어찌해서 혼사가 이뤄졌어요.』

그때가 1943년 12월18일 하오3시. 형님의 세비로를 빌어입은 신랑과 선생님의 드레스를 빌어입은 18세의 신부는 南山 朝鮮神宮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 겨울답잖게 폭우가 쏟아지는날 하객은 단5명뿐이었다. 예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는 그러나 신방도 꾸미지 못한채 헤어져야 했다. 安씨에게 징집영장이 나와 그날 입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록 신랑과는 생이별을 했을 망정 선생님(崔承喜)이 이젠 형님이 된것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이후 師弟간이면서 친척인 두 사람이 이끄는 무용단은 동남아공연을 마치고, 滿洲공연을 하고 있던중 해방을 맞았다. 평양으로 돌아오자 崔承喜는 곧 자신의 무용소를 차렸다. 그리고 부소장겸 상임 안무사로 金씨를 앉혔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金씨는 崔承喜의 무용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

『어느날 연구생들의 춤모습을 보고 어떤 불안감같은것을 느꼈어요. 멋도, 흥도없는 그저 움직이는 기계에 지나지않는다는 느낌이었지요. 그때 연구·조사를 한결과 우리의춤사위가 과거 어쩔수없이 억제되고 압축됐던 「興」의 장소대신 「韻」의 향상을 꾀했음을 발견했죠. 또 무게와 끈기와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韻」의 근원으로, 그리고 다소곳하게 안에서 불타는 다듬어진 「細技」로 나타남을 알았던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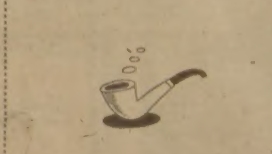
이같은 발견은 崔承喜의 무용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온 그녀에게는 충격적이었다.

더욱 기본동작의 개변은 불가피한것이라 판단한 그녀는 崔와의 의논없이 독단으로 동작을 바꾸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런 개혁은 물론 崔承喜에게 반역행위라는 곡해를 샀고, 마침내 둘사이는 틈이 벌어지고 말았다. 師弟간이 이제 적수로 돌변한데다 崔는 다시 사상의 변화까지 왔다. 좌익에 빠진것이다.

6·25발발직전 金씨는 남편(당시 무대감독)과 더불어 소련방문 예술단을 이끌고 레닌그라드에서 공연중이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金씨는 서둘러 평양으로 되돌아왔고 그 길로 南下의 대열에 끼었다. 예술과 사상에서 모두 적수가 된 崔承喜가 평양에 있는 한 그곳에 더 머물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古宮에서의 金白峰씨. 東洋제일로 꼽히는 그녀의 춤은 鶴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함께 지니고 있다.



봉산탈춤 8科場 담은 舞譜 6년걸려 펴내

—언제가 鳳山탈춤舞譜를 발간하신 일이 있지요…?

■77년부터 舞譜 만들어

■金씨=『77년이던가요. 그보다 6년전 쯤이었읍니다. 그때부터 舞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무용이란 원래 傳授가 원칙이긴 하지만 傳授과정에서 原形을 잃어버릴 염려가 크고, 그래서 傳授와 기록이 공존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무용교육과 탈춤의 원형보존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녀의 이 舞譜에는 봉산탈춤8科場의 기본동작 60가지, 四上佐舞 첫목 뭇동(群舞) 미얄할미등의 춤이 수록돼 있다.

『그 책 하나를 펴내는데 자그마치 6년이 걸렸읍니다. 그것도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앓아있는 신세가 되지않았더라면 더 걸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무대와 무용연습실에서 항상 뛰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발이 묶이게되자 자연 책상앞으로 다가갈수있는 기회가 생기더군요.』

72년 그녀는 뜻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었다. 다리 골절에 발의 뼈가 갈라졌고, 늑골이부러졌다. 또 목과 가슴사이의 연골도 금이 갔고 왼손도 부채를 자을수 없을정도로 굳었다.

무용가로서는 치명적인 부상이었다. 이 부상을 그녀는 끈질긴 투병으로 이겨냈다. 굳은 손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뜨개질을 했다. 또 꺾어지지 않는 발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쉬지않고 마사지를 했다. 그 결과 그녀의 몸은 무용가로서의 옛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푸대접받는 「한국무용」 앞으로 풀어야할 宿題

—외길 42년을 걸어오면서 가장 흐뭇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과연 어떤때였다고 기억 되시는지…

■金씨=『두가지 모두 너무도 많아 일일이 열거할수는 없읍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내가 외눈팔지않고 한길만을 갈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언제나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되는것이죠.

거기 반해 앞에서 지적했듯, 무용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 상황에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원흉이 되곤해요. 그것은 곧 우리 무용계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아뭏든 미술이나 음악이 정식과목인데 반해 전공과목으로 정립되지않고있다는데서 문제는 큽니다.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술은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특히 당국이 과거 소홀하게 여겼던 무용의 경우 두말할나위 없는 인체예술인고로 어려서부터 체질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것이죠. 어떤 의미에선 그같은 과거의 통념을 부분적이나마 깬 것이 이번 저의 예술원회원 추천이 아니었나도 생각해봅니다.』

또 金씨는 『전공과목으로서의 무용을 인정하고, 따라서 무용교사자격증을 문교부가 발부해 주는 일, 그리고 무용계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있는 충분한 무용기금조성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무용인구의 저변화대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75년 창작무용발표회를 갖기전 단원들과 함께 리허설을 갖고 있는 金白峰씨 (앞쪽 앉은 사람).

—연구생들을 거느리고 하는 트레이닝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큰 행사라도 있는 건가요?

■9月末께 日공연

■金씨=『오는 9월말께 지금 연습중인 6명의 무용단원들이 일본 東京에서 공연을 갖게되어 있읍니다. 장소는 국립극장인데 타국의 예술인들이 그 무대에 서는것은 저희들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본엔 아직 打樂分野에선 여자들이 없읍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초대됐는가 봅니다만, 아뭏든 그곳에서 한국장구춤, 한국의 리듬을 그들에게 선보일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유형과 다른점이 이번 공연의 특색이랄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겁니다. 과거에는 농악에서 「선장구」 장단을 오로지 타악의 반주로 구성 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농악장단(打法)뿐 아니라 북놀음을 아예 몸에 매고 북을 치는, 소위 몽놀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있는 것이 그겁니다. 퍽 웅장하고 흥을 돋구는게 후자의 특색이기도 하지요.』

金씨는 일행에 앞서 夫君과 함께 8월말 먼저 도일할 예정인데, 그것은 공연에 사전 한·일양국의 상호전통예술과 이의 전수관계를 비교 연구키 위한 행사라고했다.

〈卓成万기자〉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한국은 세계주니어육상에서 종합우승, 주최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主催國의 面貌과시

국제 J陸上대회 金 9개로 綜合우승

스포츠 하이라이트

金메달9개, 銀19개, 銅12개로 국제주니어오픈육상경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한국은 주최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은 당초 3위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이를 완전히 뒤엎고 1위를 한것은 육상의 불모지 한국의 입장으로선 대단한 수확이었다.

지난15일 개막된 이 대회에서 한국은 첫날 남자높이뛰기에서 金鍾鎬이 7m63으로 1위를 차지한것을 비롯, 金永來가 남자투해머에서 58m90, 또 남자4백m 계주에서 41초41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여 기염을 토했다.

대회2일째 한국은 예상되지 못했던 여자멀리뛰기에서 李順天(釜山體高)이 6m01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했고, 남자1백10m 허들에 출전한 宋蓮植(성균관대)이 13초89로 역시 한국신기록을 세워 1위를 마크했고, 남자투원반, 여자투포환, 남자세단뛰기, 남자8백m에서 각각 우승, 금메달 6개를 추가했다.

당초 금메달 15개를 차지할것으로 예상됐던 美國은 7개로 2위에 머물렀고 3위는 金4개의 自由中國이 차지했다.

12개국 1백93명의 선수들이 참가, 남자17개종목, 여자13개종목에서 기량을 겨룬 이 대회에서한국은 트랙에서 부진했으나 필드와 투척에서 크게 활약, 주최국의 체면을 세웠다.

육상에 약한 한국은 비록 주니어수준의 대회이긴 하나 세계대회를 처음 열었다는데도 큰 뜻이 있고, 특히 케냐의 우수한 중거리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어 세계육상과 자리를 같이 한수 있었다는것도 큰 성과라고 말할수 있겠다.

특히 여자멀리뛰기의 한국신, 남자 1백10m허들에서 1·2위및 4위가 모두 한국신을 기록하는등 풍성한 기록은 한국육상의 앞날을 밝게 기약해주는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더우기 중·장거리에서 일류의 실력을 과시해준 케냐선수들의 경기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杉〉

구독신청 ☎533-2361

시카고서 大人氣
보는 보람과 現地事情

神秘의 漢方鍼術
在美同胞 침술사 宋寬伯씨에 들어

9년전 漢方醫術 하나를 밑천으로 渡美, 적잖은 재산을 모은 한 재미동포가 고국의 침술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서울에 왔다. 미국 시카고市에서 三力漢方院을 열고 있는 宋寬伯씨(45). 슈퍼마킷을 비롯, 몇개의 부동산도 함께 갖고 있는 그는 「여건이 허락돼 이민을 오는 침술인이 시카고로 올 경우 터전을 닦는데 최대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8월 초순, 宋씨는 두번째 모국방문길에 올랐다. 실로 5년만에 다시 찾은 서울이었다.

트랩을 내린 그의 마음은 그러나 가볍지만은 않았다. 「계획대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문이 宋씨의 뇌리를 간단 없이 스치고 지난 것이다.

「될수만 있다면 많은 수의 침술인을 초청하고 싶은데…」

여장을 푼 그는 즉시 이 문제를 들고 동분서주하기 시작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침술인의 미국이민을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다.

하지만 보내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생각은 간절해도 제정한 법적인 절차와 이민수속과정등이 그렇게 손쉬운 성질의것이 아니었다.

「현실적인 여건에서 매우 힘들다는걸 알았읍니다. 그렇다고 포기할수는 더욱 없는 노릇입니다. 어쨌든 꼭 이루어야 할 일인줄 압니다. 본인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크게 유익한 일이니까요.」 힘을 다 감당한듯 宋씨는 맥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宋寬伯씨

9년전 鍼 한대 들고 渡美
슈퍼마킷運營등 기반닦아

9년전인 지난72년 가을,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이민길에 올랐었다. 가진것이라곤 현지정착에 앞선 최소의 경비와 선대(3代째)로부터 물려받은 「五行鍼」의 한방 의술이 전부였다.

다른 이민가족들이 겪는 초창기의 고초를 그도 어김없이 겪어야만 했다. 특히 언어소통의 부자유스러움은 생소하기만한 동양침술의 현지토착에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비록 언어는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어도 그의 침술이 갖는 효험은 어쩔수가 없었다. 「코리아에서 온 닥터宋 넘버 원」!

소문은 곧 소문을 낳았다. 이때까지 현대의술만이 의술의 전부인것으로 알아왔던 미국인들의 눈에는 이 사실이 꿈처럼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러면서도 최신시설을 갖춘 큰 병원에서 못고친 고질병 환자들이 침 몇대에 치유되는것을 본 뒤에는 절로 감탄사를 연발하곤 하는 것이었다.

宋씨를 찾는 환자의 대부분은 큰 병원에서 불치의 병으로 낙인찍힌 사람이거나 건강회복을 단념하고 비탄에 빠진 사람들이었다.

예컨대 시카고 살머메인 거리에 사는 보나·백워터부인은 3년간 허리가 펴지지않아 네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완치는 커녕 불치의 환자라는 이유로 남편까지 다른 여자를 찾아가 버렸다.

이 일로 항상 비관속에 살던 그녀가 어느날 宋씨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치료 첫날 3년이나 펴지못한 허리가 펴진 놀라운 이적(?)이 발생하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다. 그 1개월후 보나 부인은 완전 쾌유되는 벅찬 체험을 얻었다. 그후 그녀는 재혼을 했다. 그리고 「침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통하다」고 선전을 하고 다닌다는것이다.

지내트·조바노비크여인은 30년간 원인모를 두통으로 고생을 했다. 병원치료를 오랫동안 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폐인처럼 지내어 몸무게만 자그마치 2백80파운드나 됐다. 이 무렵 그녀는 宋씨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리하여 치료시작 20여일만에 완쾌돼 나갔다.

이처럼 숱한 미국인 불치병환자들이 宋씨로부터 침술치료를 받아 완치됐지만, 그중엔 宋씨 자신이 잊지못하는 극적인 경우도 없지않다.

시카고심퍼니 오키스트러에서 지난20년간 비올리스트로 활약해온 필립·칼프만옹(75)이 그 좋은 예였다.

오른쪽 어깨와 왼쪽 손가락에 심한 통증을 느낀 그는 여기 저기 병원문을 노크했다.

지역내에선 가장 권위가 있다는 노드웨스턴 대학병원을 비롯, 신경통의 전문의라면 모조리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치료가 불가능한 고질신경통이라면서 최후수단으로 수술을 받도록 권고했다. 그렇지 않으면 연주를 중단할 도리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의사들의 말대로 수술을 할 경우 통증은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연주생활을 다시 할수 있는지는 확답할수 없다고 했다.

극도의 실의에 빠진 필립씨에게 평소 그를 잘 아는 한국인 한사람이 宋씨를 소개해 주었다.

반신반의로 宋씨의 침술을 받은 그는 2주간의 치료끝에 완전 치유가 돼 하마터면 놓을뻔한 비올라를 다시 손에 잡을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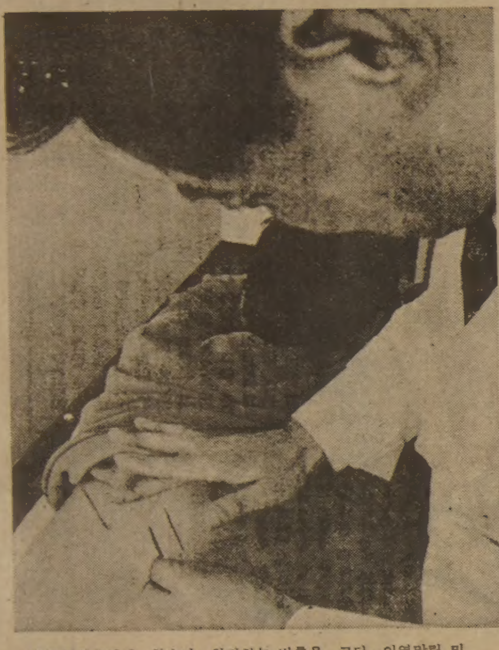
치료가 끝난뒤 필립씨는 「연주는 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는데, 어깨와 손가락의 통증으로 연주를 중단해야 했을때는 몇번이나 죽음을 생각하기도 했다」면서 宋씨에게 고마와했다.

그외에도 오른편 어깨를 다친 나머지 움직이지 못해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고, 병신이 되는줄 알았던 켄자스주 헤이스빌에 사는 캐리·쿠밍스씨의 완전치유등 宋씨가 현지에서 행한 침술 공헌도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다.

결국 이같은 인기에 힘입은 그가 재산을 늘린다는것은 쉬운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 수십만달러 상당의 슈퍼마킷을 비롯 적지않은 재력을 쌓은것으로 전해진다.

不治선고받은 고질병자 治癒시키며 名聲
환자폭주로 苦心…국내침술인 誘致계획도


◇동양의술에서 침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이역만리 미국사회에서조차 침술은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宋씨에 따르면 시카고에는 현재 한국인 침술사 10여명이 살고 있다고한다. 그밖에 중국인이 50여명, 일본인 10여명 정도가 각기 생업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받는 수가(酬價)는 대체로 엇비슷하다.

최저 30달러에서 많으면 1백달러 정도가 1회분으로치면 된다. 비교적 환자가 많기로 이름난 宋씨의 경우 줄잡아 최저 20~30명의 환자가 밀리는데 많으면 50명선을 훨씬 넘기도한다.

그러나 宋씨에게도 애로가 없는것은 아니다.

침술이 완전히 의학분야로서 공인을 받고있는 뉴욕주나 네브래스카주, 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있는 캘리포니아주등과는 달리 시카고의 경우 아직 정식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

물론 법적뒷받침이 안되어 있으므로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 바로 이 문제가 宋씨등이 앞으로 주(州)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인것이다.

「저희들의 간절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조만간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10명내외의 한국인 침술인을 그 몇배로 배증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국위선양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24일 宋씨는 약 한달간의 모국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申慶万기자>

韓國의 恋人들
成俔의 密会礼讃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청상과부 宰相의 딸은 중을 불러들여 희롱을 즐기고
여종을 매수、그녀 房으로 숨어든 好色漢 이장군은…

지난 주에 소개한 <모래알의 열병>은 당시 조선왕조사회의 윤리와 사회제도에 순응한, 안씨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예찬한 것인데 이번에 소개하는 남녀의 밀회는 당시 감상의 윤리를 절대시한 도덕관념으로는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불장난인데도 성현은 이 역시 인간의 애정본능을 공개적으로 예찬하고 있다.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成宗 1457~1494)은 보기 드문 명군(名君)이다. 조선 초기의 문물(文物)을 정비하고, 문화를 개화시켰으며, 법령을 개정하였는가 하면 국방도 튼튼히 하였다. 세종 못지않게 교육과 문화진흥에 진력한 성종은 그 자신이 경사백가(經史百家)에 박통하고 성리학(性理學)에 정통했으며 사예(射藝)와 서화에도 능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오점이 있으니 여성을 법적으로 격하시킨 사실이다. 그 자신이 호색하여 많은 후궁과 자식을 두었으면서도 즉위초에 개가(改嫁)를 금지시키고 서자의 벼슬길을 막는등 악법(惡法)을 만들었다. 성현은 이러한 성종밑에서 지평(持平)을 거쳐 성균직강(成均直講)·부제학·대사간·대사헌을 지냈으며 경상도 관찰사·예조판서등을 역임했다. 글씨에 뛰어나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문장이 절륜했던 성현은 성종의 여권억압에 노골적으로 반발하여 <모래알의 열병>주인공들을 소개하고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그의 문집 「용재총화」에 수록하였다.

젊고 헌칠하며 풍채가 옥(玉)과 같은 이장군이 있었다. 어느날 말을 타고 지나가다 스물 두 셋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가 예쁜 여종과 함께 장님에게 점을 치는 광경을 목격한다. 장군이 윙크를 하자 그녀 역시 시선을 보냈다. 장군이 졸병을 시켜 그녀의 집을 알아보니 사제동(沙堤洞) 높은곳에 있는 큰 집이었다. 이튿날 장군이 사제동을 찾아가 서성거렸다. 그녀를 만날까 싶어서였다. 마침 그동네에 사는 활공장이를 만났다. 장군이 활공장이에게 높은곳의 큰 집 주인을 물으니 「재상의 딸인데 요즈음 과부가 되었읍니다」한다. 며칠후 계집아이가 와서 불을 얻어갔는데 활공장이가 장군더러 「지금 왔던 그 소녀가 과부집 여종입니다」고 일러준다.

장군이 그녀를 사모하는 정에 짓눌려 활공장이에게 도움을 청한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여 잊을 수 없으니, 만약 당신이 성사만 시켜준다면 사생(死生)을 당신에게 맡기겠소.」

그러자 활공장이가 그 소녀를 불러 장군의 뜻을 전하면서 돈과 옷감을 주었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장군이 소녀에게 「네가 내 청을 들어주면 후하게 사례할뿐만 아니라 너의 살림을 맡아주겠다」하고는 이어 「얼마전에 네 주인을 길에서 본뒤 마음이 뒤숭숭하여 입맛을 잃었다」하였다.

「그것은 아주 쉬운걸요.」

「어떻게 하느냐?」

「내일 저녁 우리집 문밖으로 오시면 제가 나와 기다리지요.」

이튿날 약속대로 찾아갔더니 소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제 방으로 안내한다. 「서두르지 말고 참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하더니 밖에서 문을 잠근다. 장군은 그 소녀에게 속지 않나 싶어서 겁이 덜컥 났다. 그러나 참고 조금 있으려니까 안에서 왁자지껄하는 것이 주인 여자가 측간에 가는 모양이었다. 이때 소녀가 잽싸게 장군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참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장군은 캄캄한 방구석에 조그리고 앉아 있었다. 잠시후 등불이 비치고 다시 왁자지껄하더니 여자가 들어온다. 여종이 물러가자 여자가 적삼을 벗고 얼굴을 씻은 주인 화장한다. 바라보던 장군은 여자의 아름다움에 취한데다가 나를 맞으려나보다싶어 기대에 부풀었으나 화장을 마친 뒤 동(銅)화로에 불을 지펴 고기를 굽더니 은주전자에 술을 따르는게 아닌가.

장군은 「참고 기다리란」던 소녀의 말을 되새기며 참았다. 잠시 후 창문에 모래를 끼얹는 소리가 나며 그 여자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거대한 사나이를 맞아들인다. 사내는 들어서자마자 여자를 끌어안고 희롱한다. 질탕하게 희롱하던 두 사람은 곧 나란히 앉아서 술을 마신다. 숨을 죽이고 앉아 있던 장군은 그 다음 장면에 깜짝 놀랐다. 사내가 모자를 벗으니 민머리가 아닌가. 울화가 치민 장군은 진노끝을 한 움큼 거머쥐고 중이 여자와 자리에 누울찰나 덮쳐 꽁꽁 묶었다. 그리고 또 기둥에 묶은 뒤 주먹으로 내갈겼다. 장군은 그 여자를 끌어 당겨 환락의 늪을 거닌 뒤 중을 향하여, 「군중(軍中)의 새 사람 만난 예(禮)를 행하려 하는데 네가 장만하겠느냐」 호령했다. 중이 「명령대로 거행하겠읍니다」하더니 두 사람의 신접살림 가구를 장만해왔다.

그 뒤로 이장군은 과부집에 자주 왕래하고, 과부 역시 장군을 사랑하여 여러 해가 지나도 변함없었다.

재상의 딸인 과부는 남자를 희롱하려 거리를 배회한다. 짐짓 점을 친다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표시다. 영웅호색이라는 말이 있듯, 이장군 역시 호색한지라 사내를 찾아 나선 여자를 보자 눈짓을 하고 여자가 답례를 했으니 결심을 굳힐수 밖에. 더우기 그 여자는 중과 밀회하는 터였는데 지혜로운 여종과 연출을 잘하여 새남자 영입에 성공한다.

조선왕조시대에는 여자의 외출을 지극히 제한하고 외출을 음행(淫行)이라고 규탄했는데 이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어쨌든 과부와 중의 밀회, 여종의 조력으로 그를 몰아내고 건장한 사내를 맞아 정열을 불사르는 과정이 우리나라 최고의 음녀(淫女)라 불리는 어우동의 그것과 흡사한데 이러한 밀회는 조선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단이었다.

그러나 성현은 이러한 밀회를 소상히 스케치함으로써 여성의 보호자로서 자처하고 있다. 탈선과 방종의 옹호가 곧 여성옹호는 아니지만 그는 여성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던짐과 동시에 자유연애의 옹호자임을 자부하고 있다. 요즈음의 시각으로서야 한창 유행하는 비윤리적인 소설의 한 장면으로만 여겨지지 뭐가 이단이고, 혁명적이냐 싶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흔치않은 반윤리(反倫理)의 밀회였었다.

얘기의 샘

友情의 말

병상(病床)에서 임종(臨終)을 기다리고 있는 마르코·폴로에게 그의 친구가 「자네가 동양(東洋)에 대해 쓴 글에는 믿기지 않는 것이 많은데, 거짓말을 남겨둔채로 저승에 간다면 죄가 될 거니, 참회(懺悔)하게나」라고 권했다. 마르코·폴로 왈 「무슨 소리야! 내가 거기서 본것의 절반도 쓰지 못했어」

敵意있는 讚辭

샹트·부브가 무턱대고 자기를 칭찬하는 비평을 써 주었을때 발자크는 처음엔 몹시 흐뭇해 하였다. 그러나 그 샹트·부브의 찬사속에 은근한 적의(敵意)가 숨어 있는 사실을 알고 발자크왈 「흥, 샹트·부브놈, 어디 두고보자. 언젠가 내 펜으로 네 놈을 두들겨줄테다」

M과 W

「어머! 얘,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가슴팍에 그거…」 함께 샤워를 하기위해 알몸이 된 세실에게 기숙사 같은 방의 친구 매기가 물었다.

「응? 이거…」 세실은 흰살에 분명히 빨갛게 새겨진 M마크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내 약혼자 도널드가 이 거리에 와있어. 그는 축구선수거

새 예루살렘
신앙특별집회

강 사 : 안 이 숙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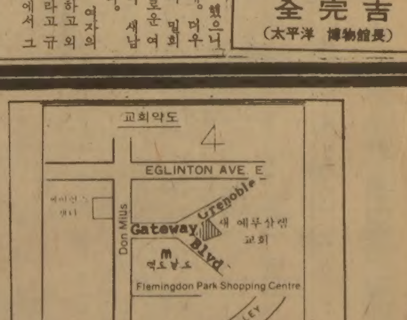
「죽으면 죽으리라」및
「죽으면 살리라」의 저자

일 시 : 9월10일(목)오후7시30분
11일(금) 〃 〃
12일(토) 〃 〃
13일(일)오후2시

※청소년을 위한 영어설교
12일(토) 오후1시

장 소: 새 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 DON MILLS

담임목회자 김 승 환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내려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 있는 푸레밍돈·파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Korean New Jerusalem Pentecostal Church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㊳

金洪信 作
崔然石 畫

여름의 용모가 무너지는 걸 나는 깨닫고 있었다. 다혜를 훔칠 기회를 나는 또한번 잃어버렸다.

아니, 어쩌면 다혜의 완강한 의사가 우리들의 연결고리를 끊어 버리는 결과까지 몰고 가게 될지도 모른다. 몇번 전화를 걸었지만 다혜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래요. 금방 괜찮아지니까 걱정 마요. 아침에 외가집에 간다고 나갔으니까 며칠 있으면 올 거예요.』

다혜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나를 달래 주었다.

『글쎄요, 별 거 아닌데 토라져서…』

『그런 거예요. 좋아할 땐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싫어봐요, 왜 싸우고 토라지고 그래요.』

지난줄거리

다혜와 설악산에 가서 그녀를 훔칠 궁리를 하고 있던 총찬이에게 느닷없이 절교선언이 떨어진다. 다혜는 어떻게 알았는지 미나와의 이상스런 문제를 눈치채고 있었다. 총찬은 그때의 입맞춤 사건을 논리적으로 설명할수 없었다. 설악산에 가서 여름방학을 즐겁게 보내려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총찬은 여름의 용모가 부서진 자리에서 멍청하게 다혜의 뒷모습만 쳐다 보았다.

서글서글한 다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나는 자신감 같은 걸 얻었다.

그러나 다혜 어머니의 싸운다는 표현은 어떻든 싫었다. 나는 여자하고 싸운다는 생각을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 싸움이란 마음속으로라도 상대가 될 거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낱말이기 때문이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서 나는 설악산행 차표 두장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해 보았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혜를 외가집까지 찾아가 끌고 올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표 두장과 여관비를 손해볼 수도 없었다.

미나를 생각해 보았다.

내 가슴이 용납하지 않았다. 미나를 생각한다는 건 그녀를 농락하겠다는 결심밖에 안되었다.

다혜 어머니가 일러 준대로 시외전화를 걸었다. 다혜가 전화를 받고는 시큰둥하게 말했다.

『왜 걸었어?』

『변명이라도 할 여유를 달라고.』

『듣고싶지 않아.』

『어디서 어떻게 해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는 알고 그만 만나든 때려 치우든 해야거 아냐?』

『무릎맞춤 하고 싶거든 미나란 애한테 가봐.』

『미나? 미나가 그러든?』

『왜 놀라실까?』

『미나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래?』

『당사자가 모르면 누가 알아. 전화비 많이 나오니까 그만 끊어.』

『다혜, 왜 이래? 내말 들어보지도 않고 이럴거야.』

『빤한거 아냐. 나는 아무 죄도 없다, 미나가 그런 거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런거잖아.』

『그런거야. 내 얘길 듣고나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혜만은 보통 계집애들처럼 그러지 않길 바란다. 내 얘기 알겠어?』

『알고싶지 않아. 이젠 끝난 거야. 전화 끊겠어. 이런것 다시는 하지마.』

다혜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잠깐!』

나는 급한대로 전화 끊는 것을 막고 잠시 정리해 보았다.

『앞 뒤 얘길 다 들으면 후회하게 돼. 그러니 내 얘길 끝까지 듣고….』

『후회하지 않겠어.』

매몰찬 한마디였다.

『다혜, 너 정말…』

『분명히 얘기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찬이 하고싶은대로 해봐. 날 겁주려고 하지마. 나한텐 안통해.』

『정말 너 이렇게 나올 거야!』

나는 전화통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여자라고 깔보고 이러지마.』

『널 후회하게 만들 거다.』

『좋도록 해봐.』

다혜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화가 삭지 않은 채 전화기 옆에 벌렁 누웠다. 은주 누나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좋은 때다. 나도 사랑 싸움이나 했으면 좋겠다.』

『누나, 남 약올라 미치겠는데 웃기만 할 거야?』

『너답지 않게 사랑 싸움 하니까 그렇지. 여잘 하나 휘어잡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그래. 여자란 그저 우지끈 뚝딱 꺾어놓고 보는 거야.』

『누나도 그렇게 된 거 아냐?』

『나도 그랬다, 며.』

『이젠 다 글렀어. 그게 아예 전화도 안받으니….』

『넌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나부다. 우리집에 있는 것부터 싫어할 정도라면 말이다. 너, 혹시 미나란 애하고 무슨일 있었던 거 아냐?』

다혜를 훔칠기회를 또 잃었다, 전화도 안받았다

'너 미나하고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냐' '참 누나까지 이럴거야'

『차암, 누나까지 이럴 거야?』

『사내 녀석을 어떻게 믿어.』

『안믿어두, 할 수 없지. 바람난 수캐라도 할 수 없고.』

『그나 저나 내일 떠날 준비나 해둬라. 표를 썩힐 순 없잖아. 너희들 말처럼 현지조달을 하든지 차관을 얻든지 해얄 거 아냐. 그렇게 맘 상해 하지말고 훌쩍 갔다 와.』

『차라리 그럴까봐.』

은주 누나는 밤 늦도록 밑반찬이며 조미료 따위를 챙겨 주었다. 나는 간단히 배낭을 챙겨놓고 마음맞을만한 녀석들을 주욱 연락해 보았다. 한 녀석도 집에 붙어 있는 녀석이 없었다. 모두 바닷가나 산으로 도망간 뒤였다.

『빌어먹을 놈들. 한놈도 없어.』

내가 투덜거리자 누나는 혀를 찼다.

『불황불황 하지만 놀러가는 데만은 불황이 없는 거란다. 여름에 바캉스 안갔다오면 조상모독죄에라도 걸리는 줄 아는 거란다. 너두 마찬가지지만 말이다. 다혜한테 미쳐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떠나도록 그러고 있었잖아. 혼자 갔다와.』

『누가 아니래. 약올라 죽겠잖아.』

머리속에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명식(明植)이었다. 한번도 내게 반말을 해보지 않는 우리 과의 장학생이었다.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침울한 성격이었다. 명식이와는 꽤 친하게 지냈지만 어울려 다니지는 않았다. 명식이 쪽에서 피하는 눈치가 역력했기 때문이었다.

『누나, 갈 애가 하나 있는데 누나가 뒷돈 좀 두둑하게 줄수 있어?』

『누구하고 가는지 말해봐.』

『명식이라고 있잖아. 우리 모였을 때 노래 젤 잘 부르던 녀석 말야.』

『다리…소아마비 앓았다는 애?』

『그 녀석은 어디 안갔을 거야.』

『공부만 해대는 녀석이니까.』

『네가 어떻게 걔 생각을 다했니. 걔하고 간다면 내가 뒷돈 아니라 장빗이라도 얻어줄께.』

나는 명식이가 내 뜻에 응해줄지 그게 걱정이었다. 일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여행이나 답사길에 따라나선 적이 없었다. 가정형편도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자격지심 때문에 늘 빠지곤 했었다.

명식이는 가정교사를 할 수 없게 된 뒤부터 더 형편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유 있는 과 친구 집에서 친구 동생을 공부 뒷바라지를 하며 겨우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건강한 사내라면 일자리가 나서겠지만 명식이는 그런 자리가 나서도 갈 수 없었다.

『아예 짐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까?』

누나가 명식이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꺼냈다.

『과외했다고 소문나면 어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니? 동생 친구 그냥 와있는 게 뭐가 나빠. 그러다 심심하거나 쉴 때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아무 조건없이 받으면 되잖아. 그냥 말야.』

『정말야?』

『내가 언제 거짓말 하든?』

『누나? 정말 고마워.』

은주 누나와 나는 죽이 맞는 편이었지만 이번 결정만큼, 신나게 맞는 일은 없었다.

『나 총찬이요.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이형, 나하고 같이 있읍시다. 우티 누나집 말요. 아무 부담없이 와서 공부나 합시다. 우리 누나가 먼저 제안한 거고… 우리 누나 지난번에 왔을때 봤지요.』

나는 앞 뒤 사정을 죄 얘기하고 우리집에 같이 있자고 했다.

『나야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누님께도 미안하고 총찬씨 한테도 그렇고….』

선뜻 응답을 할 수 없는 명식이의 마음씨를 나는 알 것 같았다. 누나와 나는 번갈아가며 전화를 바꿨다. 명식이는 그러겠다고 했다.

『한가지 더 부탁합시다. 내일 아침 차로 설악산엘 가려고 하는데 이형이 동행 좀 합시다. 빈몸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준비는 다 됐으니까. 다른 뜻은 없고 한집에 살 사람끼리니까 배 맞추자는 거요. 마침 다혜하고 가려고 표도 두장 준비했었는데 그만 실연도 당하고 해서… 이형이 위로도 좀 해주쇼.』

『나랑 가면 불편한텐데 괜찮습니까?』

『그런 생각말고 갑시다. 편하자고 떠나는 게 아니고 같이 고생하러 가자는 거니까요.』

『그래도….』

『실연 당한 사람 위로해주지 않을 거요?』

명식이는 한참만에 같이 출발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새벽에 짐 싸가지고 일루 오쇼. 여기서 아침 먹고 같이 떠납시다.』

우리는 통하는데가 있을것 같았다. 명식이가 한집에 살게 되면 내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네 옆방 한칸 내줄테니까 걱정 마.』

누나는 내 옆방을 가리켰다.

『신세 갚는 날까지만 살아있어.』

『알았다.』

명식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편했지만 다혜와의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은 마음이 찝찝했다. 영 잠들지 않았다.

미나가 다혜를 찾아가 무슨 얘기를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다.

그렇다고 미나를 불러내서 따질수는 없었다. 자존심을 팽개치고 내게 고백한 그 용기를 나는 보호해 줄 필요가 있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게도 그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 포함된것이기 때문이었다.

미나는 다혜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한번씩 서로 구해준 인연과 뜨겁고 진 입맞춤, 고백과 또 뜨거운 입맞춤 따위를 서슴없이 얘기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혜에게 물러나 줄 것을 간청했겠지.

다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다혜는 만만찮은 여자였다. 뭐라고 대답했을지 알 수가 없었다.

헤어지겠다고 약속하고서 저렇게 강경해진 걸까? 아니면 헤어질 수 없다고 버티고선 약이 올라 저러는걸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다혜는 내가 도장 꽉 찍은 여자예요. 내가 한번 도장을 찍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지하고 맙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치우고 싶은대로 해치울 겁니다. 난 결코 시시하게 살다 신문에 부고 따위나 내고 죽진 않을 겁니다.

신문마다 며칠씩 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쓰게 할 참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도착한 명식이와 나는 힘들여 마련한 관광버스표와 숙박예약권을 놓고 나온 것을 알았다.

『니기미….』

나는 명식이를 내려놓고 다시 택시에 탔다.

『짐을 싣고 무조건 버텨. 출발해 버리면 뒤차로 쫙 갈테니까 걱정 말고 우겨다짐으로 타라구. 이십분이면 돼. 십오분 후면 출발한다고 발광할테니까 오분동안만 버텨.』

내가 택시에 올라타며 소리 질렀다.

『까짓거, 해볼께.』

명식이는 소리쳤다.

택시는 무섭게 달렸다. 기사는 내 실수를 속력으로 감싸고 있었다. 나는 택시비를 두곱쯤 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다.

누나는 멍청한 나를 눈 흘기며 쳐다 보았다.

『다혜, 그 기집애땜에 정신 깨져서 그런 거야 머.』

『누군 사랑 안해본 줄 아니?』

『알았어. 잘께.』

택시는 오던 길로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나는 시계를 보고 지금쯤 명식이가 악을 쓰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

택시가 세종문화회관 옆으로 꺾어 돌았다. 시계를 보니 오분이 넘은 시간이었다.

『저 사람, 친구 아닙니까?』

기사가 손가락으로 여행사 버스 앞쪽을 가리켰다. 명식이가 맞았다. 명식이는 배낭을 멘 채 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내가 뛰어가자 명식이는 씨익 웃었다. 여행사 사람들과 운전기사들이 죽 둘러서서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

『성공시켰지?』

명식이가 바지를 털고 일어나며 한 말이었다.

『세상에, 저런 친구 첨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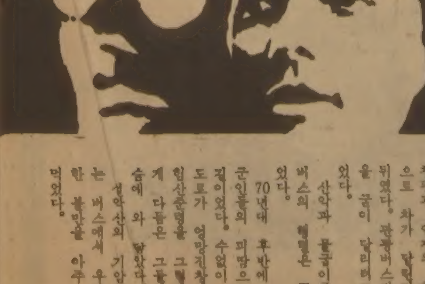
여행사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땜에 출발도 못했잖소. 저 친구는 막무가내로 버스 앞에 누워버리고… 내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 살다보니 별꼴 다 본다니까.』

상황을 자세히 들을 필요도 없었다. 차가 시간이 되어 출발하려고 하자 명식이가 무조건 버스 앞에 누워 버렸고 말리는 사람들이 지쳐서 구경하고 있던 참이었다. 출발시간전에라도 손님이 다 차면 당겨서 출발할 수 있는 일인데 명식이는 한사코 버스 앞에 누워서 버티더란 거였다.

“나도 사내다, 한번 약속한것은 지키는 놈이다”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무슨 수를 쓰든 차지하고 말거야'


고포특별우대…언제든지 20%할인…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 오 선물센터
TIE CITY Square One 275-2187 Hwy 10 Burnhamthorpe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Yonge Bloor St.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Bay Yonge King St.

나는 표를 내밀고 몇번이고 미안하단 말을 했다. 여행사 직원들과 운전기사들도 따라서 웃고 말았다.

『적당히 해두고 보내지 그랬어. 우린 고속버스 타고 가도 되는거니까.』

내가 녀석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슬쩍 이렇게 말을 걸었다.

『나도 사내다. 한번 약속한 건 지키는 놈이다. 너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내릴란다.』

명식이는 정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다.

『아냐, 해본 소리야. 기분 좋아서 한 말이라구.』

『그럼 그렇지.』

우리가 자리잡자 마자 관광버스는 출발했다. 명식이는 제2호차의 명물이 되어 있어서 쳐다보는 사람이 많았다. 운전기사도 명식이와 같은 독종은 25년 기사생활 동안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놈의 차 어째서 냉방이 안되는 거요?』

명식이가 서울을 벗어나자 안내원에게 물었다.

『미안해요. 고장이 났어요.』

『하필 왜 오늘사 고장이 나는 거요?』

『모르겠어요.』

『모르다니 말이나 돼요? 자동차 여덟대가 몽땅 고장나는 무슨 이유라도 있읍니까?』

명식이는 차표 위에 써있는 냉방버스 운행이란 글자를 가리키며 따져 물었다. 안내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내가 못가게 한 건 미안한 일이고 이놈의 차가 사기 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 아차장이 따져야겠다.』

명식이는 내가 미안해서 말리고 나서자 이렇게 옹골차게 말했다.

『사실 온고장난 게 아니라 냉방장치를 회사에서 못쓰게 합니다.』

운전기사는 냉방장치 가동으로 생기는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어째서 고장났다고 합니까?』

『그 점이 말하기 거북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찜통차를 타고 가는 손님들 생각은 않고 저희들 돈 벌 궁리만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행 갔다 와서 분명히 고발하겠읍니다. 아까 제가 차 못떠나게 한건 하곤 별개의 것입니다. 아깐 정말 미안했읍니다.』

『그거야 손님 맘대로 하세요.』

기사의 대답이었다. 여름철의 관광버스라는 게 거의 모두 그 지경이란 걸 승객들은 알고 있으면서 이름에 또 탈 수밖에 없는 것은 목적지까지 편히 하게 태워다 준다는 것밖에 없다. 수요가 넘치면 공급자들은 언제나 행패가 심한 것이 우리나라의 도덕인지도 모른다.

찜통차.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관광버스는 낡고 칠이 벗겨지고 더러웠다. 냄새가 나고 불편한 것이야 늘상·겪는 일이지만 사고예방도 마찬가지로 허술한 거란 생각을 하면 온몸이 근질거릴 일이었다.

우리의 기분을 좀 가라앉힌 것은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는 게 아니라 청평과 인제와 한계령을 잇는 산악으로 차가 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였다. 관광버스가 아니고선 그런 길을 굳이 달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었다.

산악과 물굽이를 도는 아슬아슬한 버스의 행렬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7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산악길은 군인들의 피땀으로 얼룩져 만들어진 길이었다. 수없이 돈을 투자한 고속도로가 엉망진창인 것에 비하면 그 험산준령을 그렇게 정교하고 깨끗하게 다듬은 그들의 노고가 새삼 가슴에 와 닿았다.

설악산의 기암절벽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버스에서 우리는 관광회사에 대한 불만을 아주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공무원高位職 대폭縮小

大局大課制 지향、交流확대

次官補 7~8、1級 13개職 줄여

書記官이상 2백32개職을 감축

정부組織정비 10월까지 完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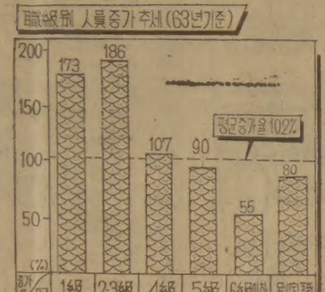
정부는 25일 不要不急한 高位職을축소, 조정하고 大局大課制를 지향하며 공무원人力의 少數精銳化를 실천하는것을 주내용으로하는 「정부組織整備기본방향과 정비指針」을확정, 各部處에 시달했다. 각부처는 이에따라 오는9월중에 자체整備案을마련, 총무처에 제출할예정이며 총무처는이를토대로 오는10월말까지 정부의 조직정비작업을 완료할방침이다.

★관련기사2면

총무처는 指針시달과함께 정비작업이 완료될때까지 4級(서기관) 이상 上位職에 대한 昇進人事를 留保토록조치했다.

下部조직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를 목표로하고 있는 이번정부 조직개편으로 차관보 7~8개職, 1級13개職을포함, 課長級이상 최소한 2백32개職이 축소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次官補는 현재의定員 20명중 40%에 가까운 7~8명이 줄어들고 1급은25%가 축소되며 4급이상 전체적으로는 15%線이 축소된다.



金容烋총무처장관은 이날 『새시대에 맞는 간소하고깨끗한 정부를 이룩하고 봉사행정과 책임행정체제를 구축、80년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키위해 정부조직정비작업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축소、조정되는職位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문제에 대해 『現員이 개편후의定員에 일치될때까지 超過定員을 인정、이들 직업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신분에 일체 변동이 없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定員보다 초과한 공무원들은 연구조사업무를 담당시키거나 교육훈련기관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파견 또는 部處간의 인사교류를 통해 계속 활용할것인만큼 직업공무원은 조금도 동요치말고 업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달된 정부조직정비의 기본지침은 ▲類似重複기능의 統·廢合으로 기구를축소하며 ▲일선 행정기관의 강화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人力의 전문화와 適正配分을 통해 適材適所에補職하고 ▲행정권한을 下部에 대폭 위임한다는것 등이다.

정비지침은 1개部에 최고 4명까지 두고 있는 次官補(모두 20명)를 각부처별로 2명이내로 축소하고 大局大課制를 구현키위해 ▲10개局이상의部處·廳은9局이하로 축소하고 ▲9~6개局을 두고 있는 경우는 1개局이상을 축소하며 ▲5개局이하는 정비해局·課장의 기능을 選別的으로 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기구안에 7백33개에 이르는 課에 대해서는 기능이 지나치게 細分된 경우와 課의 정원이 適正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大課로 기능과 人力을 조정토록했다.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은局課로 통합하거나 개편하고 ▲전문성과 독자성을지닌 담당관은 존속시키며 ▲室·局의副室長이나 부국장기능을 수행하는 담당관은폐지키로했다.

담당업무에 비해 職級이과도하게높은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직급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副기관장은 없애며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中間감독기관(例·地方廳)이나 불필요한 보조기관은지방자치단체등에 흡수 통합하거나 廣域체제로 개편키로했다.

또 이같은 정비지침은 서울특별시나 直轄市·道등 지방자치단체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적용, 내무·문교등 주무장관이 개편방안을 만들어 조치토록 했다.

"공무원 제2肅正없다"

金총무처 명예退職制 오해없도록

◇金총무처장관

金容烋총무처장관은 25일 정부기구 縮少改編과 관련、『제2의 공무원肅正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날 정부의下部기구 축소방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名譽退職제도의 활성화방침을 마치 공무원의 世代교체를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추측이나 해석은 誤解』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번의 문교、노동、문공부의 高位職공무원인사가 마치 高齡者를 퇴직시키는등 세대교체를 단행한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別定職이나 희망자를 퇴직시킨것』이라고 말하고 『오히려 50~60대의 전문지식을가진 인사를 채용한 인사였다』고 설명했다.

法官 2백4명 異動

대법원은 25일 사법연수원 수료생및 법무관제대자 52명과 변호사1명의 신규임관을 포함, 모두 2백4명의 법관에 대한 승진 및 전보등 정기인사를 오는9월1일字로 단행했다.

지난4월 법관재임명후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인사에서 金文鎬、李元培 서울민사지법부장과 崔勳鎬 부산지법부장등 3명이 고법부장으로 승진되었으며 고법판사 10명이 지법부장으로、지법판사 13명이 고법판사로、모두 26명이 승진되었다.

또 고법부장판사 1명、지법부장판사18명、고법판사 2명、지법판사 1백4명등 모두 1백25명이 전보되었다.

이밖에 서울형사지법 李輔獻변호사가 재임관되어 광주고법판사로 보직되었으며 특히 2심법원을 강화한다는 대법원방침에 따라 서울、大邱、光州등 3개고법에 각각 1개재판부씩이 증설됐다.

日公明黨委長 내한

다케이리·요시가쓰(竹入義勝)위원장등 日本公明黨소속 衆·參議員일행 5명은 25일 하오 국회로 丁來赫의장을 예방, 최근의 韓日관계와 양국의원교류방안 등을 협의했다.

公明黨의원단을 이끌고 한국을 처음 방문하기위해 이날 낮12시20분 JAL便으로 도착한 다께이리위원장은 이날하오 丁의장방문에 이어 韓日의원연맹 회장인 李載灐 民正黨대표위원을 방문했다.

日、60億弗차관 早期처리 難色

日外務省 高位관리

韓日頂上회담 年内개최도

【東京24日=宋孝彬특파원】 일본외무성고위당국자는 24일 하오 한일정상회담은 연내에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일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지 못하는 이유로서 한국측이 5년동안에 걸쳐 60억달러의공공차관을 요청한데 대한 조속한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외상회담에서 소노다외상이 60억달러에이르는 공공차관의 요청에대해 성실성의있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외상회담이끝난 4일만에 조속한 처리가어렵다고 우성의한 발언을함으로써 9월10일 열릴예정이던 한일정기각료회담의 개최문제도 파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한 한국측이 요청한 60억달러의공공차관은 그액수가 너무많을뿐만아니라 공공차관의 투자대상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검토해야하며 한국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하므로 많은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NHK방송은 한일정상회담이 연내에 실현되지못하면 한일관계는 다시 미묘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장성수뇌도 이날 『6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차관요청은 액수가 너무 많으며 실무급에서 사업별로 검토, 결정되지않으면공여할수없기 때문에 9월10일 서울에서열리는 각료회의에서 對韓經協문제를 결정지을수 없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각료회의를 열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각료회의 개최자체를 부정했다.

美·日議員등5명 全대통령이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美下院의 빈·다이말리의원(民主黨·外務委 아시아·태평양 小委소속)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盧信永외무장관과 리처드·워커 駐韓美대사가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일본衆議院의 다케시다·노보루(竹下登)의원등 4명을 접견했다.

이자리에는 韓日의원연맹의 金潤煥간사장(民正黨)과 마에다(前田利一)駐韓日本대사가 배석했다.

"土星의 衛星 하이피리온은 거칠게생긴 地球모습 닮아"

보이저2號 소리障壁돌파

【패사디나25日美=聯】보이저2호가 24일밤보내온 토성의 위성하이피리온의 사진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이위성이 [illegible]게 생겼다고 묘사했다.

한과학자는 이위성이「거칠게생긴 지구모습」이라고생각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또 사진을 분석한결과 토성의복잡한 고리부분에 형성된 틈을만든 원인으로 생각되어왔던 숨겨진 위성의 존재는 발견하지못했다고 말했다.

우주본부의 한대변인은 보이저2호가 보내온 2개의틈에관한 사진을 분석했으나숨겨진위성을 찾아내는데는 실패했다고 말하고 이같은사실은 현재의 과학이론을 제트리는것이며 따라서 과학자들은 토성환의 틈에대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패사디나(美캘리포니아州)25日AP·聯=聯】 미국의 우주탐색선 보이저2호는 黃金빛의 세계 土星과의 랑데부를 앞둔 24일밤 土星의「소리장벽」을 돌파했으며 土星에서 3번째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 하이퍼리온의 신비를벗기기 시작했다.

지난4년간 20억㎞의 우주여행끝에 26일낮1시24분(한국시간) 土星과 가장 가까운 지점인 10만1천㎞거리에 접근, 역사적향해부를 할 보이저2호는 土星의 磁場및 명렬한 태양풍으로 혼합되어있는「소리장벽」을 돌파한후 선체에 장치된 카메라와 10개의 탐색기구를 동원, 土星을 싸고 도는 구름층의 새로운 신비를 벗기고 있다고 보이저탐색선의 임무를 지휘하고있는 패사디나의 제트추진연구소가 밝혔다.

벗겨지는 神秘 보이저 2號가 찍은 土星모습

◇美토성탐색선 보이저 2號가 송신한 土星모습을 찍은 필름들을 종합해 완성한 토성의사진。 왼쪽에 토성의 위성중 3개가 보인다。 그리고 토성의 南半球에는 테티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있다。 【패사디나25日AP電送=聯合】

鳳凰大旗 고교야구 오늘決勝

慶北高-善隣商 하오6시 夜間경기로

3·4位戰은 3시부터

제11회 鳳凰大旗의 주인공가리는 善隣商高와 慶北高의 결승대결이 비로 하루순연, 26일 하오6시 나이터(야간경기)로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야구의 야간경기는 금년 처음이다. 新失鳳凰大旗를 건 天安北一高와 釜山商高의 3·4위결정전은 결승전에 앞서 하오3시부터 진행된다.

社會漫評

오늘「土星」을…

地平線

아득한 옛날부터 전설의 대륙으로 전해오는 아틀란티스대륙을 실제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이레 서쪽해안에서 프랑스의 여류조각가인 니콜·뷰이송여사등 7명의 아마추어 다이버들이 현장을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틀란티스는 아틀라스의 섬이란 뜻이다. 헤라클레스의 기둥(지브롤터海峽의 양쪽큰바위) 밖에 있는 大海(大西洋)의 큰섬을 말한것이다. 아틀란티스 얘기는 플라톤 책에도 나온다. ―「아틀란티스는 1만년전에 있었던 地上樂園이었다. 아름다운 초목이 우거지고 금은보석이 풍부한데다 인구도많아 왕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아테네를 제외한 지중해연안을 모두 정복했는데 아테네 마저 멸망시키려다가 도리어 패배했다. 나중에 심술 곤경하지않자 대지진이 일어나 하룻밤 사이에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다」고.

▼대학교수、건축가、카메라맨들까지 낀 아마추어 다이버들은 이번에 기원전 1천년경에 건축된한 포세이돈 神殿을 발견했으며 신전기둥에서 아틀란티스의 기원등을 새긴 브리 문자까지 보았다는것인데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가 아닐수 없다.

▼뷰이송여사는 높이15m의 기둥4개와 장미빛 원형지붕으로된 이신전이 14m의 해저에 잠자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데 뷰이송여사가 발견했다는 아틀란티스 대륙의 위치는 지금까지의 학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大西洋의 아조레스 열도가 아틀란티스대륙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틀란티스가 있었다면 에게해의 시라섬이란 학설이 현대에와선 유력했다. 크레타섬의 북쪽에 있는 시라섬은 美·希합동조사결과 기원전 1천5백년께 있었던 미노아 文明의 遺跡地로 이미 발굴된바 있다.

▼3만명의 주민이 火山폭발로 매몰된 미노아 문명은 플라톤이 말하는 잃어버린 大陸―아틀란티스 大陸이 아닌가 생각하는 고고학자들이 많다. 뷰이송여사가 보았다는 아틀란티스대륙은 에이레서쪽이다. 기원전 6천5백년께 지진으로 아틀란티스대륙이 2천5백개의 섬으로 산산조각이 났으므로 스코틀랜드와 에이레연안의 작은 섬들이 아틀란티스의 일부라고 뷰이송여사는 설명하고 있는것이다.

▼알쏭달쏭한 얘기지만 몇인가 해저에 가라앉아있는것만은 확실한것같고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1만년이 지난 지금까지 화제에 오르고 있으니 그뒷소식이 궁금할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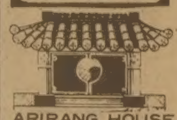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414
은 : 온스당 US.8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아는 것이 힘"
소매상경영학 강좌안내
RSI RETAIL SERVICES INSTITUTE

〈캐나다 로스만·팔말 주식회사〉는 고도의 경쟁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매상을 위한 무료 경영학강좌를 마련했읍니다.

동사의 소매상경영연구소(Retail Service Institute)가 주관하는 이 강좌는 캐나다의 현존하는 소매상들을 위한 이익 개선책과 경영의 능률화를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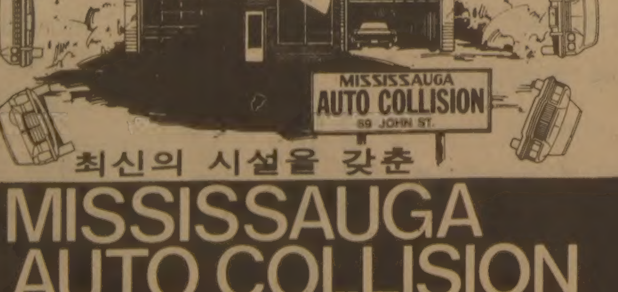
이 강좌는 소매상 경영학 전문코스로서 각종 세미나와 같이 일주일 한번씩 5주~6주간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7백여명 소매상 경영주들이 거쳐간 이 강좌는 오는 9월초부터 새로 시작될 예정이며, 10명 정도의 조그만 경영학교실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선착순이며 $25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종강후 되돌려드립니다.

이 강좌에서 쓰이는 모든 교재와 자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인 통역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한국인들만을 위한 강좌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아프간、3國會談개최 提議

危機해소위해 파키스탄·이란과

◇이디오피아 떠나는 가다피 무아마드·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左)와 하일레·마리안 이디오피아 대통령이 24일 가다피의 아디스아바바 공항출국에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있다。【로마24日AP聯=聯合】

유엔仲裁에 적극同意

카불放送 蘇副外相방문 때맞춰 發表

【이슬라마바드24日UPI·聯】 카르말 대통령의 親蘇아프가니스탄정권은 24일 소련군의 침공으로 야기된 아프간위기해소를 위해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의적극적인중재 역할행사에 처음으로 동의하는한편 아프간·파키스탄·이란등3국회담의즉각개최를제의함으로써 종전의아프간·파키스탄·이란간의개별협상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청취된 관영 카불방송은 이날 소련부외상 니콜라이·피류빈의 이슬라마바드 도착에 때맞추어 아프간내각의 승인을받은 평화안을발표, 아프간정부는 파키스탄과 이란이 함께 참석하는 3국회담에 참석할 용의가 있으며 이회담에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이나 유엔대표가 참석하는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프간은지금까지 아프간·파키스탄, 아프간·이란간의 직접개별협상을 고집해온 반면 파키스탄과 이란은 3개국 모두가 유엔의 주관하에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파키스탄과 이란이 지금까지 對아프간 회담거부이유로 내세워온 『카르말 정권과의 직접대화』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파키스탄과 이란은 카르말정권과 직접대화를 갖는것이 카르말정권을 사실상 승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해서 반대하고있다。

아프간정부는 이 평화안에서 또 3國會談의 전제조건으로 美國·蘇聯 기타국가들이 아프간국내문제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적절한 보장』을 요구하고있다。

F15、이스라엘에

레이건의 供給再開 지시따라

【뉴잉턴(美뉴햄프셔州)24日AP=聯】 레이건 대통령의 對이스라엘전투기공급 재개 지시에따라 25일 1차로 美製F15전투기 3대가 美기지를 출발、이스라엘로 간다고 美공군이 24일 밝혔다。

공군대변인 마이클갤리거소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전화회견을통해 그와같이 밝히고 이전투기들이 세인트루이스 소재 맥도널·더글러스 항공기제작회사에서 이곳피즈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모든成人에 軍事훈련

리비아 對美전쟁가능성 對備명분

【솔즈버리24日AP=聯】 모든 리비아 成人들은 미국과의전쟁가능성에 대비하여 군사훈련을 받고있다고 아메르·부사리 짐바브웨주재 리비아 공보원장이 24일 밝혔다。

부사리원장은 이날 반관영 지나통신과의 회견에서 리비아의 모든 성인들은 최근의 美·리비아간 공중충돌로 인한 미국과의 전쟁가능성에 대비、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며 전국민은 패배하지않고 최후의 1인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레이건행정부의 對리비아 『침략행위』를 규탄할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우리들을 피뢰로 전락시켜 그들의 이념을 수입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19일 제6함대소속 F14전투기 2대가 리비아 전투기 2대를 격추시켰으며 이 공중전에서 미국전투기는 한대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空中戰때 擊墜주장 美機殘骸 곧TV에

【런던24日聯=聯合】 리비아는 지난19일 지중해상공에서 격추시킨 美F14전투기 1대의 잔해를 TV방영키로 했다고 리비아의 관영 자나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자나통신은 이날 美전투기의 잔해가 이미 TV방영됐다는 앞서의 보도를 수정, 전투기잔해가 리비아의 미스라타항으로 운반됐으며 곧TV에 선보이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最新무기 販賣 계기로 사우디、美基地化 가능

【워싱턴25日UPI=聯】 미국의 對사우디최신무기판매로 사우디는 美신속배치군(RDF)의 긴급발진기지化할수 있을것이라고 미행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24일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않은 이관리는 사우디의 군사장비가 모두 美製武器로 충당되고있으며 부품공급및 장비유지도 미국의 군사및 민간기술자들에 의존하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우디가 미국에 주문한 최신정찰기및 62대의F15이글전투기등은 RDF가 有事時 蘇聯의 공격에대처, 페르시아灣지역의 油田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장비수요를 충족시킬것이며 美製무기는 域內의 공동방위력을 크게증강시킬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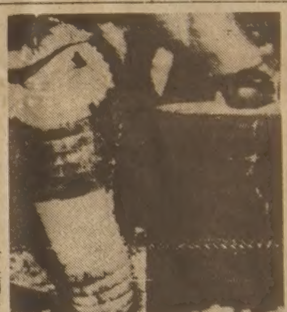
警報機판매 承認에 陣痛예상

레이건、85億弗규모 議會통보

【워싱턴24日AP=聯】 레이건 대통령은 24일 5대의 공군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포함한 총85억달러규모에 달하는 美행정부의 對사우디아라비아군사판매계획을 의회에 정식통보했다。

레이건행정부는 이미 수개월전부터 단일국가에대한 美군사판매로서는 최대규모인 對사우디군사판매계획을 의회에 통보하려했으나 AWACS의 對사우디제공에 대한 이스라엘및 많은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그간 이를 계속미뤄왔는데 이날마침내 의회에 정식통보함으로써 레이건 대통령취임이후 최초의 주요외교정책승인에 관한 對의회투쟁인 이른바 『AWACS전쟁』을 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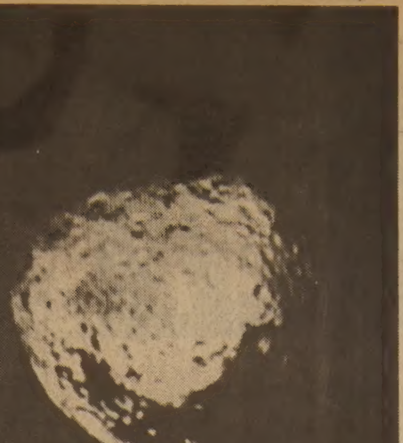
상원외교위에 제출된 국방성서한은 미국의 대사우디군사판매가 석유요충인 페르시아灣을 소련및 리비아등 적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수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말했다。



◇寶石지키는 코브라 최근 英國런던에서 개최된 스리랑카 보석전시장에서 시가 1천2백만달러상당의 3백93캐럿짜리 靑사파이어를 코브라뱀이 지키고있다。【런던24日UPI聯=聯合】

보이저2號 오늘 土星과 랑데부

「소리의障壁」통과후 2시간18분간 精密탐사



◇보이저2號가 찍은 土星의 衛星 미국의 土星탐색선 보이저 2호가 지난22일 土星에서 1백10만㎞ 거리에서 찍어보낸 土星위성 이아페투스의 모습。土星에서 가장먼 위치의 이위성은 직경1천4백40㎞로 뚜렷한 明暗을 보여주고있는데 어두운 부분은 얼음을 덮고있는 검은물질로 보인다。【로스앤젤레스24日UPI聯=聯合】

보이저2호가 캐낼 우주의 신비는 무엇일까。돈과 사랑과 전쟁등 인간잡사와 거리가먼 그야말로 신비하고도신나는 일、인간은 그의임무에 큰 기대를 건다。보이저2호는 26일 하오1시24분(한국시간) 태양계의 6번째혹성 토성에 10만1천㎞로 최근접、탐사를 벌인다。보이저2호는 이미 지난24일밤 토성의 「소리의 장벽」을 통과했다。

20억㎞ 홀로날아

「소리의 장벽」은 磁場및 맹렬한 태양풍으로혼합된 토성의 첫째관문이다。보이저2호는 지난4년간 20억㎞의망망한 우주공간을 홀로날면서 이때를 기다렸다。

「航海者」란 뜻을가진 보이저호는 쌍둥이다。우주여행 출발순서를 따지자면 2호(77년8월20일발사)가 앞서지만 도중1호(77년9월5일발사)에 앞지름을당해 동생으로 전락했다。

보이저1호는 작년11월 토성에 최근접、마치 레코드판과같은 土星環(고리)을 생생한 사진으로 잡아보내 인간을 매료시켰다。형보이저1호의 활약은 모두가 새로운 발견이었다。똑같은 장치에 똑같은 임무를 띤 2호에게는 형만큼 「화려한 일」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한층 수수께끼가 많아진 토성 고리의 과학적 규명을 중심으로、1호가 해내지 못했던 탐사를 계속해야하는 임무는 지극히 중요하다。

특히 보이저2호의 가장큰 사명은 토성고리의 통과다。고리의 아슬아슬한 가장자리 부분까지 접근、레코드판을 관통하듯 위에서 아래로 뚫고지나가는것이다。그짧은시간에 해야할일들이상당히 많다。

가장큰使命은 土星環관통

偏光計이용、2회걸쳐 環구성物質 규명
探査뒤엔 人間메시지싣고 끝없는 航進

빛의 量도 측정

우선 偏光計에의한 2시간18분동안에걸친 고리의 정밀탐사다。이때 편광계는 토성의 고리저편의 전갈座 델타星을 향하게 된다。보이저2호가 고리위에서 아래로관통비행함에따라、델타星으로부터 오는빛은 고리를 구성하는 물질에 차단되어 명멸하게되고 그성질(位相)이 변하게된다。

편광계는 빛의 位相변화를 조사하는 장치。빛의 양도측정할수있다。때문에 측정데이타를 분석하면 레코드판같은 고리 홈의 숫자와 그폭、홈과홈사이의 폭、고리의밀도등이 어느정도인가 알수가있는것이다。이것은 1호가 해내지못한 일이다。

편광계에의한 두번째 탐사는 최근접 9시간후에 다시 행해진다。이때는 王子座베타星을 대상으로 한다。토성고리는 소립자로부터 직경수십m의 얼음이나 암석으로형성돼 있는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하나하나를 포착하는일은 불가능하지만 전체적분포도를 작성할수는 있을것이다。

이밖에도 1호보다 더욱선명한 토성사진을 보내는일이 중요한 임무다。2호는 1호보다 2만3천㎞ 가까이 근접 비행하게된다。이때의 사진을 근거로 1호가 발견한 「고리B」의 스포크狀(우산살모양) 그림자의 정체를 조사한다。이그림자는 고리평면에 떠오른 미소물질이 靜電작용에 의해 집중해있는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2호는 고리평면을 옆으로부터 사진을찍어 구름같은것이 떠있는가를 확인한다。

이어 역시 1호가 발견한 「고리F」의 혹과 꽈배기모양의 원인을 해명하게된다。

새衛星 寫眞관심

토성위성 17개에대한 관측도 빼놓을수 없는일이다。중점은 「엔셀라두스」「테치스」「히페리온」「이어페터스」「휘이버」등 5개 위성의 사진촬영이다。이중 휘이버는 1호가 보지못한 초대면 위성이다。또 80년에 처음발견한후아직 ∧1980S26∨이란 번호밖에 붙여있지않은 새위성 7개의 사진도 보내게된다。

보이저 2호의 토성접근은 2일간。이동안에 신비의 토성탐사드라머를 끝내고 2호는 天王星을 향해 또다시 먼여행을 떠난다。

작년 토성탐사의 주임무를 끝낸 보이저1호는 9년뒤인 1990년 태양계를 벗어나 우주의 어둠속으로 사라진다。보이저1호가 갖는 사명은 이제 없다。

그러나 2호는 다르다。형보다 더많은 일을 해야한다。

보이저 2호는 토성을 벗어날때 그인력으로 가속도를얻어 더욱 빨라진다。태양계를 계속 항진、5년뒤인 86년1월엔 天王星、8년뒤인 89년8월엔 태양계의 마지막 두번째 혹성 海王星을 「접근방문」하게된다。

보이저 2호의 운명도 마찬가지。1990년께 태양계를 벗어나 또다른 우주로 사라진다。

보이저계획을 주관하는 美항공우주국(NASA)은 보이저쌍둥이에 기묘한 선비를 해놨다。태양계 3번째혹성인 지구와 지구위의 인간잡사를 설명할수있는 모험과 메시지를 담은 레코드판을 적재한것이다。

남녀의 키스소리、베토벤의 「운명」교향곡、루이·암스트롱의 트럼페트연주는 인간이 어떤 감정을 가진동물이며 어떤 일상문화를 가졌는가를 대변하게된다。『아이앰 프레지던트…』라는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육성도 담겨있다。

이것들은 혹시나 태양계를 벗어난 보이저 쌍둥이가 외계의 또다른 생물문화권에 접촉할 경우 보이저의 주인의 나라를 알리고 설명키 위해 고안됐다。보이저가 꾸며내는 우주이야기는 꿈만같지만 재미가 있다。

빛電送 86分걸려

토성은 허리에 아름다운띠를 가지고있어 인간에게는 「환상의 별」로 통해왔다。영어이름으로는 농경의 신을 의미하는 「새턴」이다。공전주기 29.46년、자전주기는 10시간39분26초、궤도반경은 14억2천7백만㎞로 부피는 지구의 7백60배、지구까지의 빛과 전파속도는 1시간26분걸리는 거리이다。

태양계에서 보이저의 자체추진력은 없다。그럼에도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것은 무중력상태의 반동작용에 의한것이다。보이저는 지구궤도를 벗어날때까지는 로키트분사력에 의해 비행했다。무중력상태에서 한번 튕겨지면 영원히 아무런 저항없이 날아가는 이치를 따라 보이저는 비행한다。

토성탐사가 우주과학에서 큰비중을 갖는것은 우주기원에대한 실마리를 잡을수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우주기원의 가장유력한 학설은 星雲說이다。별들은 우주의 먼지와 가스가 뭉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토성은 질량이 매우가벼운 원소로 구성된 혹성이고 밀도는 물보다도 가벼운 0.74여서 지구의 어떠한 물질도 표면에 서지못하고 가라앉을 정도다。

26일 보이저2호에의한 신비의 우주드라머는 또한번 지구의 인간들을 매료시킬것이다。

지구는 태양계의 한점、태양계는 수억개의 은하계중의 미세한 한점、은하계는 또한 무한한 우주의 한점에 불과하지만。【李鍾九기자】

美蘇우주탐사선日誌

▲64·11·28=美무인화성탐색선 마리너4號발사。
▲65·7·15=마리너4號 화성상공 8천9백㎞ 근접촬영。
▲66·2·27=蘇비너스2號 금성 2만4천㎞ 근접통과。
▲67·10·18=蘇비너스4號 금성軟着 성공。
▲67·10·19=美마리너5號 금성 3천9백㎞ 상공통과。
▲69·5·16=蘇비너스5號 금성낮부분面에 軟着。
▲70·3·7=닉슨美대통령 모든 惑星에 美무인우주선을 보내겠다는 「장엄한 우주계획」발표。
▲70·12·18=蘇비너스7號 금성표면에 연착。금성온도와 기압등 과학자료 지구에 전송。금성의 기압이 지구의 90배에 달하고 온도가 섭씨 495도임이 판명。
▲72·3·3=美무인목성탐색선 파이어니어10號발사。파이어니어10號는 태양계밖까지 운항예정。인류모습과 우주선의 내력을 설명한 메시지도 함께 발사됨。
▲75·8·22=美화성탐사선 바이킹1號발사。
▲75·10·22=蘇비너스9號 금성에 연착한후 금성표면사진 최초로 지구로 電送。금성은 바위투성이임이 판명됨。산소가 희박해 생명체 생존가능성 없는걸로 결론。
▲76·7·20=美바이킹1號 화성크리세분지에 연착성공후 화성탐색작업개시。화성표면사진 지구에 전송해옴。바이킹1號 탐색결과 화성에 질소·아르곤 존재확인。화성의 생물체 존재가능성 뒷받침。화성토양채취 성공。
▲76·9·4=바이킹2號 화성 유토피아평원에 안착후 탐색활동 개시。
▲79·9·2=美파이어니어11號 발사 6년반만에 제5토성環통과。토성環이 6개임이 새로 발견됨。
▲80·11·13=美보이저1號 3년2개월항해끝에 토성 12만㎞ 근접촬영 성공。
▲81·8·26=보이저2號 토성10만㎞까지 접근예정。

海外토픽

필름없는 카메라
★日소니社、革新的개발

일본의 전자메이커인 소니회사는 電磁氣시스팀을이용、재래식필름이 필요없게된 혁신적인 비디오·스틸·카메라를 개발、24일 이를 공개했다。

모리따·아끼오(盛田昭夫) 소니社 회장은 마비카라는 이름의 이 카메라가 보통카메라와 같은 크기로서 감광필름위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영상을 새기는 종래의 방법대신 電磁氣디스크 기억장치로 영상을 기록하며 카메라뒷부분에 필름대신 삽입하는 소형의 디스크는 50장의 컬러사진을 TV화면에 재생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모리따회장은 또 촬영이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촬영한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떼낼수 있으며 이미 찍은 사진들을 지운후 재사용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찍은사진들은 TV모니터로 비쳐볼수가 있고 비디오사진인쇄기를 사용、인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니社는 이 혁신적인 카메라가 앞으로 18개월내지 24개월후에 본격적인 시판에들어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東京=聯】

微粒子구름떼 發見
★美、地球서5萬光年거리

은하수 외곽에서 별들의 生成원천으로 믿어지는 다수의 微粒子구름떼가 발견됐다고 美국립과학재단이 24일 발표했다。

뉴욕州 트로이의 렌셀레어종합기술연구소에 재직하는 천체물리학자 마크·L·커트너박사와 캐드린·미드연구원등 2명의 과학자는 애리조나州의 키트피크에 있는 국립전파천체관측소에서 직경10·9m의 전파망원경을 이용하여 천체를 관측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국립과학재단에 보고했다。

이들은 지구로부터 3∼5만光年(1光年은 빛이 1년간 나아가는 거리로서 5조9천억마일) 거리에 있는 은하계 외곽부분에서 다량의 구름떼가 3만光年거리에 걸쳐 뻗쳐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과학자들은 새로 발견한 구름떼를 수소및 2酸化탄소와 같은 微粒子로 구성됐다는 이유로 微粒子구름떼로 命名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 微粒子구름떼가 대부분의 별들이 生成되는 원천으로 믿고 있다。【워싱턴=AP】

카터·趙紫陽회담

【北京25日UPI=聯】 美·中共관계정상화에 크게 공헌한 카터前美대통령은 10일간의 中共방문일정첫날인 25일 중공수상 趙紫陽과 회담했다。

趙는 부인로절린여사등 가족을동반한 카터前 대통령을 紫禁城의 영빈관에서 정중히 영접했다。

그는 카터前 대통령에게 『귀하의 在任기간중에 美·중공관계가 정상화됐으며 귀하는 兩國관계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했다』고 찬양했다。

南阿共기계화部隊 앙골라 進入

【리스본25日聯=聯合】 南阿共軍 2개부대가 앙골라 남부에 진입했다고 앙골라 ANGO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南阿共의 2개기계화軍부대가 24일 나미비아로부터 越境、산공고、카하마등 도시로 진격중이라고 보도하고 이같은 南阿共의 침략이 예측할수없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의 역사 <26일>

▲佛, 인권선언 채택	(1789)
▲伊, 對獨 宣戰布告	(1916)
▲美, 여자에게 참정권 부여	(1920)
▲韓, 美 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1948)
▲韓國, 국제개발은행에 加入	(1955)
▲蘇, 大陸間彈道彈 실험에 성공	(1957)
▲서울지구에 위수령 발동	(1965)

메아리

흔히 노력은 「영광의 어머니」라고들한다。어제 서울시교육위원회가 발표한 금년도 고입및대입검정고시 결과는 이숙明의 비중을 더욱뚜렷이 해준다。대체로 대학이나 고교의입학시험과 각이 정규적인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고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경우와 달라 검정고시의응시자들은 대부분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기 어려웠던사연이 있었던 처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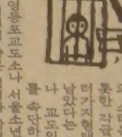
그래서 시험결과가 발표되면 으레 갖가지 화제들이 따르게 마련인데 올해는 영등포교도소 및 서울소년원 재소자 98명이 응시해서 54명이 합격하는 좋은성적을 올렸다는사실이 가장 마음 흐뭇하다。

더우기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고입검정고시 응시자 23명이 전원합격을했고 대입검정고시는 21명이응시해 18명이합격하는 좋은성적을 올렸다。

소년원이나 교도소는 고의거나 과실이거나 간에 일반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격리되어 영어의 생활을 하게하는 강제수용시설이다。

그와같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두가 촌음을 아껴서 시험공부를 했던나머지 여느 일류

囹圄속의 영광



학교에 못지않게 좋은 합격률을 올렸다는것은 새삼 학문에는 왕도나 지름길이 따로 없음을 보여준것이라 하겠다。

만약 그들을 수감자들이 현재 놓여진 영어의 조건에 좌절해서 지금 바야흐로 엄습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갈등의 포로가 되었거나 자포자기의 늪에서 허위적 댔다면 필시 오늘의 기쁨과는 인연이 없었을 것이다。

일제하에서는 말할것 없고 광복후에도 우리나라 행형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있다。또교도소를 비롯한 각급 감호시설속에서 여러가지형태의 부조리가 아직 남았다는 소문이 없지는 않으나 교도의성과로보아 그직위를 속단하긴 어렵다。

영등포교도소나 서울소년원의 재소자들이 대거 이렇게 좋은 성적과 합격률을 올렸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자질과 노력외에도 오늘이 있게한 교도당국의 숨은 노고가 반드시 있었으리라는 짐작이 가기 때문이다。

합격한 재소자들에게는 말할것 없고 그렇게 지도했던 관계인사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어진다。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사람을 찾습니다

본 명 : 이 시 교
(또는 이삼구)
나 이 : 43세

이 자는 한국에 처자식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총각을 가장하여 투론투의 한인여성과 결혼, 이곳 영주권을 획득하고 캐나다에 온 후 곧 동 여성과 헤어져 미국 뉴욕등지와 투론투의 수많은 남편 없는 이혼여성들을 농락 돈을 갖고 도망치는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내었음

본인은 이 자에게 1만달러 이상의 돈과 새 자동차(폰티악 80년도)를 사기당함으로써 이 자를 만천하에 고발하여,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고하니, 혹시 이 자의 거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자의 팔뚝에는 한국에서 여자에게 입으로 물린 상처가 있으며 콧수염을 기르고 있음.

연락처 : 291-4547 미세스 윤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新風土記

海女列傳 <제주도>

崔玄植 <作家>

이어도여 이어도여／요내櫓 부러진들／요내 손목이야 부러질소냐／한라산의 곧은 나무가／없을망가 이어도여／

「이어도」에 가까워서 한라산의 모든 나무가 모조리 櫓로써 부러져버리더라도 된다는 뜻이다. 이 悅을 文忠誠詩人은〈제주바다〉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누이야, 원래 싸움터였다.／바다가 어둠을 여는 줄로 너는 알았지?／바다가 빛을 켜는 줄로 너는 알았지?／아니다. 처음 어둠이 바다를 엮었다. 빛이／바다를 엮었지. 싸움이었다.

이어도·櫓·싸움터. 제주 海女의 이야기는 하나의 列傳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高銀가 가꾸와진 西歸浦 밭와계의 康大元씨(57·「海女研究」저자)·金榮敦씨(63·제주어협조합장)와 더불어 소주잔을 기울인다. 가을빛이 무르익진 바다. 호오이 호오이. 海女들의 휘파람소리가 물위에 떠오른다.

『海女를 潛嫂라고도 하지요. 潛嫂는 어떻게 보느냐구요? 농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 미역, 소라를 따 오는 일을 「밭에 간다」라는 말로 표현한다. 집뒤에 있는 바다는 농경지와 다를바 없이 생각되어 기껏해야 채소밭 정도로 알게 되는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해녀는 1820년경, 수경을 쓰기 시작하고서부터라고 볼수 있겠는데, 申光洙(肅宗朝)의 石北集에 이런 글귀가 있지요』

…〈拔東2월에 風日이 훤한 때 집 여자들은 호미 하나 망사리 하나 뒤웅박 하나 만들어 맨몸에 물옷을입고(拔東二月風暄家家女兒出水頭一鎌一第一瓠子赤身小襠何會羞)〉바다에 나가서 10세 전에 배운 물질로〈부모의 의식 걱정을 없게(父母諸無衣食憂)〉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헤엄하는 연습을 해오다가 15·6세가 되어서 수경 비창 호미가 주어지지요. 이렇게 시작되는 잠수생활은 50대 중반까지가 되는데, 최성활동기는 35·6세, 70세의 물질도 보게는 되지만요. 잠수시간은 보통 1분에서 1분50초, 깊이는 15m까지이나 대개는 6m 정도이지요』 敢藻은 아무 바다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地勢, 氣溫, 潮流의 영향은 農土에서의 일이나 마찬가지다. 바다속의 바른 길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요즘은 出稼라는말을 못듣게 되었지만, 옛날엔 도외 진출도대단했지요』

重勞動·哀歌의 裏面은 바로「濟州의 눈물」

일제때엔 한반도 휩북단 바다는 물론이었고, 저 북해도, 사할린에 까지도 진출했었지요. 수탈로 인한 총독도 많았지요. 이제는 수심15m까지의 해역을 一種共同漁場으로 정해 潛嫂에게만 어업권을 주고 있지만요』 海女作業場의 권리가 많아져, 아무나 물질을 한다고해서 바다에 뛰어들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위반해서 潛水器 하이라도 행패를 부리게 되면 싸워야 한다.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항쳐서 싸워왔다. 중에서도 1932년의 左面 海女들의 투쟁은 하나의 귀감이 되어주었다.

―〈1931년봄, 일본인 島司 다나까(田中)는 해녀의 어획물을 착취하는 商人에게 특혜를 주었다. 島司가 지나가는 길의 細花마을 앞에서 해녀들이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시위를 벌였다. 한해를 보내고도 시정되지 않았다. 이듬해 1월24일, 해녀대표인 夫春花(당시 22세)가 지휘하는 해녀 千여명이 흰수건을 동여매고 잠수기구를 들고〈우리들은 제주도 가엾은 해녀들…〉노래를 부르면서 모였다. 확답을 피하려는 島司의 자동차는 박살이 나고, 경찰관의 발포로 일대 石戰이 벌어졌다. 金瑞鏡을 정한 전남경찰부은 1백여의 경찰관을 긴급수송, 현장에 투입하게 되었다. 사태는 수습되었지만, 많은 海女가 투옥, 고문을 당했다.

『수경을 쓰기전에는 육안작업이었지요. 한번 바다에 들면 3~4시간의 물질이 되는데 潛水는 70회가된다는 거지요. 임신 9개월에도 물질을 나서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제주의 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젠 잠수노동이 옛날 같진 않지요. 70년초에 전신을 보호하는 새잠수복이 생겼고, 작업시간도 전의 3·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게 되었지요. 거기다가 協業으로 수입도 아주 높아졌으니까요』 현재 漁協(全道)에 가입되어 있는 해녀수는 1萬2千. 1인당 年間 平均소득은 1百60만원선. 수익원은 소라, 전복, 오분자기, 해삼, 문어順이고, 海藻는 못과 天草. 소라는 全量수출로 외화획득에 큰 몫이 되고 있다.

『관광객이 사진을 찍으려다 봉변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三多島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의 流行歌 기분에 대한 반감인 것이다.

우리들은 제주도의 가엾은해녀들／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추운날 무더운날 비가 오는 날에도／저 바다물결우에 시달리는몸／…저 30년대의 示威에 불렀던 哀歌를 알게 된다면, 카메라 앞에 좋과격했던 몸부림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작업을 끝내고 소득을 헤아리는 濟州해녀들. 검은 고무작업복으로 전신을 감싸, 옛날의 모습이 아니다.

레이건의 中性子彈공세에 進退兩難의 크렘린

核공포조성·交易증대통한「西歐접근」으로 美견제」의 間接打開 모색할듯

이 중성자탄은 그 성능과는 달리 정치적으로는 아주 소란스러운 落慶을 빚어내고 있다. 장차 東西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主戰場의 하나가 될 西歐에선 중성자탄 생산에 반대하는 示威가 2주째 계속되고 있고 소련측은 관영 언론을 총동원해서 이 결정을 뒤집도록 출동하는 波狀선전에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는 쟁은 지난 22일 서독 슈미트首相이 중성자탄 배치를 지하고 나섬에따라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슈미트의 발언은 지난 78년에 이미 천명했던 所信을 재확인 한것에 지나지않다 하지만,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西獨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속에 빠져있는데다가 당내 左派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아 슈미트의 정치기반이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는 마당에 발표된것이어서 주목을 더 끌고있다.

유럽이 떠들썩해 있는 반면 정작 레이건으로부터 일격을 당한 크렘린당국에서는 이렇다할 단호한 반응이 직접 나오고있지 않다. 관영 타스통신을 통해 소련 지도층은 미국과 맺은 전략무기제한협상(SALTⅡ)의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미국이 군비증강을 한다면 이에 1대1로 맞서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내심으로는 장차 대응방법을 놓고 매우 고심하는것 같다.

소련지도층이 상대하는 레이건 대통령은 앞서 여러 前任者들과는 전혀 판판의 인물이라는데 곤혹은 더욱 심한듯하다.

브레즈네프는 64년 후르시초프를 축출하고 권좌에 오른이래 레이건까지 5명째 미국 대통령을 상대해왔다. 그사이에 브레즈네프가 어느한 대통령에게도 친구라고 부른일은 없지만 그런대로 대화도 갖고 피차 이익이 된다면 기꺼이 협력을 하기도했다. 브레즈네프는 미국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터뜨리는 修辭가 지닌 정치적 效用性을 인정해주면서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미국 대통령이 지닌 弱點을 최대한 이용하는 재간을 보여왔다.

60년대말 닉슨이 발동을 건 美蘇 데탕트의 큰줄기는 頂上회담을 갖고SALTⅡ에합의하고 東

응달로 結論이 미뤄진 MX미사일배치방안은 이런 브레즈네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판승부를 가리자는 정면도전장과도 같은것이다.

이에 순순히 무릎을 꿇고 그간 간신히 성취한 군사적 對美優位를 포기할 소련은 아니다. 하지만 소련은 국내외사정으로 새로운 軍備경쟁의 방아쇠를 당길처지는 못된다.

한다. 반면 미국의경우 레이건의 계획대로 오는86년까지 군비증강을 밀고간다해도 군비에 투자하는 비율은 GNP의 7%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고보면 요즘 크렘린의침묵은 시간을 두고 關留하는 여유있는 침묵만은 아닌게 분명하다.

이제 막판에 다다랐지만 브레즈네프시대의천성기라면65년에서 76년사이를 친다. 이기간에 소련

沈默의 蘇聯·속셈은 무엇인가

미국이 생산비축하겠다고 발표한 中性子彈은 核무기이면서도 방사능 落塵이 없는 희한한 병기다. 78년에 이미 개발에 성공했으나 생산일보전에서 멈춰 있던 이 병기는 레이건이 그彈頭에 트리티엄을 넣어 더 강력한 방사능을 방출토록 했대서 더욱 전율을 느끼게 하는 신무기다.

西교역을 충대시키는 것이었다. 브레즈네프는 이게 모두 쌍방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현실적 요구에 따른것이라는 점을 자주 상기시키면서 레이건도 결국 앞서 전임자들이 비워두고 떠난 美蘇관계의 빈자리를 메우고 나서리라고 기대하고 시간을 기다렸다.

중성자탄 생산 결정이라는가 다

소련은 70년대내내 데탕트에 미국의 발목을 비끌어매고 군사력을 對等이상의 수준까지 올리는데는 성공했으나 대신 소련경제는 더이상감당하기 어려운 限界상황에 몰렸다.

현재 소련의 GNP는 미국의 半을 약간 넘는다. 이중에서 소련은 11~13%를 군사비에 지출

은 2차대전후 실현하고자한 꿈을 모두 이루었다. 미국과 전략상 힘을 대등하게 길러 진정한의 미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공산종주국으로서의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68년 체코침공으로 위력을 발휘한 이른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지닌 상징적의미는 대단한

받은 아주 불안정해있다. 무엇이든 밀고 나오는 새로운 미국을 맞아 팽창을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對決이 일어나도록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이 불안정의 가장 큰 요소다.

또 칭기즈칸이래 黃禍의 먹이를 떨치지 못한 소련앞에 중공이 미국과 準동맹관계를 형성해

金炳武 外信部次長

뉴스診斷

經濟사정이 競爭에 限界

한판勝負도 後退도 못해

飽食한 곰의 입장…對應方法 싸고 苦心中

것이었다.

이기간동안 소련은 스탈린시대와같은 집단테러없이도 리더십의 안정도 이룩했다.

그러나 소련은 80년代에 이르러 飽食한 곰이 끝없이 불어난자기체중을 감당못해 뒤뚱대는 형국에 직면해있다. 군사적으로 어느때보다 강력해졌으면서도 그기

서 소련은 전례없이 적대세력으로 포위된 형국이 되어 있다. 게다가 소련생활수준이 東歐보다 못한 치욕스런 현실은 크렘린당국이 냉가슴을 앓는 또하나의 절실한 속사정이다.

3년째 흉작을 맞은 소련의 금년도 GNP성장률은 2·5%선을 넘지못할 암울한 전망이다. 브레즈네프 지도력의 根幹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되 정치적 기대감을 수단껏 좌절시키는「빵과 대포」전술이다.

이덕분에 노동자, 농민, 전문직업인의 복지는 성장 둔화의 여파로 지해 왔는데 그것이 후퇴를 강요 당할때 뒤따르게될 반동을 소련지도층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즉 노동자계층의「폴란드化」망령에 시달리고 있는것이다.

사실 폴란드사태가 소련내외에 미치는 波及효과는 심각하다. 西歐에 무려 6백77억달러(80년말 현재)의 빚을 지고 있는 東歐어느나라에 폴란드형「빵의 폭동」이 일어날지 불안하다.

소련은 아프간침공으로 회교세계에 외면을 당하고 페르시아灣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비호를 받게 되었다. 그때문에 소련은 非同盟운동을 親蘇노선에 맞춰 보려던쿠바의 카스트로가 서 있던 양탄자를 잡아당겨 곤두박질을 시킨꼴로 만들었다.

그위에 베트남의 동을 밀어 캄보디아를 침공케한 일도 결국 아세안국가로부터 배척을받는 결과를 불렀으니 四面楚歌의 소련이 나갈길은 어느곳인가.

소련은 우선 核무기배치와 東西무역을 놓고 異見을 보여온 미국과 西歐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西歐를 벼여놓는 離間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작정한것 같다.

브레즈네프가 지난 7월 北歐에 非核지대를 설치하자는 제안을번 것은 그런전략의 한자락으로 풀이된다. 78년 카터가 中性子彈유럽배치를 결정했을때 소련은 반대여론을 조성, 이를 번복시키기 위해 西歐를 대상으로 선전비만 1억달러를 투입했었다.

西歐는 소련SS20미사일에 맞서 미국의 크루즈와 퍼싱Ⅱ중거리미사일 5백72基를 배치하는데 따른 회원국내 반발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中性子탄배치문제를 만나 진통을 겪고 있다. 게다가 MX미사일을 해상 또는 항공기에서 발사하기로 결정이나는경우 유럽은 또하나의 核공포를 품에 안는격이된다. 그래서 西歐의 반대여론은 시끄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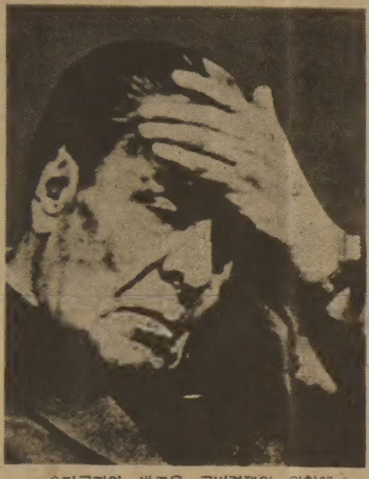
소련의 전략은 이 핵공포에 부채질하는 한편 交易증대로 西歐와 관계를 더욱 굳게 다져 미국의 공세를 둔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때문에 미국은 소련이 西獨을 부추겨 全長 5천6백km에 이르는 시베리아―西歐간 천연가스관건설에 합의토록한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레이건은 對蘇교역이 정세安定요소가 된다고 믿는 일부 西歐여론에 반론을 제기, 그것이 소련의 對西方위협수단으로화하고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對蘇거래는 市場경제상 당연한 추세인만큼 이를 무리하게 막으면 동맹국간에 對蘇교역을 놓고 자개獨進을 하는 사태가 올것이라는데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

이 점을 소련은 십분활용, 西歐에게 계속 추파를보내 미국歐域核의 유럽배치를 견제하는데 필사적 노력을 기울일것같다.

이와동시에 對美 대화의 창구도 터서 기왕에 성취한 군사균형을 깨뜨리지않도록 기도할것으로 보인다. 그로미코 소련외상은 오는9월 헤이그美국무장관과 첫對面을 하기로 돼있다. 또 연말에는 두나라간에 유럽배치 核무기감축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차례 군비경쟁으로 맞서기 어려운처지인 소련은 西歐내 움직임을 어느때보다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의 2차례 담판의 자리에 임할것이다.



◇미국과의 새로운 군비경쟁의 위협에 부딪쳐 고뇌스런 執權말기를 보내는 브레즈네프。

◇中性子탄을 탄두에 적재할 랜스미사일이 시험발사되고있다.

한국일보 詩壇

여름史

崔然鴻

국민학교때 크레용으로 그린
진한 초록색바탕의
더 진한 초록색 물결들과
빨간 果肉
까만 씨들의
수박

중학교때 에누구로 그린
固城바다와 群島
갈매기
女子
그리고,
세잔느의 수채화

대학때 스케치 북에
연필로 그린
抽象의 숲
다시
세잔느의 모작

外國의 十餘年후에
찾은 여름은
具象의
숲
속
家屋

조용히 숨어사는 外國人의 비밀을
여름은 中伏에서 末伏까지
벗기려한다

裸身의 몸은
숲사이를 흐르고
숲밖의 사람들은
여름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行方을 모른다.

不可思議한 美國人

李萬甲 <서울大 大學院長>

千字春秋

8월초에 나온 타임誌에 새로 출판된 아이젠하워의 日記를 소개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 紙面에는 맥아더將軍과 같이 찍은 少領시절의 사진도 있었다. 나이 45세에 겨우 少領이었으니까 그의 장래는 기사에 씌어있는 그대로 별볼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마셜 陸軍參謀總長은 3백여명의 先任將校를 제쳐놓고 그를 일약 유럽에 있는 聯合軍最高司令官으로 선발하였다.

아이크가 軍人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戰略家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타임의 기사도 그런 얘기는 없다. 모나리자의 웃음과 같이 유명해진 그의 활짝 웃는 웃음에는 역시 모나리자와 같은 묘한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다. 英國의 몽고메리元帥는 그가 웃기만 하면 당장 믿게 된다고 술회했다고 한다.

아이크의 日記를 소개한 기자는 그가 무엇을 할수있고 무엇을 할수 없는가를 적절히 판단하는 本能的인 調和感覺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실무적인 能力과 더불어 웃음 뒤에 숨어있는 그의 신비로운 性格이 고집이 심하고 개성이 강한 처칠, 드·골, 패튼과 같은 政治家나 軍人들을 상대로 大事를 처리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德性으로 인정되었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開戰당시에 准將에 불과했던 그를 기라성같은 수많은 선배將軍들을 제쳐놓고 구라파의 聯合軍전체를 호령할수 있는 자리에 앉힐수가 있었을까? 그와 비슷한 人事는 키신저의 國務長官 임명에서도 볼수있다. 키신저는 유태계의 독일인이었으며 본래부터 美國人은 아니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임명할수 있었을까?

작은 나라에서 같은 民族이라고 하면서도 나이와 先後輩를 따지며 툭 하면 學閥과 出身道를 가리는 경향이 강한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효러나 能率과 업적이 소중한 現代社會에서 우리도 그런 융통성 있고 대범한 사고방식을 기름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령대부흥회

강사 : 안 이 숙 선생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의 저자

일 시 : 1981년9월3일(목)~9월6일(주일)
장 소 : 런던제일장로교회
135 BRISCOE ST. E.
LONDON, ONT.
전 화 : (519) 439－6331(교 회)
(519) 686－6302(목사관)

시간안내 :
저 녁 : 목. 금. 주일(오후8시)
낮 : 주일 11시
●부흥회 전에 영화상영이 있음.
8월30일 오후 8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연배우 : 신영균. 고은아)
9월3일~6일 까지
●집회기간중에 영어설교가 있음
9월6일(주일) 오후3시

런던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장 희 선

한국船員 5명死亡

안개속日船과 충돌 13명구조

【東京25日=宋孝彬특파원】 20명의 한국인 선원이 탄 파나마선적화물선 로스베이스타호(2천9백99톤·선장 李友澤·45)가 24일하오 6시55분께 일본지바(千葉)현 이누보에사끼(犬吠崎) 동북방 22㎞해상에서 일본興伸해운소속 제11니찌야쓰마루(6백95톤·승무원7명)와 충돌, 한국인 선원5명이 사망, 2명이 실종되고 13명은 구조되었다고 일본해상보안청이 25일발표했다.

파나마 배인 로스베이스타호는 이날 짙은 안개속에서 항해도중 니찌야스 마루와충돌, 침몰했으며 선원들중 13명은 사고순간 인근해역을 지나던 한국선박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한편 일본해상보안청은 3척의 순시선을 사고해역에급파, 실종자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가난 파나마선박의 승무원은 모두 한국인선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실종자는 다음과 같다.

◇사망자 ▲李友澤(45·선장·사진) ▲이만식(34·1등기관사) ▲충재호(36·2등기관사) ▲천동창(25·3등기관사) ▲강대승(24·갑판원) ◇실종자 ▲임상규(39·조기장) ▲백점오(31·2등조수)

◇침몰한 로스베이스타호와 선장李友澤씨 (원내) 【釜山=聯】

成大 後期졸업식 博士 12명등배출

成均館大는 25일 상오11시 종합운동장에서 제31회 후기 졸업식을 갖고 박사12명, 석사81명, 학사 1백74명을 배출했다.

한국외국어大도 이날 하오2시 대강당에서 제24회후기 졸업식을 갖고 박사 1명, 석사57명, 학사 1백45명에게 학위를주었다.

朝鮮대학교 3백94명 警告

朝鮮大는 1학년을 제외한 전교생 8천4백71명중 4.7%에 해당하는 3백94명에게 경고등 학사징계를 한것으로 밝혀졌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알렉산더야, 네가 어질러놓았으면 스스로치울수없겠나?" "넌 내가 물건을 여기저기 흐트려놓는걸 보지못했지" "그리고말이야, 늘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쉽다구" "그렇지만 물건뛰어넘기는 좋은 운동인데"

싸다고 소문 난 가 나 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나의이력서 〈題字 尹致暎〉 윤치영 ㉚

두얼굴의 宣敎師

한국의 뒤진 恥部만찍어 大學에게시 / 울분못견뎌 寫眞찢고 學校측에 抗議

19세기말엽 한국이 鎖國과 前近代化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나라를 깨우쳐준 초기 宣敎師들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모페트, 에비슨등 숱한 선교사, 의사들의 이름은 두고두고 기억될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使徒로서 헌신적이었던 이분들과는 달리 미국留學시절 「두 얼굴의 선교사」를목격했다.

프린스턴 在學 3년째 어느날 이대학 神學校에 다니는 金觀植(金奎植박사 6촌동생)과 崔允觀이 나에게 달려왔다. 잔뜩 흥분상이었다.

『신학교 홀에 한국을 소개하는 사진이 잔뜩 진열돼있는데 한국을 더럽고 미개하고 창피스럽게 묘사한 것들이 많이 붙었으니 항의좀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들과 함께 신학교홀로 달려갔다. 진열대에는 파리가끓는 변소, 발가벗은 시골어린이, 문둥병환자, 무당, 판수등 갖가지 사진이 나열돼있었다. 그중엔 또 神農遺業이라고 쓰인 조그만 한약국사진옆에 세브란스병원과 平壤의 홀병원사진을 대조시켜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토록 미개한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開明됐다는 것이었다.

또 품위있는 紗帽冠帶의 舊式결혼은 한번도 못봤는지 어디서 귀신 얼굴은 사모관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앞에서 구식결혼하는 사진옆에 모닝코트에 단장들고 찍은 신식결혼식사진을 대조시켜놓고는 구식결혼을 무슨 蠻人의 행사처럼 묘사해놓지않았는가.

金씨와 목사가 안수기도하는 것을 미신적인 것으로 표현한 사진도 내걸었다.

수백장의 사진이 설명과 함께 진열돼 있었는데 찍어도 어떻게 그리 못된 것만 찾아다니며 찍었는지 可觀이었다. 「이것이 한국이다」라는 선전이었다. 같은 것을 찍어도 쥐어짜서, 고의적으로 더럽고 우스꽝스럽고 미개하게 보이도록 조작해놓은 것이다.

한국인은 영락없이 야만인이 된 셈이다. 그걸 쳐다보는 표정의 눈총들…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순간 달려들어 사진 수백장을 갈가리 찢어버렸다. 나는 대학에서준 교류런인 캘빈클럽회원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그냥둘수없었다.

이 가증스런 展示는 선교사들이 바가지를 놓고 돈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처럼 미개한 나라에서 고생을 하며 선교사업을하니 알아달라는 것이었다.

사진을 다 찢어버린 뒤 난 학교측에 정식항의를 했다.

『우리나라의良民들은 당신네 선교사들을 모두 善한 牧者, 天使로 생각했는데 여기와서 하는 짓을 보니 악마의 행위가 아니냐. 수천년 悠久한 역사의 문화민족을 모독한 자 누구냐』며 항의를 했다. 난 문제의 선교사들이 한 행위를 본국에 알리고 東亞등 본국신문에 告發寄稿를 할것이라고 윽박질렀다.

사진뿐이 아니었다. 환등기를 돌리는데 역시 같은 내용의 모욕적인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난 필라델피아의 宣敎會본부로 가서 한국을 소개하는 환등기를 잠깐 보자고 한뒤 환등기의 유리原版을 그자리에서 모조리 박살내버렸다.

그 정도의 惡意的 선전이면 日帝의 식민정책합리화선전과 그렇게 좋은 짝이 될수 없었다. 총독정치로 한국인을 문화인으로 만든다는 왜놈들의 선전─한국인들은 물도 먹을 줄 몰라 수도를 놓아주고 길도 낼줄 몰라 교통교불 산길만 다니고 약을 먹을줄 몰라 병원을 내준다는 그 선전에 걸맞는 선교사의 선전이라니….

본국의 신문에 알린다는 말에 크게 놀랐는지 그들은 2주일만에 공식사과를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프린스턴대학에서 나는 선교사인 매큔, 어드맨, 위드모어 교수등과 절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건이후 그들은 날 어떻게 생각하는 눈치였다.

示威탓인지 그다음부터 설교시간엔 『한국은 좋은 곳이며 훌륭한 민족이며…』하는 말이 많이 나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사진들중의 상당수는 프린스턴大에 있다가 平壤신학교 교수로 갔었던 해밀턴교수가 찍은 것들이었다.

얼마뒤 본국에서 致昊, 致昭 두 형님이 꾸지람을 내리는 편지를 보냈다.

왜 공부는 안하고 싸움질만 하느냐는 질책이었다. 선교사들이 『당신 동생이 미국에 와 공부는 안하고 싸움질만 한다』는 고자질을 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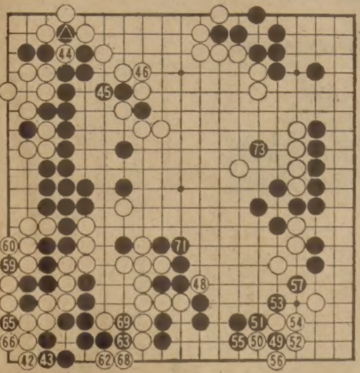
그래서 난 『이들이 민족적인 모욕을 주었다…』는 소상한 내용의 편지를 형님들에게 보냈다. 그 해명편지에 대한 답장은 없었다.

한국을 진정 아끼는 선교사들은 한국의 恥部를 劇化하지않았다. 友情의 선교사들은 苦難의 시절 한국인과 아픔과 고통을 같이했으며 한국인의 부분적인 약점을 들추어내기보다는 보다 많은 장점을 살려내는데 애를 썼다.

◇프린스턴大시절 神學대학원생과학부학생및 선교사들과 함께 캘빈클럽에가입, 활동했다. 2번째줄 右에서 두번째 (△) 안경쓴이가 筆者.

제⑬⑦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 第7譜 142~173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徐能旭
黑(4段) 姜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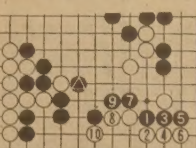
우상귀를 허무하게 짓밟힌 徐6단은 토실한 두집이 한껏 흉조되었다. 모롱은 여간해서 표정이 변치않는데 이번만큼은 타격이 컸던 모양이다. 하기야 패로 귀를 되찾을수는 있지만 패감은 黑쪽이 훨씬많다. 그렇다고 패를 안할수도 없어서 우선 좌하귀에 白42의 패감을 쓰고 44. 이래서 잠시 패싸움이 계속되었다.

이동안 약간초조해 보이는 徐6단에 반하여 姜4단은 빤한승수도 차분히 생각하면서 여유가만만하다. 그러나 어느새 黑은 불리했던 판세가 호전되어있다.

黑47로 패를 따내고 白48의 패에 대하여는 부자몸조심격으로 우하를 黑49이하 57까지로 결정지어 버렸다.

이곳은 보통대로 처리한다면 참고도처럼 ▲표로 몰아 놓고서 黑1이하의 수단을 보아야하는 것이다.

黑、충분한 패의 댓가



白58로 패를 되따내고 黑59의 패맞을때 이했을때 徐6단은 3분가량 멈칫거리다가 白60으로 응수했다. 국후 『白60에는 승산이 없는 판국인만큼 차라리 패를 해소하는것이 어땠는냐』는 의견을 인정, 徐6단도 그것을 생각하였지만 역시 패를 계속한것이다.

73에 이르러 패를 해소했지만 黑은 두곳을 두어 패의 댓가는 받고도 남음이 있다.

44 72…▲, 47 61 67…▲, 58 64 70…

【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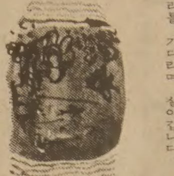
歌詞 「바다의노래」 당선작발표

전국 초·중·고교교사와 학생들대상으로 현상모집한 「바다의 노래」 가사 당선작 (주최=한국일보社·한국科學技術振興財團 후원=문교부·과학기술처·한국방송공사)이 청주 서원국교 교사 김갑식씨와 서울 신용산국교4년 이상준군의 작품으로 결정됐다. 가작은 교사부문에 충남대전보문고교 교감 민창식씨와 부산서구감천국교 교감 이봉윤씨, 학생부문은 전남 여천소라국교6년 신달훈군과 제주 대정서국교5년 양인철군의 작품이 각각 뽑혔다. 「바다의 노래」 가사 현상모집엔 전국 4천38개교로부터 7백8편(교사 3백24편, 학생 3백84편)이 응모했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은 오는 10월8일 제3회 「전국학생 과학책 읽기운동」(주최 한국일보社·소년한국) 독후감 응모입상자와함께 한국科學技術振興財團·과학기술처 주관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갖게된다. 당선작은 교사부문에 문교부장관상(부상 30만원), 학생부문은 과학기술처장관상(〃10 만원)이, 가작은 모두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장상(부상 교사 각10만원, 학생 각5만원)이 수여된다.

〈학 생 부〉

바다의 보물

이 상 준 〈서울신용산국교4학년〉



소라가 꿈꾸는 바닷물에는
고기떼가 한가득 살아갑니다.
싱싱한 식품자원 바다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진주가 꿈꾸는 바다 밑에는
광물이 한가득 묻혀 있대요.
값비싼 동력자원 바다보물이
우리를 기다리며 묻혀 있대요.

〈교 사 부〉

바다의 노래

김 갑 식 〈청주서원국교교사〉

1. 수평선 저 멀리서 바다가 부른다
해양한국 힘찬 깃발 창공에 펄럭인다
조국 부강 이루려는 큰뜻을 품고
바다속 자원을 캐자 모두 나서자
해상도시, 해양목장, 희망의 일터,
복지국가 푸른 꿈 바다에서 영근다.

2. 삼면이 열려 있다 바다가 부른다
해양한국 높은 깃발 오대양 뻗어간다.
조국 번영 이루려는 굳센 의지로
바다 속 황금을 캐자 땀을 흘리자.
해상공장, 조력발전, 새로운 일터
소득증대 부푼 꿈 바다에서 영근다.

심사평

應募書作 각각3백여편씩 / 글솜씨보다 內容충실치중

바다로 향한 동경과 개척의 정신을 담는다는 것은 벅차고도 어려운가 보다. 해양기술 개발과 해양자원 발굴을 위한 진취적 기상까지 표현하도록 요청했기때문일까.

예선을 거친 교사·학생 작품 300여편씩을 9명의 심사위원이 한편 한편 읽어가면서도 흡족한 작품을 발견하기어려웠다.

교사작품 당선작의 경우 청주 서원국교 김갑식 교사와 대전 보문고교 민창식교감의 작품을 두고 오랫동안 토론했다. 전자는 바다의 노래 내용을 주문대로 골고루 담았으되 문학의 향기가 덜하고 후자는 시어를 빚어낸 솜씨는 우수하되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망설이다가 내용의 충실도를 택하게 되었다.

학생 작품은 바다의 꿈이 묻어 있는 글을 뽑았다.

◇金秀男씨

심사위원장 金秀男 〈소년한국일보編輯局長〉

現代人의 健康百科

癌性 腹膜炎

영양악화·피부건조·腹水로 배불러

악성복막염이란 복강내의 내장에 생긴 암세포가 내장의 腹膜(복막)을 뚫고 들어가 복강내에 전이된(腹膜播種)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위장 간장 담낭 췌장 자궁암의 말기에 발생한다. 이들 전이성악성종양은 진행되면 예외없이 腹水가 생긴다. 증상은대부분 암의 말기에 생기기 때문에 전신상태가 아주 좋지 않으며 영양상태가 악화되어있고 피부는늘 건조한 상태가 된다.

복수때문에 배만 부른 특이한형태를 이루게되는데 이때 복부엔 흔히 암괴가 만져진다.

복수가 점점 많이 괴게 되면 횡경막이 점차 올라가서 양폐와 심장을 압박, 숨이 차게된다. 또 방광이나 직장을 압박하게 되므로 소변이나 변통이 잘 안되게된다.

상태가 한층 악화되면 悪液質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때 복수를 채취해 보면 비중이 높고 단백량도 많으며 적혈구가 매우 많아 육안적으로도 血性을 식별할수 있다. 복수 가운데 악성종양세포를 찾아내 확진할수있다.

물론 근치 시킬수는 없다. 상태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는 요법을 하게된다. 즉 복수가 차 있으면 이뇨제를 투여, 복수조절을 하게된다. 이때 전해질과 단백보급을 잘조정해야 한다.

복수가 너무 많이 차있게 되면 이뇨제만으로는 효과가 없게 된다. 그래서 복강내로 주사 침을 넣어 복수를 빼내게 된다. 하루에 1~2ℓ빼내도 2~3일이면 다시 복수가 다시차게된다. 매회 뽑아내는 복수의양은 1ℓ이하이어야한다. 복수를 빼내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편해지나 3~4일후면 복수가 한층 많이 차게되어 고통을 겪는다.

단백 손실로해서 복수가 더욱 빨리 차게 되기때문이다. 이런악순환이 계속되다가 3개월 이내에 사망하게되는것이 보통이다.

朴炅南 【醫博·漢陽大의대소화기내과장】

내일부터 崔圭完박사

다음회부터 소장과 대장 및 췌장의 병을 다룹니다.

집필은 서울大의대 소화기내과교수인 崔圭完박사(사진)가 이어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보다 더한 성원과 애독을 기대합니다.

모눈종이위의生 〈184〉

趙善作 作 禹慶熙 畵

灰色 노우트 ⑯

『아무거나요』

재빨리 말하고 나서, 나는 그의 엉뚱한 제안에 어물쩍하게 넘어갔다.

『아주 살러온다는 건 어디선가 읽은 느낌인데요? 어느 분인가의 단편소설인데, 비슷한 작중상황(作中狀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방에서 그는 찻잔 따위가 달그락 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런 소리에 섞여 그가 말하는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편히 다른 사람의 소설을 빗대어 농치려들지 맙시다』

『그런 게 아니고…퍽 인상 깊었던 장면이어서 기억하고 있을 뿐에요. 전후(戰後)가 배경인데…. 『〈암사지도(暗射地圖)〉』요. 허지만 그건 반대였지요. 남자가 여자에게 아주 살러오라고 부탁한게 아니고, 도리어 여자쪽에서 아주 살러가는 거라면, 하고 남자쪽의 의사를 타진한경우입니다』

비로소 나는 그 작품의 전모(全貌)가 머리에 떠올랐다.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음산한 이야기였다. 두 남자는 전쟁에서 돌아온 친구 사이였고, 여자는 그들 두남자의 공유물이었다. 아니, 처음에는 남자A의 소유였는데, 남자B가 전쟁에서 돌아와 합류하게 되자 A가 B에게 그녀의 공유를 끈질기게 설득하는 장면으로 되어있었다. 파괴된 전후의 비참한 모습과 이즈러진 사랑이 교묘히 얼룩진 스산한 소설이었다. 극장 앞에서 남자A가 그녀와 처음 만난다. A는 비록 부서졌지만 빈 방이 여럿인 한옥을 혼자 쓰고 있다. A는 그녀에게 어디 갈만한 데가 없으면 얼마동안 와 있어도 좋다고 말한다. 잠시생각해보던 그녀가, 아주 살러가는 거라면, 하고 말하고 기묘한 동거 생활에 돌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내가 미스안에게 그런 식의 동거를 꿈꾸어서 하는 말은 아니오. 좀 멋쩍기는 하지만 나로서는 최선을다해서 말하는 구혼이요』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돌연한 일이었다. J씨가 물론 장난으로 그런 말을 입에 올리고있는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나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J씨는 주방 쪽의 요부(凹部)에서 얼굴을 조금 꺼내 소파의 나를 확인했다. 거실이 조용하니까 그동안 내가 도망치지 않았나 걱정한 듯싶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놀랐으면 용서하시오. 나 스스로도 즉흥적이라는 반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생각할 여유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그가 쟁반에 홍차 두 잔을 받쳐 가지고 나왔다. 끓인물에 립턴 티의 종이 봉지가 담겨져 있었다. 나는 찻잔의 맑은 물에 잠긴 새의 찻물이 연기처럼 우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침묵을 깨뜨리고 내가 말했다.

『저에 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으시잖아요?』

『아, 그건 마치 미스 안이 나를 꾸짖는 것처럼 들리는군. 신상에 관한 자세한 것들을 하나도 밝히지 않고 구혼을 하는 무례가 어디 있느냐고』

나는 그의 말에 뛰어들었다.

『그런게 아니에요』

그러나 J씨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않았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나한테는 아이가 하나 달려 있읍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오. 방학이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시골의 형님 댁으로 갔읍니다. 형님은 거기서 자그마하게 납품업을 하고있읍니다. 딸애 이름은 이삭이요. 순한글씨 이름이죠. 처음으로 원주의 사촌들과 사귈 기회를 가진접니다. 애 엄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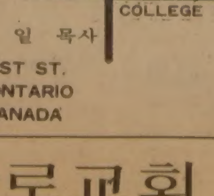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일
669-5784
MR. 심

심 령 부 흥 회

강사 : 최 헌 우 목사

약력소개 :
● 총회 신학대학 연구원 졸업
● California신학원졸업(석사)
● Fuller신학교 박사코스연구중
● 서울원동교회 시무
● 현재 L.A.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담임(장년400명교인)

일 시 :
10월1일(목)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2일(금) 〃 (〃)
3일(토) 〃 (〃)
4일(주)오전5시30분(새벽기도)
오후1시 — (대예배)
오후7시30분(저녁부흥회)



전화연락 : 249-5461
961-8361
281-9991
담 임 : 정 관 일 목사
교회주소 : 502 BATHURST ST.
TORONTO, ONTARIO
M5S 2P9 CANADA

중앙장로교회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202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0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 평일 오후3시 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 집전화 : (416) 222-9480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김명종 한약방

침, 보약(탕약과 에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철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國樂의 眞味」 맛보게한 黃金配役

제1회 大韓民國 國樂祭를 보고

韓万榮 <서울大교수>

音樂評

◇제1회 대한민국 국악제에서 관심을 모았던 成昌順의 「沈淸歌」。

大韓民國 國樂祭는 지금까지 해온 大韓民國音樂祭에서 國樂을 독립시켜 규모를 확장시킨것이다. 이제껏 大韓民國 音樂祭에서의 國樂은 前夜祭정도의범위를 넘지못하였다. 그러니까 「音樂」이란 西洋音樂을 말하며 韓國 音樂은 「音樂」이 아닌 「國樂」인 셈이다.

國樂이란 말은 원래 「韓國音樂」의 약자이다. 따라서 大韓民國國樂祭를 정식으로 표기 한다면 「大韓民國 韓國音樂祭」가 될것이다. 더우기 韓國이란 大韓民國의 약자임에서랴. 西洋音樂의 약자는 「音樂」이 아니라 「洋樂」이 되어야 논리에 맞을것이다. 따라서 「大韓民國音樂祭」란 명칭은 한국음악에 해당할 것이다.

지금부터 30~40년 전만해도 白人들이 「音樂史」를 썼다하면 으레 그것은 西歐의 音樂史를 가리켰다. 그러나 地球에는 白人만이 사는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많은 수의 他人種이 살며 그들의 음악은 白人들의 음악보다 훨씬 더 오랜 傳統과 多樣性을 가지고있마는 音樂上의 코페르니쿠스的발견을 한뒤로는 겸손(?)하게도 「西洋」이라는 接頭語를붙여서「西洋音樂史」라고 제목을 달게되었다. 당사자인 白人들은 이처럼 겸손한데비하여 정작 우리는 그들보다 더 겸손해서인지 아니면 自己卑下인지는 모르겠지만 「洋樂」과 「國樂」이 아닌「音樂」과 「國樂」이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국악제는제1회이기에 그런지 雅樂판소리 산조 민요범패 唱劇 歌曲 時調 창작곡에이르기까지, 그리고 궁중무용과 민속무용까지 포함한 대규모의 프로그램이었다. 출연진은 모두가 異議를 붙일 수 없는 超一流級의 演奏者들이다。國立國樂院을 비롯하여 正農樂會 市立國樂管絃樂團, 그리고 해당 곡목의 人間文化財들이 出演하였다。이러한 黃金配役은 첫째번의 國樂祭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짜여진것 같다。그러나 제2회부터는 力量있는 新進들과 人間文化財는 아니더라도 그 水準에 떨어지지 않는 中堅들, 그리고 人間文化財들이 함께 출연함으로써 大韓民國國樂祭에 新鮮味를더해줄수있을것이다.

또 한가지 첨가할 것은 이번 국악제가 서울을 中心한 예술가들이 출연했다는 점이다. 물론 초일류급의 人間文化財들이 서울에 많이 몰려있기에 별수 없겠지만 제2회때부터는 地方의 有能한 예술인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별로 선전을 안한것을 감안할때 6일동안 오후와 밤의 2회연주에 모두 입추의 여지가없는 초만원을 이룬것을 보면, 그것도 대학생과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다수인것을 보면 국악의 앞날은 뜨단히 희망적이다.

모든 프로그램이 文藝劇場에서 연주되었는데 金風流 대風流 판소리 歌曲 가야금散調등이 完奏된것은 바람직하였다. 다만 文藝劇場의 小劇場은 의자를다 뜯어내어 돗자리를깔고 앉게해서옛스러운멋을살리려했으나 天井의 조명장치가그대로 보이는데다 많은觀客들이 서로 비비고 앉아서 분위기는 그리 좋은편이아니었다. 더우기 2~4시간씩이나 걸리는 完唱演奏를 바닥에 앉은채로 보게되니 苦役이 아닐수 없었다. 내년에는 小劇場 프로그램을 大劇場으로, 대극장 프로그램은 國立劇場의 大劇場정도로 바꾸어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大韓民國國樂祭의 하이라이트는 正農樂會의 靈山會相, 성창순의 심청가, 홍원기 전효준 김월하 조순자의 歌曲 한바탕, 김죽파 함동정월의 가야금散調, 그리고 國立國樂院의 雅樂을 들수 있겠다.

김성진 김천흥 봉해룡 김태섭 김정자 김선한등의 黃金配役을 망라한 靈風流는 가히 靈山會相의 眞味를 맛보게 했고, 대부분젊은 層으로 구성된 國立國樂院의 연주는 一絲不亂하면서도 씩씩한氣品있는 연주를 들려 주었다.

다만 唱劇 박타령은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하려는 연출자의 의도와 전통적 唱劇스타일에 몸이 밴 출연진과의 호흡이 맞지않은 감이 있다. 따라서 김소희 허휘 안행연등의 熱唱에도 불구하고 무대는 活氣가 없으며 흥부 아들들은 시종 흐느적 거려야만 했다. (이것은 안무에도 책임이 있다) 한마디로 오태석은판소리를잘못파악한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금년에 시작한 제1회 대한민국국악제는 앞으로 더 알차게 진행되어 갈것이나, 차제에 1년에 한팀씩 외국의 전통음악을 초청하여 국악제에 참가시킨다면 比較眼目이 생겨서 좋을것이다. 금년에는 IFMC의 세계민속음악제가 잇달아 열리니 예외이지만.

31일부터 제5회 大韓民國 연극제

연극제 가을시즌의 첫막을 여는 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오는31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극단實驗의 「들소」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지난7월 대본심사를 거쳐 초청된 극단東朗등 8개단체로 제작비1백만원 작품료50만원 대관료 1백30만원의 지원을 받게된다.

21일하오 문예회관에서

다.

31일부터 9월5일까지 문예회관대극장에서개막, 테이프를 끊는 실험극장의 李文烈작 尹浩鎭연출 「들소」는 모계사회에서 부계

놓고 자기중심적 욕심에얽매여 과렴치한 인간성을드러내보이는 한집안 얘기를 우화적으로 풍자한 작품. 자유극단의 오랜 연기자들인 金錦枝 張健一 朴雄榮

작품손질과연습에열중하고 있는데 연극계관계자들은 이번연극제가종래연극제에 비해「꽃만한무대」와 「풍성한성과」를거두리라고예상하고있다.【崔成子기자】

演劇 가을시즌 화려한開幕

◇극단「실험」의「들소」와 東朗의「自1122年」.

◇제5회대한민국연극제포스터

作品수준 예년보다 월등히높아

예심거친 實驗등 8단체서 참가

희곡·연출·男女연기상등엔 海外연수 특전도

여름시즌을 유난히 극심한 불황속에서 허덕였던연극계에 신선한 활력소역할을할 이번연극제는 예년에 비해 참가작품의 수준이높고 희곡 연출 기술 남녀연기상등 5명의 개인수상자에게 해외연수의 특전도주어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월11일까지 40여일간 개최될 연극제 참가극단은

개최된 연극제 운영위원회는 李海浪 呂石基 柳敏榮 朴祚烈 李源庚씨등 5인심사위원회를구성, 개막을위한 준비를 마무리지었다. 李海浪씨는 『대본심사과정부터 느껴온 것이지만 대한민국연극제사상 이번만큼 작품수준과 참가극단의 열의가 높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제5회 연극제에 대한 기대를 말한

사회로 변이되던 시절의부족이야기로 권력의 생성, 私有의 기원, 부부의 개념 확립과정을 그린것。문학지에 게재되었던 소설을각색한 작품이다.

실험의 간판배우격인 李承鎬 徐仁錫등이 나오고중견여배우 李貞姬 黃正雅를 비롯 鄭東煥 吳承明등이출연한다. 연출의 尹浩鎭은 『극단 實驗의 연극제 첫 참가작품인 만큼 좋은 배역진과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각오를 말한다。

9월6일부터 11일까지 공연되는 廣場의 李載賢작 金孝經연출 「미국에산다」는 미국의 한국이민사회를 다룬 작품。국립극단의 중추멤버인 白星姬씨를 비롯 康邦薰 李一林 宋承桓 尹汝星 鄭惠貞등이 출연한다。

9월12일부터 17일까지 공연되는 自由의 「族譜」(李康白작 金正鈺연출)는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星辰 權炳吉 金貞등이출연한다。

9월18일부터 23일까지 공연되는 극단 뿌리의 「밥의 묵시록」은 鄭福根作 金道勳연출로 연윤경 배규빈 이필훈 이호성등이 출연한다。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병든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대비시켜 양자사이의 비극을 그린 작품。

9월24일부터29일에 공연되는 극단 四季의 「길몽」은 신인여류작가 崔明姬의 첫 장막극으로 극단 新協의 李昌九가 객원연출한다。「길몽」은 타이피스트를 주인공으로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메커니즘속에서 인간이소외돼 가는 모습을 그리고있다。林東鎭 張美子 이명원출연。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공연되는 女人극장의 「학이여 사랑일래라」는 車凡錫작 姜由禎연출。木浦 三鶴島에 얽힌 설화를 소재로 여인의 恨을 환상적·서정적으로 담았다。오랜만에 閔智煥이 무대위에 서고 尹桂相 宣東赫 원미원 김미경등이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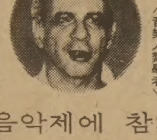
10월6일부터 11일까지 공연되는 극단 에저또의 「農土」는 尹朝炳作 方泰守연출로 노비3代가 겪는 수난과 삶의 의지를 東學전쟁、韓·日합방、8·15광복、6·25의 역사적 사건에 투영 조명해본 작품。金福姬 金成九 張偉用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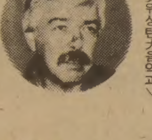
9월21일부터 22일까지 공연되는 東朗레퍼터리의 吳泰錫작 金賓柱연출 「自1122年」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다른 7개작품과는 달리 드라머센터에서 공연된다。高麗중엽에 발호한 외척들의 세도와중에서 용케 견디어내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려 여성의 인간회복과정을 보여준 작품。최재영등 서울예전출신 연기자들이 출연한다。

현재참가극단들은마지막

國際民俗음악제에 참가한 外國학자들

폴·올슨氏 <IFMC會長>


브루노·네틀氏 <音樂人類學者>


가피아즈교수 <美워싱턴大음악과>

韓國음악 세계소개에 機會

『서울 국제민속 음악학회(IFMC) 회의는 東洋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인 만큼 東洋음악 특히 한국음악을 세계에 소개 하는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25일 개막되어 9월1일까지 열리는 제26차 국제민속음악회의및 음악제에 참가하기위해 내한한 폴·올슨(59) IFMC회장의 말이다.

덴마크출신의 올슨 박사는IFMC의 서울총회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한장본인。현재 코펜하겐 大學의 음악교수이자 덴마크민속자료관의 민속음악 담당관이며 오페라등 83개작품을 발표한 작곡가이기도하다。

그가 회장을맡고있는 IFMC는 세계각국의 전통음악및 무용을연구하고 보존·보급및 연주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속음악의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그동안 주로 유럽에서 회의가 열렸고 東歐圈의 전통음악을 西歐에 소개하는 역할을해왔다。

『헝가리의 작곡가 벨라·바르토크도 IFMC회장을 역임한바 있읍니다。IFMC는민속음악뿐아니라 전통음악전반에 관심을 갖고있어 이번 회의에서 학회명칭을 포괄적인 다른말로 바꿀생각입니다』

함께온 부인 루이스·레아킹여사도 음악 매니저로 한국음악에 관심이 깊다。

가야금선율에 독특한매력

음악인류학의 권위자인 美브루노·네틀박사(51)가 서울 국제민속음악학회및 음악제에 참석하기위해 24일 한국에 왔다。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의 원시고대사회에서는 음악이 언어에 대치되는 역할을 수행 했읍니다。지금도 아프리카나 南美등에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음악인류학은 口傳音이나 유물로 남겨진 악기등의 연구를 통해 그 음악이나 악기가 불리어지고 사용되었던 시대의 생활풍습과 사회상등을 구명하려고 할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학문인「음악인류학」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그는 원래 인류학을 공부했으나 원시사회에서의 音樂의 역할에 관심이 쏠려 음악인류학을 전공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은 처음 방문하지만 李惠求씨(하와이大교수)등 在美한국음악학자들을 통해 한국전통음악을 여러번 들었다고밝히고 특히 가야금의선율에서 한국음악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체코·프라하 출생。현재 美일리노이大음악인류학과 교수。유럽민족음악의 탁월한 이론가로알려진 그는 「원시문화와 음악」「민족음악학의 이론과 방법」이란 저서가 있다。

판소리 世界的인 음악형태

국제민속음악계에서 아시아通으로 불리는 로버트·가피아즈교수(49·美워싱턴大음악과)는 한국의 음악과 춤을 미국에본격적으로 소개한 학자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50년대말 한국을방문, 카메라에담은 우리나라 전통음악과 춤을 학술대회나 대학 강의시간을통해 세계에소개했다。

그가 세계적인 아시아음악학자로 부상한 것은 日本의 궁중음악인「도가꾸」를 이론화 시킨후부터。한국음악에대한 관심도 도가꾸에미친 중국음악의영향을 연구하면서시작되었다。

『日本음악이 극도로 다듬어진 음악이라면 한국음악은 거친듯하면서도 중후한 멋을 갖고있는점이 서로달라요。지금까지 네차례나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음악은 들을때마다 새롭게들려옵니다』그가 최근 매혹되고있는 한국음악은 판소리와 歌曲。묵직하게 성대를써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형태라고 강조한다。

그는 10일간 머무는동안 한국의 원로국악인들을 가능한한 많이 만나 오리지널한 전통음악에 본격적으로 접촉하고 싶다고덧붙인다。

한국의집 傳統樂器전시장

어제開場 거문고서 巫俗악기까지

文化財보호協

한국문화재보호협회는전통문화예술의 보급선양을 위해 「한국의집」에 전통악기 상설전시장을 마련, 25일 개막식을 가졌다。

전통문화의 계발이 강조되고있는 새문화정책에 발맞추어 열리는 이번 상설 국악기 전시회는 가야금 거문고등 일반 악기를 비롯 巫俗에서 사용돼온 악기적속성의 기구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있다。

전시품은 중요무형문화재 樂器匠(가얏고)인 金廣胄씨, 鼓匠(북메우기)인 朴均錫씨등 전국국악기 기능보존회 전문가들이 정성들여 제작한 전통악기와수집품등 1백여점。

金·石·絲·竹·匏·土·革·木등 8개부문으로 재료가 구분되는 출품국악기 가운데 조선世宗때 만들어졌다는 建鼓는 일반에 첫선을 보이는 것으로 그 좌우에 보다 작은 朔鼓와 應鼓를 끼고 조회 또는 연회때 합주의 시작과 끝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문화재보호협회는 전통악기 전시를 계기로 전국 중고교에 순수한 우리악기로만 구성되는 鼓吹악대나 국악관현악반을 편성토록 권유하고 「모교에 국악기 보내기운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극단「현대극장」創團5周

관객동원記錄 슈퍼스타再公演

극단 현대극장이 오는 9월1일로 창단 5주년을 맞는다. 76년9월1일 연극의 전문화·직업화·과학화를 내걸고 창단된 현대극장은 그동안 25개 작품을 연6백14회공연, 연극계발전에 기여해왔다. 동원한 관객은도합74만2천6백49명。

현대극장은창단5주년을 맞아 해방후 단일 연극으로서는 최대인 23만7천4백71명의 관객동원기록을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를 28일부터 30일까지 남산 숭의음악당에서 재공연한다。

로크 오페라인「예수그리스도 슈퍼스타」는 극단 현대극장이 80년 2월22일부터 서울의 국립극장과 부산·大邱에서 1백24회나 공연, 호평을받은 작품이다。

현대극장이 창단5년동안 공연한 작품중 관객을 가장 많이 동원한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이고 그다음은 「사운드 오브 뮤직」(16만명)「빠담빠빠담」(4만8천5백명)「실수연발」(4만6천5백명)등의 순이다。회당 평균 관객동원수가 가장많았던 작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3천5백30명이다。

「예수그리스도 슈퍼스타」 재공연의 출연진은 윤복희 김도향 곽규석 유인촌등초연때의 멤버 그대로다。

공연관람권은 현재시내유명악기점에서 판매중。학생단체 1천원, 일반 3천원~5천원。문의 [illegible]3111

아퀴나스定期연주

아퀴나스 교향악단의 제7회 정기연주회가 9월2일하오7시30분 중앙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레퍼터리는 M·글린카의 루슬란과루드밀라 서곡, 모차르트의 피아노콘체르토B플랫장조등。지휘 전용진, 피아노 김영호。

文化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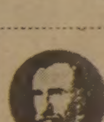
國際民俗 음악제 7個國공연 日程

제26차국제민속음악학회 회의및 음악제 프로그램중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의대상이 되고 있는 7개국 민속음악의 공연일정이 확정됐다。

▲가나와 루마니아전통음악=26일 하오8시 문예회관 대극장▲南印度와 월남전통음악=27일하오8시 문예회관 대극장▲中國·터키음악=28일 하오8시 문예회관대극장▲日本雅樂=29일 하오8시 문예회관대극장▲7개국 음악의 종합공연=9월1일 하오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文豪의 名言

아미엘 <1821~1881>


스위스의 思想家 모럴리스트。스위스제네바에서 生後。1850년부터 제네바大學 철학교수로 일생을보냄 「아미엘의 日記」는 세계적으로 널리읽혔다。

산다는것은 體驗을 거듭하면서 우리들의 주장이나 희망이나 힘이나 자유를 끊임없이 축계하는 修業이다. 거리는 점차 좁혀져간다. 사람은 모든것을 배우고 보고 모든것에 도달하며 전체를 손에 넣으려고 생각하지만 그 方法에있어 반드시 限界에 부딪치는법이다. 즉「이보다 앞으로는 갈수없다」고 하는곳에 도달하게된다.

× × ×

그의 「日記」때문에 유명한 아미엘 (Amiel, Henri-Frederic)은 청년시절 南歐와 北歐를 여행하고 베를린에서 유학한것 외에는 출생고향에서 교수로 생애를 보냈다。생전

삶은 體驗 통해 希望의 거리를 좁히는 修業

에 2、3권의 詩集、몇편의 論文을 발표했으나 별로 주목되지않았다。死後 1만6천페이지의 방대한 일기 (1847~81)의 일부가 발간되자 (83년) 內省的 不安의 모럴리스트로서의 特異한 자기분석을 보여, 많은 독자의 주목을끌었다。

그의 日記는 모두 발간되지않았으나 부비에 (Bernard Bouvier) 編의 新版 (1923)이 있다。생전의 시집으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그의 思想은 통일되고 體系的으로 著作해 있지않고 방대한 日記속에 남겨졌다。

感情을중시、설명이나 분석하는일로 비틀어진 그것을 해방시켜 삶속에 숨겨진 神秘的인것을 느끼며、그리고 사는것이 모든 研究에 앞서져야 한다고 했다。

基督教的인 禁慾主義의입장을취해 코스모폴리탄的主張을갖는다。

『자신을 텅비게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없애、眞空空間에서의 공기처럼 네자신속에 神을넣어、너의利己的自我를 神의本質의 容器에 지나지않게함으로써 수행하라。너 자신의 밑바닥에 겸손한 內省의 침묵속의 人間이되라。순결한 청심과 교류하기위해 정신적인 순수한 인간이되라。

機會만있으면 너의 내심의 성당속에 틀어박히라。

공간 시간 꿈결 유혹 환상을 초월하고 너의 器官、네자신의 생활에서 도망쳐 나가거라 너의미세한本質로돌아가라。즉 너는 자주 죽는것이 필요한것이다」

인용은「아미엘의 日記」에서。

백자사발등 遺物17점인양

瑞山馬島앞 침몰선수색

【安興=聯】충남瑞山郡安興面馬島앞 해저유물및 침몰선박을 수색중인 문화재관리국 해저조사단(단장金正基)은 25일까지 4일동안에 백자사발6점, 백자대접4점, 접시1점 그리고 백자·청자옹기류 각각5점등 모두17점의 유물을 인양했다。

金조사단장은 이날 安興지서에서 지금까지의 발굴경과를 밝히고 해저에서 백자류등이 산재해있는것을발견했으나 이유물들을 운반하던 선박의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다음작업때 선체발견작업과 유물인양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유물들이 李朝중엽이후의 것으로추정했다。

유물수색작업은 25일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중단되었는데 이곳 해저의 상태는 수심이 밀물때 17m、만조때 24m이며 바닥이 개펄로 되어있어 발견되지 않은 유물이나 선체는 개펄속에 묻혀있는것으로 추측된다는것。

流星의 賦 <167>

李炳注作　李友範畵

山空花自紅 ⑰

사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다。

정여립은 어느새 이발(李潑)에게 아첨하여 보는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이발은 이이의 생전에 이이와 극단적으로 대립해 있던 자이다。

그런데 이이의 생전에

『공자는 이미 익은 감이고, 율곡은 미숙한 감이다』

하는 말까지 하며 이이에게 깍듯이 제자로서의 예를 바쳤던 정여립이 이발과 통하고 있다는것은 해괴한 일이 아닐수 없어 임금이 어느날 정여립에게 물었다。

『이이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정여립이 서슴없이 대답하길

『이이는 군자인을 뽑내나 사이비군자(似而非君子)이며, 학덕을 자랑하나 범속을 넘을수 없고, 얌전한척하나, 제대로 치가(治家)를 못한 위선자이옵니다。그런 때문에 신진의 기골있는 자를 멀리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두둔하여 그의 울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임금은 깜짝 놀랐다。정여립의 입에서 이같은 말이 나올줄 몰랐던 것이다。

『제자가 선생을 평하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자네의 말은 지나치지 않는가』

임금의 말이 나무라는투가 되었다。

『사사로운 사이이면 고인의 흠을 덮어줄 줄도 아옵니다。그러나 전하의 하문이시온데 어찌 흑(黑)을 백(白)이라고 하오리까。소신은 오직 정사(正邪)와 선악(善惡)을 가려 신(臣)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정당하게 인물을 평량한다는 것이 치도(治道)의 요긴인줄 아옵니다』

그 납작납작 주워 섬기는 꼴이 심히 임금의 비위를 상했다。그러나 말은 조용했다。

『인물을 정당하게 평량한다는것이 치도의요긴이지。잘 알고 있구나。그럼 내가 널 평량해 볼까?』

정여립이 황공해서 부복했다。

『여립은 오늘의 형서(邢恕)이다』

임금의 말은 서릿발 같았다。

정여립은 상기된 얼굴을 들어 눈에 핏발을 세운채 성난 모양으로 임금 앞에서 물러났다。

형서란 송나라 정이(程頤)、즉 명도선생(明道先生)의 제자로서 훗날 스승을 배반한 사람이다。

이 일이 있자 서익(徐益)이란 자의 상소가 있었다。그 상소에 가로되

『정여립이 이이를 높여 섬기며 일찌기 말하길, 이이는 참 성인(聖人)이다、하였으며 또 이이에게 보낸 편지엔、삼찬(三竄)은 비록 잦으나 거간(巨奸)이 오히려 있다。고 하였는데 거간이란 유성룡(柳成龍)을 가리킨 것입니다。그러다가 이이가 죽으니 여립이 제일 먼저 배반하였읍니다…』

임금은 이 상소를 보고

『해괴망측 하다』

고 하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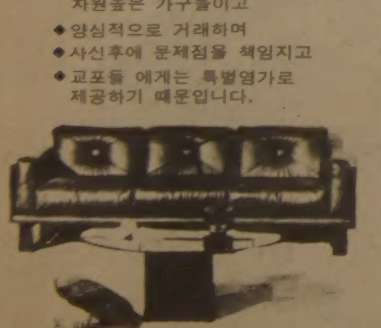
『정여립이 비록 기를 부리는 자라면 알고 있지만 어찌 사제(師弟)를 갖춘 사람이 예조판서 유성룡을 거간(巨奸)이라고 지목할 수가 있겠는가。그러나 여립이 이이에게 보낸 편지에 그런 글이 있다고하니 서익의 말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것 같다。이렇게 인심이 각박해서야 될 말이나 하겠는가』

하고 크게 통탄했다。

교포를위한 제4주년 기념 특별세일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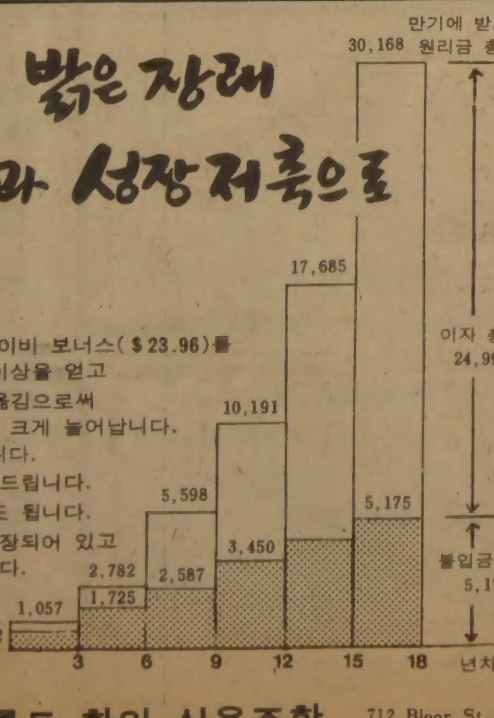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MODERN FURNITURE
ecosys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내 아들딸의 밝은 장래 어린이 적금과 성장저축으로 보장하자!

⊙ 정부로 부터 매월 받으시는 베이비 보너스($23.96)를 3년간 적금함으로써 $1,057이상을 얻고
⊙ 이를 3년마다 성장저축으로 옮김으로써 이표와 같이 $30,168이상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 금리변동에 따라 자동조절 됩니다.
⊙ 1년에 2번씩 복리로 이자를 드립니다.
⊙ 이자 손해 안보시고 중도해약도 됩니다.
⊙ 모든 예금,적금은 보험으로 보장되어 있고 우편으로도 예금 할 수 있읍니다.



전화문의
낮 : 533-9388
밤 : 921-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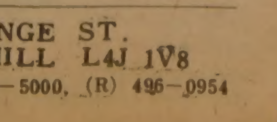
온타리오주법과 보험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 신용조합
KOREAN TORONTO CREDIT UNION LTD.
712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L4

NORTH YORK
GM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 (B) 881-5000, (R) 496-0954

成德女商 결승토너 進出

쌍룡기쟁탈 男女농구 德成女高 70대56으로 꺾고

제17회 쌍룡기쟁탈 전국남녀고교농구대회 4일째 경기가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 여고A조서 1, 2학년생들로 구성된 成德女商은 德成女高를 70-56으로 대파하고 3연승으로 A조 1위를 기록,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이미 결선진출이 확정된 崇義女高와 全北體高의 대전서는 崇義가 기동력을 살려 58-44로 낙승, 2승으로 C조 1위가 되었고 全北體高는 1승1패로 2위로 결선에 올랐다.

한편 남고A조에서 光新商高는 水原三一實高에 90-80으로 역전승, 2승을 올려 仁川 松都와 함께 결선에 나갔다.

B조서 龍山高는 光州商을 83-60으로 압도, 2승1패를 기록했다.

◇제4일전적

▲남고A조

광신상고 90 (5535-3446) 80 수원삼일 (2승) (2패)

▲동B조

용산고 83 (4142-3228) 60 광주상고 (2승1패) (1승1패)

▲여고A조

성덕여상 70 (3436-2927) 56 덕성여고 (3승) (1승1패)

▲동C조

숭의여고 58 (3028-2024) 44 전북체고

▲동순위=①숭의 2승 ②전북체 1승1패 ③숙명 2패

한국등 8國참가신청

킹스컵축구 北韓은 아직 回信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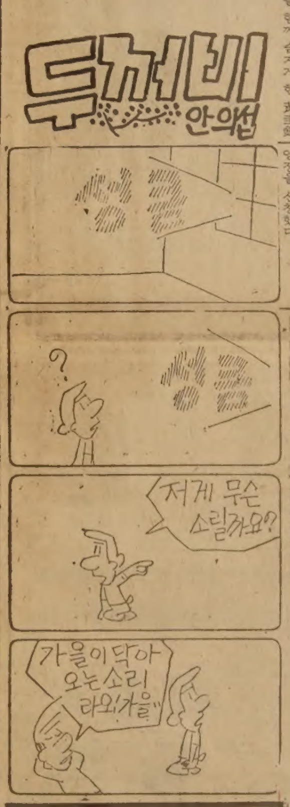
【방콕24日AP=聯】 오는 11월9일부터 25일까지 방콕에서 열리는 81년도 킹스컵축구대회에는 전년도 공동우승국인 한국과 泰國, 中共등 8개국이 참가할것으로 확인됐으며 北傀와 스웨덴은 초청장에 대한 회신을 아직 보내지않고 있다고 泰國축구협회(FAT) 사무총장이 24일 밝혔다.

솜키드사무총장은 종전의 경기진행방식을 약간 변경①결승전에서 연장전으로도 무승부가 될경우 승부킥으로우승팀을 결정하며 ②준결승전에서 무승부가 이루어졌을경우에는 연장전을 없애고 바로 승부킥으로 결승진출팀을 가리게된다고 말했다.

東大門 스케이트場 오는30일부터 開場

지난4월말부터 4개월간 문을 닫았던 東大門실내스케이트장이 오는30일 다시문을 연다.

지난64년에 설립, 그간 자운영에 허덕여오던 東大門스케이트장은 지난해 전력공급규정중 특례조항을 인정받게됨에 따라 그간 시설을 대폭정비, 이번문을 열게된것이다.



술주정남편 毒殺기도

星州서 술에農藥…住民3명 숨져

【大邱=聯】 경북도경은 25일 주벽이 심한 남편을 독살하려다가 남편과 마을주민 2명을 함께 숨지게 한 黃圭鉉 여인(43·경북 星州郡龍岩面東洛洞125)의 부인 鄭泰粉여인(43)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여인은 23일 하오7시께 남편 黃씨가 주민2명과 함께 2홉들이 소주1병을 마신뒤 다시 4홉들이 소주병을 가져오라고하자 평소 주벽이 심한 남편을 독살하려 마음먹고 소주병에 농약을 탔다는 것.

轢傷행인 내버린 50대운전사 구속

【釜山=聯】 부산北部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를 내뒤 피해자를 차에 싣고가다 길에 버리고 달아난 田基鎬씨(50·부산南區門峴2洞6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田씨는 24일 밤10시30분께 부산7나1800호 픽업차를 몰고 北區嚴弓洞에서 下端洞쪽으로 과속으로 달리다 嚴弓다방앞길을 지나던 이동네 柳永喆씨를 받아 길에 쓰러지게한뒤 柳씨를 차에 싣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田씨는 이날밤 11시20분께 혼수상태에 빠진 柳씨를 北區鶴章洞 녹십자앞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韓國, 印에4戰0敗

亞洲女子하키 豫選

【京都(日本)24日聯=聯】 한국은 24일 日本교오또(京都)에서 개막된 아시아여자하키선수권대회 예선B조첫경기에서 강호 印度에 4-0으로완패, 1패를기록했다.

印度는 이날 FW라즈비로·카우르가 4골을 모두 성공시켰다.

한편 이날 A조에서는 말레이지아가 홍콩을 7-0으로대파하고 1승을기록했다.

◇첫날전적

▲A조

말레이지아 7 (1-0, 6-0) 0 홍콩

▲B조

印度 4 (3-0, 1-0) 0 한국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攻守의核」저지에 覇權이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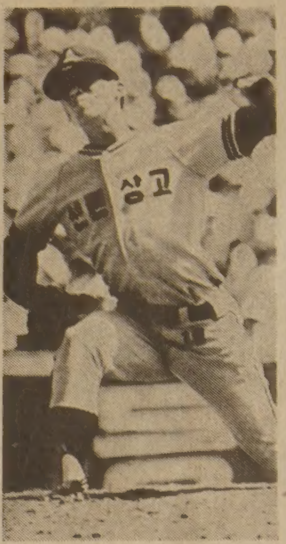
成埈 柳仲逸 慶北高

朴魯俊 金健友 善隣商

금년시즌 2冠王을 노리는 慶北高와 첫우승을 노리는 善隣商高의 鳳凰大旗 결승대결이 26일 하오6시부터 금년 고교야구로서는 처음 나이터(야간경기)로 벌어진다. 양팀의대결은 곧 慶北의 좌완 에이스 成埈과 善隣商 攻守의 핵 金健友·朴魯俊의 싸움이기도하다. 승부의 관건이 되고있는 양팀 마운드의입전태세와 예상 스타팅·멤버들의 전적을 비교해 본다.

◇成埈

◇柳仲逸


◇朴魯俊

◇金健友

內野手의 조직력莫強

成埈19이닝서-無失點

『成埈을 A급투수로 보기에 좀 약하지요. 文炳權이나 朴春錫이보다 더많이 맞는편입니다.그런데도 야수들이나 나나 埈이가 마운드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거든요』具守甲감독의 말처럼 成埈의 투수기량에 대해서는 이견이많은것같다. 특히 大邱 시내서의 그의 투수성적은 볼품이 없다고한다.

그러나 청룡기우승의 힘, 鳳凰大旗 결승진출의 원동력이 成埈의 역투와 재치있는 이라고 지적한다.

길러야 빠르고 좋은 볼이 나 온 셈이다. 『올텐데』具감독은 또 成埈이 팔을 뒤로 돌려 접지말고 곧장 뻗어야 좋은 투수가 될것이라고 지적한다.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던진것도아니고.

고장난 주전포수 申成哲을 대신한 2년생 金允榮의 5할7푼2리의 놀라운타격도 慶北으로서는 기대밖의 큰수확이다.

◇경북고 스타팅·멤버

타	자	타수	안타	타점
1(遊)	柳仲逸	18	6	4
2(一)	權宅宰	15	4	3
3(三)	洪淳浩	15	4	4
4(中)	崔武永	14	5	2
5(左)	曺光德	10	4	3
6(浦)	金允榮	7	4	2
7(二)	盧國成	10	2	1
8(右)	申成哲	3	0	0
9(投)	成埈	8	4	0

투수	회수	타자	안타	삼진	사사	실점	자책
成埈	19⅓	67	8	4	8	0	0
文炳權	5⅓	20	3	1	1	0	0

유격수 柳仲逸을 비롯한 내야수비진에 있음을 누구도부인하지 못한다. 비교적 가벼운 체격이지만 成埈은 무거운 구질의 직구와 커브로 이번대회의 19이닝에서 무실점, 방어율0의 놀라운 투수성적을 보여주었다. 큰 변화는없으나 이곳 저곳 구석을 찌르는 코너웍이 뛰어나고웬만큼 맞아서도 흔들리지않는 침착성이 큰 강점이다.

『너무 유순하고 몸이 약해서. 좀 더 잘먹이고 배짱을

왼손잡이 朴春錫이나 우완文炳權으로 적절히 계투시키면 善隣도 쳐내기 어려울 겁니다』

具守甲감독도 지금 成埈으로 먼저 막게하느냐, 핀치에 구원투수로 내보내느냐로 고심중.

成埈은 투수로서뿐 아니라 이대회서 8타수4안타, 타율5할의 좋은 공격력을보여 慶北에 큰힘이 되고있다.

慶北이 자랑하는 내야수비의 조직력은 善隣측서도 부러워할 정도. 특히 유격수柳仲逸의 폭넓고 기민한수비로 慶北은 결승의 지름길을달려

黃金멤버에 勝利자신

朴魯俊타율 5할2푼

朴魯俊·金健友를 일컬어 『초고교급스타』라 격찬한다. 善隣의 간판격인 이들은 이미 고교·대학을거쳐 실업단에서 활약중인 베테랑을 다며 높은 知名度와 확고한 인기를 누리고있다. 다같이 어 놓는다.

투수로서 또 타선의 중심으로서 無冠의 강자 善隣을 이끌고있다.

우완 金健友는 고교야구의 고의 스피드를 자랑, 善隣의 선발투수로 상대의 厳重등뭐

金은 이번대회서 투구회수 20회에 3자책점으로 방어율 1.35를 기록했다.

金健友의 위력 포지션은 3루수. 그러나 게임이 많은 고교야구를 견디내기위해 善隣은 스피드가 뛰어난 그를

特히, 타자를 현혹하는 우수 트로 善隣의 수많은 위기를 구해내곤 한다.

朴은 이대회서 16회에 1자책점으로 방어율 0.56

그러나 중학시절부터 출굴

◇선린상 스타팅·멤버

타	자	타수	안타	타점
1(左)	金雄大	18	4	1
2(遊)	金國鎭	18	4	1
3(右)	朴魯俊	17	9	4
4(投)	金健友	17	5	3
5(一)	趙永一	17	4	5
6(中)	李瞰宰	16	7	4
7(浦)	趙弘紀	16	5	4
8(二)	金明培	7	3	1
9(三)	朴志遠	15	4	0

투수	회수	타자	안타	삼진	사사	실점	자책
金健友	20⅓	62	15	17	3	3	3
朴魯俊	16	58	7	14	6	1	1

투수로 개발해냈다. 具本浩감독은 『역시 투수로보다는 타자로서 장래를개척해야할 선수다. 그러나 이황금멤버로 鳳凰大旗 한번못잡는대서야 말이되느냐.모교의 우승을위해 3~4회 정도는 잘던져주리라 믿고있다』고 金健友의 선투에 기대를 걸었다.

좌완 朴魯俊은 슈트나 슬라이더의 다양한 무기를 가진, 투수로서 흠잡을데 없는 선수.

투수로 자라온 朴魯俊은 지병처럼 팔굼치의 통증을 갖고있어 『될수있으면 쉬게한다』는게 具감독의 이야기.

두선수의 보다 무서운 위력은 타격에서 나타나 상대투수가 3번 朴魯俊을 막으면 4번 金健友가, 金을 견제하면 朴이 맹타를 날려 승부를 결정지어 버린다. 5게임동안 金健友가 투수로 활약, 타율이 2할9푼4리에 그쳤으나 마운드의 큰 부담을 던 朴魯俊은 5할2푼9리의 놀라운 타력을 보여 주고있다.

趙鎭生 千5百m 우승

韓·日高校 교환 陸上경기 4분 40초 21로

81년도 韓日고교교환육상경기가 25일 서울운동장에서 남고17개종목 여고13개종목에걸쳐 벌어졌다.

첫날 남고1천5백m에서 趙鎭生(전북체고)은 4분04초21로 우승의 차지했고 여고 1천5백m에서도 한국의 林順男(청주여고)이 4분53초78로 日本선수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62회國體일정 확정

10월10일부터 15일

대한체육회는 제62회 전국체육대회를 메인스타디움인 서울운동장 사정에따라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개최키로 일정을 변경했다.

당초에는 10월7일부터 12일까지 열기로 돼있었다. 이에따라 대회행사및 경기일정과 성화행사일정등도 재조정했다.

어머니농구회 總會

회장 尹德珠씨選出

韓國어머니농구회는 24일 하오 汝矣島國民銀체육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尹德珠씨(淑明女高출신)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규약을 통과시켰다.

총회는 또 오는10월3일부터 10개팀이 참가하는 제1회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집행부 (괄호안은 출신학교)

▲회장=尹德珠(淑明女高) ▲부회장=金熙順(京畿女高) 朴晶淑(梨花女高) 金良植(淑明女高) ▲이사=각팀의 長 ▲감사=申恒代(서울女商) 金東光(馬山聖旨女高)

한국男女 準優勝

세계軟式정구, 숙적日에 完敗

【힐로(하와이)=聯】 韓國남녀 연식정구대표팀은 24일(한국시간) 이곳 시빅테니스코트에서 벌어진 제4회세계연식정구 선수권대회 2일째 단체전 마지막경기에서 日本팀에 각각 3-0으로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한편 金惠洙·朴範淳조는 25일 남자개인2회전에서 日本의 소노다(園田)·이나가끼(禾垣)조를 5-2로 눌러 4強에 올랐다.

金泰成·南白洙조는 2회전에서 日本의 이노우라(井村)·오오끼(大木)조에 5-2로 패해 탈락했다.

또 한국의 申楓棗·金明壽조등 3개조가 1회전서이겨 2회전인 8強에 올랐다.

◇제2일전적

▲남자

日本 3-0 韓國

▲동순위=①日本 4승 ②韓國 3승1패 ③自由中國 2승2패 ④美國 1승3패 ⑤브라질

▲여자

日本 3-0 韓國

▲동순위=①日本 3승 ②韓國 2승1패 ③自由中國 1승2패 ④美國 3패

優秀선수 體力열세

대부분 營養부족탓

體育會調査

대한체육회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소년체전서 6위이내에 입상한 65명의 육상선수를 대상으로실시한 기초체력및 체력측정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가정환경이 좋지않아 영양섭취가 부족한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체육회가 작성한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단·중거리의 경우 순발력은 우수하나 스피드와 지구력이 부족한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선수들이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지못해 기초체력이 크게 뛰어지는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약경기에서는 선수19명중 가정환경이 상류에속한자는 단2명뿐으로 나머지17명은 생활이 매우 어려운실정이며 선수생활을 계속하고싶다는 학생이 7명, 잘모르겠다가 4명, 나머지8명이 하기싫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투척부문에서는 남자선수6명전원이 야구나 축구등 인기종목으로 전향할뜻을비쳤다.

민요와 팝송의 가수

박 소 영

(꾀꼬리가수! 미8군무대에서 인기절정이던 박소영 드디어 거구장에 출연)

출연시간 :

금, 토, 일요일(밤 8 : 30~새벽 2 : 00까지)

* 영업시간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200대 수용주차장

*가수와 밴드(목, 금, 토, 일)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정열, 김선남

현대 한국작가 초대전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석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 I 회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 영 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대
—제 I 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권 승 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I회특선)
—창작미협선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삼인전

장 소: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 특설화랑
123 QUEEN ST. W.

시 간: 10월 8일(목). 9일(금): 6:00P.M. ~9:30P.M.
〃 10일(토). 11일(일): 2:00P.M. ~9:30P.M.
〃 12일(월). 13일(화): 6:00P.M. ~9:30P.M.

BACK to SCHOOL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Money-making Specials

Hilroy

		PACK	RETAIL	NET COST
05-229	50 SHEET REFILLS LINED	48	99	45
05-226	" " PLAIN	48	99	45
05-235	100 SHEET REFILLS LINED	24	149	68
05-224	" " PLAIN	24	149	68
06-233	200 SHEET REFILLS LINED	24	285	120
06-225	" " PLAIN	24	285	120
06-232	250 SHEET REFILLS LINED	12	349	145
12-102	4 PACK EXERCISE BOOKS	40	209	95
13-121	COIL EXERCISE BOOKS	40	139	70
1669	COIL EXERCISE BOOKS W/ PICTURES. ASSORTED DESIGNS: WILD & WONDERFUL, NHL & UFO	40	179	69
06-248	DUOTANGS. REG. 100's	1	39	18
06-448	" 3 HOLE 80's	1	45	22
17-229	VINYL FOLDING CLIPBOARD	24	299	162
04-529	VINYL BINDERS 1"	20	289	120
04-589	" 1½"	10	429	175
04-549	" 2"	10	499	225
24-402	PRESSBOARD BINDERS ⅝"	20	219	100
24-403	" " 1"	20	239	110
2107	SUPER PRESS BINDERS	50	99	55
P50	GAGE ⅜" BINDERS	12	159	60

		PACK	RETAIL	NET COST
21-120	TYPE PAPER TABLETS	40	79	40
21-220	TYPE PAPER PACK	20	225	110
41-400	FUNTIME ART PAPER	40	169	80

BiC

		PACK	RETAIL	NET COST
P51	BIC CLIC 3 PACK	24	237	99
P52	BIC VALU PACK	72	195	95
P53	BIC ROLLOR 2 PACK	24	196	95
P54	BIC CLIC 2 PACK	24	198	95
P55	BIC CRAYONS 7's	24	149	75
P56	BIC PREPACK A: 24 MED. BLUE .29, 12 XFINE BLUE .69	1	15.24	7.20
P57	BIC PREPACK B: 72 BIC ULTRAFINE .99, 1 DIGITAL WATCH 26.00	1	96.28	43.20
P58	LIQUID PAPER SPECIAL DEAL 2 TO PACK VALUE 2.98/2 SPECIAL 1.99/2 NET 1.20/2	10	2.98	1.20

60¢ PER BOTTLE

Sellotape

		PACK	RETAIL	NET COST
1403	1000" SELLOTAPE	48	89	42

BIG DEALS

for Back-to-School

FaberCastell Laurentien Pencils

		PACK	RETAIL	NET COST
1833	COLOUR PENCILS 8	12	279	119
1834	" 12	12	399	185
1835	" 20	6	649	290
1859	LAURENTIAN MARKERS 8	12	169	75
1860	" 12	12	249	120
1861	" 20	6	399	180
P59	FABER CASTELL VALU-PACK	24	189	95
P60	INTERNATIONAL 3+1 PEN SPECIAL	24	99	50
P61	POINT 5 PENCIL & LEAD DEAL	12	396	185
P62	LAURENTIAN 3 HOLE PENCIL CASE	12	99	39
1885	CAMPUS 144 PENCILS	1	25	10
P63	VENUS VELVET DELUXE PENCILS. 30 to box	1	35	18
P64	VENUS CADOMARK 20 BLACK 20 RED, BLUE, GREEN	1	99	30
P65	FANTASTIK MARKERS BLUE	12	200	69
P66	COL-ERASE PENCILS	12	149	75
P67	GOLIATH PENCILS	12	99	50

PAPER MATE

		PACK	RETAIL	NET COST
2175	ERASERMATE PENS	24	249	115
P68	PAPERMATE BTS FLOOR DISPLAY		486.96	243.48
1690	PAPERMATE STANDARD	12	149	75
1691	MALIBU PENS	12	199	99
1688	FLAIR MARKERS	48	89	45
1685	ULTRA FINE FLAIR	48	99	49
P69	STICK PEN PREPACK: 72 MEDIUM .25, 72 FINE .29	1	38.88	23.34

BRISTOL BOARDS

		PACK	RETAIL	NET COST
	WHITE	50	55	27
	COLOURED	20	60	30

THERMOS

TRADE MARK REGISTERED/MARQUE DEPOSEE

		PACK	RETAIL	NET COST
1467	CHILDRENS LUNCH KIT	6		575
1458	10oz 'FLIP N SIP' BOTTLE	6		306
1450	P10 COFFEE THERMOS	6		330

SHEAFFER®

		PACK	RETAIL	NET COST
P70	SHEAFFER PEN & REFILL DEAL RETAIL 240.18 NET 115.00	1		
1897	NONONSENSE CARTRIDGE PEN	12	299	150
1898	" BALL PEN	12	199	100
1899	" MARKERS	12	299	150
2205	" ROLLING-PEN	12	299	150
1891	SHEAFFER CARTRIDGE PEN	12	249	135
1892	" BALL PEN	12	249	135
2203	KALEIDOSCOPE PENS	12	399	200

Crayola®

		PACK	RETAIL	NET COST
1801	Crayola crayons 8's	12	65	33
1803	" " 24's	12	159	75

blisto alco

50% DISCOUNT ITEMS

1676 Math set
1853 Plaid pencil case
1603 Paint set
1604 Stars
1607 Push pins
1610 Artist brush
1617 Compass
1618 Barrel sharpener
1620 Self stick reinforcements
1606 Rubber bands
1614 Spc. eraser pack
1626 Stapler & staples
1636 Combination lock
1637 Flat comb. lock
4982 Zinc Lock

		PACK	RETAIL	NET COST
2126	WEBSTERS DICTIONARY	6	299	162
2127	ROGETS THESAURUS	6	299	162
2128	FLINTSTONES DICTIONARY	6	299	162
2157	NHL SCHOOL KIT	12	299	162
2158	NHL PENCIL PACK	12	99	50
2241	DISPENCILS	72	59	30
2214	MUPPET SCHOOL KIT	12	299	162
2220	MUPPET PENCIL SHAPE CASE	12	229	115
P71	VINYL PENCIL CASES	12	99	30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인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일본 레스트랑
☎ : 977-9519

JEWELERY SALES PERSON
영어에 능통하고 용모단정하며
보석판매 경험자 우대함 카나다에서
고졸이상인자에 한함
☎ : 979-3196 고 려 보 석

유경험자 캐쉬어구함 : 다운타운에 있는 밀크스토아
오전8시~오후5시까지
☎ : 925-0339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
MAIN & GERRARD ST. 지역
☎ : 691-3363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스토아 헬퍼구함 : FULL TIME
YONGE과 EGLINGTON지역
☎ : 485-4353(아침9시~정오 전화바람)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가게 경험있는 남자 FULL TIME
HELPER구함
☎ : 597-1115

도낫·캣쓸 : (도나스·샵)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풀타임, 파트타임)
398 CHURCH ST.(다운타운지역)
☎ : 977-0303

도나스 SHOP에서 일할 캐시어 구함
남자분에 한함. 밤12시~아침8시
☎ : 531-2689 1468 QUEEN ST. W.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풀, 파타임)
STEELE & DON MILLS 지역
☎ : 491-1931

집에서 여자용 세타를 짤수 있는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음. 영어회화 가능한분
☎ : 665-2265, 488-5170, 488-4498

식당 호모사(HOMOSA)
웨이트레스 구함 : 영어회화할 수 있는 분
☎ : 466-2250

애기 봐줄사람 구합니다 : 출퇴근하셔도 좋고, 같이
계셔도 좋습니다.
☎ : 244-2043, 248-6065

구 인(사람 구함)
공장에서 일하실분 구함. 주 나흘간 낮과 밤 시후트 워크
주소 : 971 MATHESON BLVD. MISSISSAUGA.
☎ : 625-1433

PHOTO샵에서 일할 여자분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746-2120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자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급 구"
소형차를 갖고 계신분으로 주3회 식품점에
신문 배달하실분 구함.
☎ : 533-2361 MRS. KIM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AGINCOURT)
스토아 주인이 병환으로 급히 매매코자 함.
ASKING가격 $35,000. 장소 : 매우 바쁜 프라자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A. E. LEPAGE복덕방)
492-7333 KEN MARESCAUX

그로서리및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6천달러
RENT 450달러
263 DUNN AVE.

세 탁 소 매 매
수입좋은 PICK-UP세탁소 매매 : 월세 $300. 월수입
$2000이상(단, 바느질 할줄 아는 분에게 팔고 싶습니다)
1716 QUEEN ST. E. 방문요망(프라자 안)

야채가게 팝니다
☎ : 690-6967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뒤에 살림집 방2개 ☎ : 259-0869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4천5백달러
3261 DUNDAS W.
☎ : 769-5956

버라이어티및 기프트가게 급매 :
주매상 $3500~$4000
☎ : 757-1097 미스타 한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조그만 가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람
61 MAIN ST. TOR. ☎ : 694-7848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스키 휴양지 부근에 있는 전망있는
스토아 매매
에드·구마가이에게 연락바람.
"VARIETY & GROCERY STORE"
Near Horseshoe Valley Ski Resort.
Modern building, large living quarters, great potential. Present Gross $150,000.00. 14% mortgage. Asking $149,000.00.
For details contact Ed Kumagai.
CENTURY 21 Don Campbell Real Estate Limited
1-705-325-1366 or 1-705-325-9034.

바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 성업중인 스토어를 형편상 급매
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531-0773 김 (오후6시 이후)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GROCERY STORE매매 :
토론토서 160km서북방에 있는 타운. STORE 2000sq. ft
2층에 방7개. 연매상 $20만. 요구액 $10만(건물포함)
1주일 57시간 개점(일요일 휴점)
☎ : 1-519-327-8368 MR. CHAE

매 매
서울식당을 싸게 팝니다. 리스 : 3년3개월
☎ : 532-0602
미스타. 정

유명메이커 제품만 취급하는
TV, 스테레오 비즈네스에
흥미있으신분 연락바람.
직접와 보십시요.
☎ : 745-5555 미스타 전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집·방세·하숙

방세놓음 : 8월27일 입주가능. PAPE 서브웨이에서
한블럭거리(FURNISHED)
☎ : 466-3764 오후4시이후 전화바람.

집세놓습니다 : 스카보로지역
방4개, 화장실2개, 지하실 있는 단층집
☎ : 968-9450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824(B), 226-5430(R) 변 달 원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MINIT TUNE : 주정부 지정 차량검사장
①TUNE UP, ②BRAKE검사무료, ③각종차수리일체
☎ : 782-6311 이 태 경(793 Spadina Rd. at Eglinton)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KIPLING)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식품점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정기휴일 : 일요일
배달도 가능 합니다.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점 용

Can Am Coin Investments Ltd.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주간女性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보수 :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3118 오 현 구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타 제작
페인팅, 타 일
669-5784 MR. 심

기 타

변호사 개업(黃永興 律師)
WING H WONG
BARRISTER & SOLICITOR TRADE MARK AGENT
OFFICE : SUITE 214, 4455 Sheppard Ave. E. (at Brimley)
Scarborough Ont. Tel 298-6767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합니다.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식 당

CHINA HOUSE
CANTONESS & MANDARIN CUISINE
781-9122 825 Eglinton W.

KOREA HOUSE
*즉석불고기 전문
666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 TEL. 536-8666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재봉틀 회사에서 직원모집
트레이닝 받으실분 환영. FINISHERS, SMALL PARTS JOINERS, PRESSERS, CLEANERS AND EXAMINERS, SERVICE PERSONS
일하기 좋은 조건에 수입이 많음. 새기계만 사용.
일하는 시간 : 오전8시~오후4시
아니면 오전7시~오후3시
IRVING POSLUNS CO.,
637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5V 1A8
(4층의 MRS. FRANCIS를 찾으세요)